

잉태 3

1990년 봄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잉태」편집위원회

권두시

자매여 일어나라

깊고 깊은 통곡속에서
우리 사랑 여성들을 본다

폭력과 강간과 비하의 소용돌이
절망의 바닥에서 담벼락에서
본다 그대들 여성들을

조국 어머니 만신창이 몸뚱아리
지리산 기슭 밭고랑에서 깃발처럼 살아나는
그대 여성들의 팔목을 본다

아가의 눈물자위 빨랫줄 너머에서
우리 사랑 여성들의 굴레를 본다

그러나 동지, 자매여 일어나라
초라한 우리들의 일상의 시간을 지나

생명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리니
조국의 맨얼굴로 다시 다가서리니

현모양처의 사슬도 끊고
밥데기의 상장도 집어던지고
반푼이의 세월도 무쇠처럼 녹이고
해방의 길 연대의 길로 나아가리니

이제 아니다 우린 결코 아니다
우리 사랑 자매여
여기는 마지막 식민지가 아니다

이책을 오천의
연세 여학우에게
바칩니다

10 책을 펴내며 편집실

시대글

14 해방후 통일운동의 흐름과 전망 조동일

40 맑스주의 여성해방론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간의 쟁점 검토 박영희

편집실 기획 편집실

58 연세 여학생운동론

78 여학생 취업문제에 대하여

우리들의 탐방기 편집실

98 홀트아동복지회와 애란원을 찾아서
- 냉대속에 버려진 우리들의
아기와 여성들

잉태논단

합법정당 결성을 둘러싼
장기표·박노해 논쟁에 부쳐 김종만 104

통일운동과 여성운동 고송방 118

잉태글사랑

□ 시	사랑법	변정수	150
	목동에서	김선일	152
	하늘편지 4	김병길	154
□ 수필	여성이라는 이유로...	김상미	155
□ 편지글	결혼하는 박형에게	고정아	158
□ 서평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읽고	문우편집위원회	162
□ 소설	유년월기	김별아	167

출산후기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위해 244명의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아름다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평양화학

인류의 아름다움, 사회의 아름다움을 위한 태평양화학의 노력은 90년대에도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첨단의 신소재와 생명공학을 응용한 심도있는 피부과학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저자극성 화장품 뿐 아니라 각자 피부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성분의 화장품,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가정생활용품,

식품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품을 연구·개발해왔던 태평양화학 244명의 연구원들—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평양화학이 새롭게 펼쳐갈 90년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앞당겨 실현시킬 것입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 음향의 KS·디자인의 GD·기술의 JIS에 빛나는 영창피아노
● 귀여운 지브·아름다운 선율·행복한 가정

세계가 함께 느끼는 감동의 소리-영창피아노

그 음질과 명성은 세계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리가 깊으면 감동도 깊습니다.

깊고 풍부한 음질을 추구해온 영창피아노의 노력은 원자재 하나의 선택에서부터 엿볼 수 있습니다.

33년전 소리전달 계수가 최고인 나무를 찾아 태평양 건너까지 갔었던 영창의 집념은 신비의 목재 알래스카산 시트카 스푸루스를 찾으므로써 그 풍부한 음질을 창조해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끊이지 않는 맑고 고운소리,

세계인 모두가 느끼는 깊은 감동의 소리— 영창피아노.

지금도 완벽한 음질을 위한 영창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피아노—
바로 영창피아노입니다.



맑은소리 고운소리 33년

영창피아노





애국학생 이한열 열사의
명예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책을 펴내며

I

많은 사람들이 '여학생운동'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여학생운동이 무엇이나, 총여학생회는 뭐하는 단체이냐고 묻습니다. 미심쩍음과 호기심을 잔뜩 가지고서 말입니다. 쿿대 높은 여학생들 몇몇이 모여서 수다스럽게 웃고 떠드는 게 총여학생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이 벅찼어진 생각에서부터 총여학생회는 오히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여학생들마저 여학생운동이라는 제한된 영역으로 이끌어내려 한다고 하는 경직된 생각들의 단편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속에 반짝이는 관심과 궁금증이 숨어있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성모순은 실재하고 있다' 이것뿐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부엌일을 하고 아기를 기르는 것을 자기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나 동아리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밥하고 설거지 하는 것은 여학생의 몫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에도 여학생은 훨씬, 몇배나 더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교수가 되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훨씬 적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학교에서 여교수님이 가정대를 제외하고 몇분이나 계신가요. 이런 것들은 흔히 여학생들이 능력면에서 열등하고 의지가 빈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노동자가 되고, 농민이 되는 사람들은 그들이 결코 능력이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평생 노동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에 여성모순은 반(反)인간적이며, 그래서 반드시 타개해야 할 것입니다.

불평등이 있고 모순이 있는 곳에 그것을 해결하려는 운동이 있고 조직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있어온 성차별 문화와 제도를 바꾸어나가는 것에서부

『잉태』 편집 실

터 우리의 학교가 속해있는 한국사회가 강요하는 분열과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급에 의해서, 신분에 의해서, 성에 의해서 인간의 높낮이가 결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등해질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것의 모두입니다.

II

여학생회지인 『잉태』 3호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를 마감하면서 우리 사회가 제시한 두가지 과제를 전체적인 영역과 그 한 부분인 여성운동의 영역으로 나누어 함께 시대글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잉태』편집실에서 엮은 기획에서는 우리 대학교에서 3년제를 맞고 있는 '여학생운동'을 보다 자세히 평가하는 글 하나와 여학우 여러분의 관심사와 답답한 문제들을 반영하기 위한 또하나의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잉태』에 글을 내주신 학내외 투고자들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번 『잉태』 3호는 쥐도 안 읽는 죽은 책이 아니라 오천의 여학우 여러분들이 한발 먼저 달려와서 찾는 '읽고 싶은 책'이길 바랍니다.

III

마지막으로 이책을 펴내는 데 도움을 주신 여학생처장님과 혜정이 언니, 그리고 총여학생회 여러분들, 백두기획의 세분, 글자를 치고 책을 펴내기까지 수고하신 인쇄노동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각한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광고 설비에 협조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8년



시대글

해방후 통일운동의 흐름과 전망
 맑스주의 여성해방론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간의 쟁점 검토

해방후 통일운동의 흐름과 전망

1. 통일운동의 소원일 수만은 없다
2. 통일문제의 본질과 통일운동의 의의
3. 통일문제에 대한 그릇된 관점과 실천적 오류
4. 통일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
5. 6월 항쟁과 통일운동의 본격적 재출발
6. 평양축전참가와 90년대 통일운동의 진로

조 동 일 (자유기고가)



1. 통일은 우리의 소원일 수만은 없다

80년대 구국운동의 가장 커다란 성과중의 하나가 통일운동의 진전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대통령선거 이후 본격화된 통일운동은 그동안 막연한 당위 '소원'으로만 머물렀던 민중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현실적 운동으로 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아직도 통일운동은 그 싹이 여리고 청년학생 이외의 계급계층 특히 기층민중들에게는 선연적 의미 이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80년대 통일운동의 본질적 한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통일과 반통일의 전선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통일의 편을 압도적 다수로 만드는 일은 90년대에 지속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구국운동의 과제일 것이다. 80년대 후반기에 전개된 통일운동에 대해 이러저러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소중하게 보아야 할 것은 통일운동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운동의 대중적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일 것이다. 통일운동의 축적된 운

동경험의 부족과 이론적 빈약함 등으로 인해 방법상의 시행착오와 일시적인 패배를 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통일운동에 대한 패배적 관점에 젖어들거나 통일운동에 소극적이게 된다면 이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사고에 다름아니다.

베를린장벽을 허물고 독일민족이 화해와 단합으로 나아가는 현사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독일민족의 패거를 같은 분단민족으로서 지지하고 기뻐하면서도 통일지사들이 감옥으로 가야하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서글프기만 한 것이다. 서베를린의 거리를 걷고 있는 동독인을 붙잡고 '우리나라에는 당신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이 있고 실제로 몇몇 정치인, 종교인, 학생이 몇 십년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형편에 있소'라고 한다면 그 독일인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민족의 문제를 다른 나라나 민족에게 호소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외교주의적, 사대주의적 발상에서 위와 같은 예를 든 것은 아니다. 항상적으로 파쇼적 공안통치하에서 분단을 강요당하면서 살아왔고 최근에는 '공안정국'이라는 더욱 극심한 테러통치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민족의 처지가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시대착오적인 것인가를 독일민족의 현실과의 극단적인 대비속에서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민족의 문제는 우리민족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국제정세가 아무리 유리하게 전개되고 다른 나라의 경험이 훌륭한 교훈을 던져주더라도 우리들의 주체적인 노력이 없다면 현실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시작한 통일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승리로 결말지어야 국가보안법도 철폐시키고 감옥에 갇힌 통일지사도 석방시킬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통일문제의 본질과 통일운동의 의의, 이와 관련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그릇된 관점과 실천적 오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통일운동이 남긴 교훈과 과제를 사적으로 고찰해보고 90년대 통일운동의 진로에 대한 약간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의 구성이 산만하고 내용이 빈약하더라도 독자들의 실천적인 문제의식과 결합하여 통일운동을 더욱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통일문제의 본질과 통일운동의 의의

1) 통일문제의 본질

변혁운동은 민중의 자주적인 요구에 기초에서 일어나고 그들의 힘에 의해 발전된다. 통일운동도 마찬가지이다. 통일에 관한 민중의 고유한 이

해와 요구-자주화, 민주화 등의 요구와 구별되는-가 있기 때문에 통일운동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면, 조국통일에 담긴 민중의 요구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통일문제의 본질을 밝히는 문제이고 통일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통일조국의 미래상과 통일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전술에서 엄청난 차이가 드러난다.

통일문제의 본질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경제해야할 편향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피상적 의미-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는-이상으로 통일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견해가 의외로 광범히 유포되어 있다. 이러한 견해는 조국통일을 갈라진 영토의 형식적 재결합으로 밖에 사고하지 못하는 천박한 견해로 전략하기 쉽게 실천상에 있어서 통일운동 무용론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사실상, 위의 견해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이 견해가 통일문제의 본질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그래서 통일에 담긴 민중의 절절한 염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견해는 그동안 미국 독재정권이 끊임없이 퍼뜨려온 민족허무주의, 통일무용론 내지 불가능론 등에 오염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국통일의 본질은 첫째,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국적 범

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받는 통일된 조국이 가능한가? 설사 가능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이냐? 우리는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 또는 소련의 입김하에 있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지 않는다고. 물론 조국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기에 예측적인 통일조국이 탄생될 염려는 없다. 결국,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민족의 분열이 초래됐고 분단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국통일의 본질적 문제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는 문제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전국적 범위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조국통일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가?

전국적 범위로 자주권을 실현한다는 것은 핵심적으로 통일된 자주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남한만의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물론 남한내에서 자주적인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전국적인 민족자주정권-연방국가가 가장 현실성있고 바람직한 방도일 것이다-수립의 전제조건이 되고 과정상으로 볼 때도 '민족자주정권→연방국가'로 나아가겠지만 그렇다고해서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하는 것과 연방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같은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조국통일의 문제는 남한의 사회변혁운동과는

80년대 후반기에 전개된 통일운동은 통일운동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운동의 대중적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의의를 남긴다

구별되는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통일의 본질인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권을 실현하는 것은 어떠한 민중의 요구로부터 파생하는가? 어리석은 질문같지만 '남한만의 민족자주권, 민족자주권을 실현하여 독자적으로 살아가더라도 잘살면 그만'이 아닌가?라는 물음을 통해서 '전국적 범위'에 담긴 민족의 요구를 명확히 하자.

물론, 남한의 사회변혁과정은 민중의 통일열망을 도의시킨 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이것은 위의 질문 자체가 비현실적임을 의미한다-만약에 그러한 변혁이 일시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회변혁으로 탄생한 정권이 오래동안 지탱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것이다. 민중의 절절한 통일염원과 이를 효과적으로 결집해낼 정책적 전망을 갖지 못한 즉 뜬금없는 통일열망에 뒷받침되지 못하는 정권은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의 반혁명공세-정부전복음모-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변혁은 민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고로 드높이고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결집시켜야 확실한 승리가 담보된다.

그 힘(통일과 관련된)이 무엇인가? 경제적인 이해인가? 물론 통일이 되면 좀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도 통일운동을 추동하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해는 조국통일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커다란 성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이 조국통일과 관련된 본질적인 요구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에 북한의 경제력이 보잘 것 없어서 오히려 갈라져 사는 것이 더 잘 살 수 있다면 우리민족이 조국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민족은 아무리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다하더라도 미국의 한 주나 소련의 하나의 연방국가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민족자립경제를 이룩하면서 통일되어 살아가는 것을 바랄 것이다. 경제적 이해를 보더라도 핵심적인 문제는 절대적인 부의 크기가 아니라 자립적이고 통일된 경제제도의 것이다. 물론 자립적이고 통일된 경제에는 경제력의 성장도 함께 따라올 것이다.

조국통일과 관련한 민중의 핵심적 요구는 '자주적인 민족으로 존엄있게 살려는 요구'라 할 수 있다. 다소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위의 명제가 뜻하는 바는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조국통일이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실

현하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우리민족의 통일이 매개나라가 민족단위로 사회변혁을 수행하고 그러한 조건에서 세계변혁에 기여해야 한다는 현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고한 집단으로서 혈통과 언어를 가장 기본적인 징표를 하는 민족의 삶과 사회변혁의 기본단위이다. 민족이 사회경제관계에 의해 규제되는 계급과는 또다른 실체(물질)라는 점은 계급적 적대관계가 소멸된 사회주의국가도 민족국가단위로 존재하고 각 민족마다 자주적인 발전의 길을 걷고 있는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사회변혁이 민족단위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매개민족의 이해와 힘을 모아 민족적 특질을 갖고 진행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민족과 민족간의 불평등이 소멸할 때까지는 확고부동한 진리이다.

그런데, 우리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인해,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자주성이 침해당하고 단일민족으로서 발전이 일시적으로 차단당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통일은 자주성을 회복하고 민족단위로 존엄있게 살아가려는 민족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자주민족으로서 존엄있게 살아가려는 요구'가 어떻게 보면 당위적으로만 보이는 민족의 조국통일업원의 본질적인 측면인 것이다.

조국통일의 본질의 두번째 측면은 남북간의 대립과 불신을 지양하고 민

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것이다.

남북간의 대립과 불신은 사상과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의 직접적 결과이다. 남북의 서로다른 사상과 체제도 우리민족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외세의 강점과 피비린내나는 정치적 탄압과 테러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50년 가까이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 하에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남과 북의 차이를 하루 아침에 없애고 어느 일방의 사상과 체제로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조국통일은 남과 북의 사상과 체제를 용인하는 토대위에서—남쪽에서는 연공, 북쪽에서는 연자(資)—서로간의 대립과 불신을 없애고 서로의 차이를 화해와 단합으로서 줄여나가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조국통일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체제의 차이를 빌미로 대립과 불신을 합리화하는 것, 사상과 체제의 차이를 서로 포용하고 줄여나가는 노력을 방지하고 계속 고집하는 것이 조국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남과 북의 사상과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도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킬 수 있으며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으며, 남북간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합작을 통해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

조국통일의 본질은 첫째,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 자주민족으로서 존엄있게 살아가려는 요구를 실현하는 문제이다

하고 사상과 체제의 차이를 이유로 남북간의 대립과 불신을 정당화시키고 계속 대립과 불신을 지속시키려는 것은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며 사대매국세력의 구차한 변명에 다름아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대립과 불신을 씻고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자주권을 되찾는 문제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파생된 잘못된 쪼꺼기를 청산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는 첫번째 문제와 함께 조국통일의 본질적 문제로 되는 것이다.

조국통일의 본질적 내용은 조국통일의 주제, 원칙, 방법, 통일운동의 전략전술 등을 기본적으로 규정한다. 여기서는 조국통일의 본질적 내용이 조국통일의 주제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조국통일의 본질적 문제가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통일의 주제는 남과 북의 민족, 즉 남북의 민족자주세력이 된다(해의동포도 당연히 주체로 된다). 이점은 남한사회변혁운동

과 조국통일운동의 결정적 차이이기도 하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보이는 조국통일의 주제가 남북민족이라는 점이 그동안의 실천상에 있어서 망각된 적이 많다. 남북민족의 공동의 사안을 갖고 통일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을 꺼려한다거나 북한민족의 조건과 처지를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통일운동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벌여나가는 등의 잘못을 종종 범했던 것이다.

조국통일의 주제가 남북민족으로 된다는 점과 아울러 각각의 주체들의 처지와 조건이 다름으로 인해 남북의 민족들의 역할과 사명이 다르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휴전선을 유지하는 정전협정체여부가 미국의 손아귀에 있고 연공통일노선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철저히 불온시되는 남한의 사정은 군사정치적 자주권을 회복하는 문제를 긴급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고 조국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긴급한 과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조국통일의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처럼 운동을 전개한다면 이것은 장애물경기를 하는 운동선수가 평지를 달리듯이 질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과 북의 민족이 모두 통일의 주제

로 인식한다면 통일운동이 그러한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진다. 특히, 민주민주주의를 좌경으로 매도하면서 금기시하고 탄압하는 현재의 정치현실에서는 통일운동이 이러한 금기를 깨고 민주민주주의를 제기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운동에서 추구하는 민족대단결=연공연복의 기치는 민주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표현해주는 또다른 측면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공산주의자와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상은 소위 '자유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민주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인데 이러한 요구를 통일운동의 기본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통일운동이 민주화투쟁의 폭과 깊이를 심화발전시킨다는 점은 80년대후반기 통일운동이 국가보안법철폐문제를 전면화시킨데서도 잘 알 수 있다.

한편 통일운동이 민주화투쟁을 촉진하는 역할(반미자주화투쟁도 마찬가지)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통일운동이 우리민중의 주체적 역량에 걸맞게 추진될 것이 요구된다. 뿌리깊은 반공숭미사상이 잔존하는 우리의 실정에서는 대중역량에 근거하지 못한 통일운동의 추진이 변혁운동을 현실적으로 제약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통일운동이 원래적으로 민주화투쟁을 제약하지는 않지만 그릇된 전략전술의 운용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민주화투쟁을 침체시키는 역할을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운동 전술상의 오류로 인한 민주화투쟁의 일시적 침체를 통일운동이 민주화투쟁을 촉진시키는 본래적 역할과 혼동해서는 곤란하며 또한 항상 낮은 역량을 평계로 반공의 압초를 피해가서는 통일운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통일운동의 진전이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우리민중의 준비정도가 열악할지라도 통일운동의 기치가 민족대단결이고 그 본질적 내용이 연공연복일진대 반공반북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면 장 맛 보기는 영영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변혁운동을 가속화시키는 통일운동의 본래적 의의를 달성하는데서 관건적인 문제는 민중의 주체적 역량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기초 위에서 통일운동의 본질적 내용을 견지하면서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이는데 있다.

3. 통일문제에 대한 그릇된 관점과 실천적 오류

—계급주의적 통일관과 통일운동—

통일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민중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지만 계급문제가 아니라 민족문제이다. 계급문제를 운동의 주체의 문제-노동계급이 추진

사회변혁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조국통일운동은 변혁운동과의 관련속에서 그 의의가 명확해진다. 즉 통일운동은 변혁운동을 촉진하고 가속화 한다

하면 곧 계급문제라는 식으로-와 혼동하지 않고 계급문제를 계급적 억압과 착취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의 문제로 본다면 위의 정의는 전적으로 타당하다. 통일의 문제가 계급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단이 되지 않은 우리민족을 상상해본다면 명백해진다. 분단이 되지 않았더라면 민족자주의 문제, 사회의 민주화문제, 계급적 억압과 착취를 철폐하는 문제 등이 제기될지는 모르나 통일의 문제는 제기될 수 없다. 조국통일은 분단의 원인과 분단의 결과가 어떠한지간에 민족이 갈라졌다는 것 자체에서 비롯되는 민족분열을 치유하는 민족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계급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앞으로 사용하게 될 계급적 과제와 함께 사회주의변혁에서 제기되는 계급적 과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계급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용어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급문제'라는 표현을 즐겨쓰고 이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계급문제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의 인식이 불명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명료함이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는데 큰 장애는 없을

듯하다). 이러한 연관성은 문제해결의 주체와 대상이 동일하다는 점과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운동이 동시에 제기된다는 점 등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통일과 계급문제의 연관성에서 통일문제의 고유한 본질과 독자성을 인식하는 것과 통일문제와 계급문제가 동시적 해결을 요구한다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는 통일문제의 본질에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는 통일문제의 본질에서 살펴본다. 후자의 문제는 당면한 변혁에서 계급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문제의 성격이 달라진다. 당면한 계급문제를 사회주의적 변혁의 문제로 본다면 이는 그릇된 견해이다. 비과학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연공을 실현하기도 힘든 사회에서 곧바로 사회주의를 당면한 변혁의 과제로 실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주의적인 계급문제는 자주화, 민주화를 내용으로 하는 당면변혁과 연방국가를 통한 조국통일의 실현 이후에 민족 스스로의 민주적인 결심과 판단에서 제기되고 해결될 문제이다.

계급문제를 당면한 사회변혁에서

정치, 경제적 요구를 실현하는 문제—민중주권, 민족자주정권의 수립과 매관독점자본의 해제를 비롯한 민중 민주주의제도를 확립하고 구현하는 문제로 본다면, 통일과 계급문제의 연관성은 앞에서 살펴본 사회변혁과 조국통일의 연관성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면, 그릇된 통일문제에 대한 관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로 앞에서 제기한 두가지 중요한 문제, 즉 통일문제의 고유한 본질과 독자성에 대해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서 그릇된 관점은 출발한다.

필자는 아주 빈번히 통일문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이나 명제를 받거나 들은 적이 있다.

① '통일은 왜 하는가?' ② '통일은 계급적 문제와 분리시켜 생각해서는 안된다' ③ '계급적 문제해결없이 통일은 없다' ④ '통일은 노동해방의 수단이다' ⑤ '계급적 관점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해야한다'

통일문제의 본질과 독자성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앞 장에서 충분히 제기하였기에 여기서는 위에서 제기한 ①~⑤의 명제를 검토하면서 통일문제에 대한 상이한 견해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①과 같은 물음에는 통일문제에 대한 당위적 인식과는 반대로 당위적 인식을 거부하면서 통일문제의 본질을 천착하려는 건전한 열의가 배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을 제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문제의 본질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물음 자체가 그것을 잘 표현

해준다. 이러한 질문에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면 결국 통일과 통일운동 무용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②와 ③의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요구되는 바에 관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②가 올바른 견해라는 것은 앞에서 누누히 강조했다. 그러나 ②의 주장이 ③과 관련되면 이는 틀린 견해이다. ③의 견해는 계급적 문제의 선차적 해결(민주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을 주장하는데 통일운동이 계급적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역할과 통일운동과 계급문제해결을 동시에 모색해야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이 견해는 통일의 실제적 경로와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운동을 혼동하고 있다. 조국통일이 실제로 달성되는 것은 남한사회변혁이 성공한 이후 민중주권이 확립된 이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민중주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민중주권의 내용성과 지향점을 규정하는 통일운동이 필요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③의 견해는 '통일운동없이 계급문제 해결 없다.'는 점이 첨가 수정되어야 올바른 견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② ③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의 사고속에는 계급과 달리 존재하는 민족이라는 실제 민족이 자기의 생명인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고유한 운동을 해나가는 단위이고,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파괴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자기 본질로 한다는 인식이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

사회주의적인 계급문제는 자주화, 민주화를 내용으로 하는 당면변혁과 연방국가를 통한 조국통일의 실현이후에 민족 스스로의 민주적인 결심과 판단에서 제기되고 해결될 문제이다

이다. 그래서, 계급문제와 통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통일문제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에 대한 당위적인 인식의 또다른 표현이다. ② ③견해는 결국 '당위적인 통일'을 사회변혁 이후로 미루어 버리고 당면한 변혁운동과정에서는 통일운동을 방기하는 단계론적 오류로 귀결된다.

④ ⑤의 견해는 통일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가장 진전된 견해이다(노동해방문학의 이정로씨 견해, 소위 'NDR'론에 입각한 통일론). 이 견해에서는 '통일투쟁은 파쇼권력의 기초를 타격하는 당면 민족민주변혁의 주요투쟁영역 중의 하나'라고 파악하여 통일운동의 독자적 영역을 시인한다. 그러나, 통일문제를 남한사회의 민족민주변혁의 일부분으로서만 의미부여하여 통일문제의 의의를 축소시키고, 통일을 노동해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여 통일문제의 전민족적 성격, 전민중적 의의를 간과하고 있다. 통일은 사회변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회변혁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특히 남북간의 엄청난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은 통일문제의 본

질적 문제를 옮겨 인식하고 계속해서 통일운동을 밀고 나갈 것을 요청할 것이다. 또한 통일은 남한사회변혁에만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북한민중도 주체가 되어 함께 추진할 성질의 문제이다. 이러한 때 결코 통일의 문제는 당면한 사회변혁과정의 일영역으로서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 이러한 견해는 통일문제가 민중의 어떠한 근본적 요구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궁극적 고찰없이 분단으로 인한 폐해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론적인 고찰과 파쇼권력을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로서 통일운동을 실용주의적으로 파악하는데서 비롯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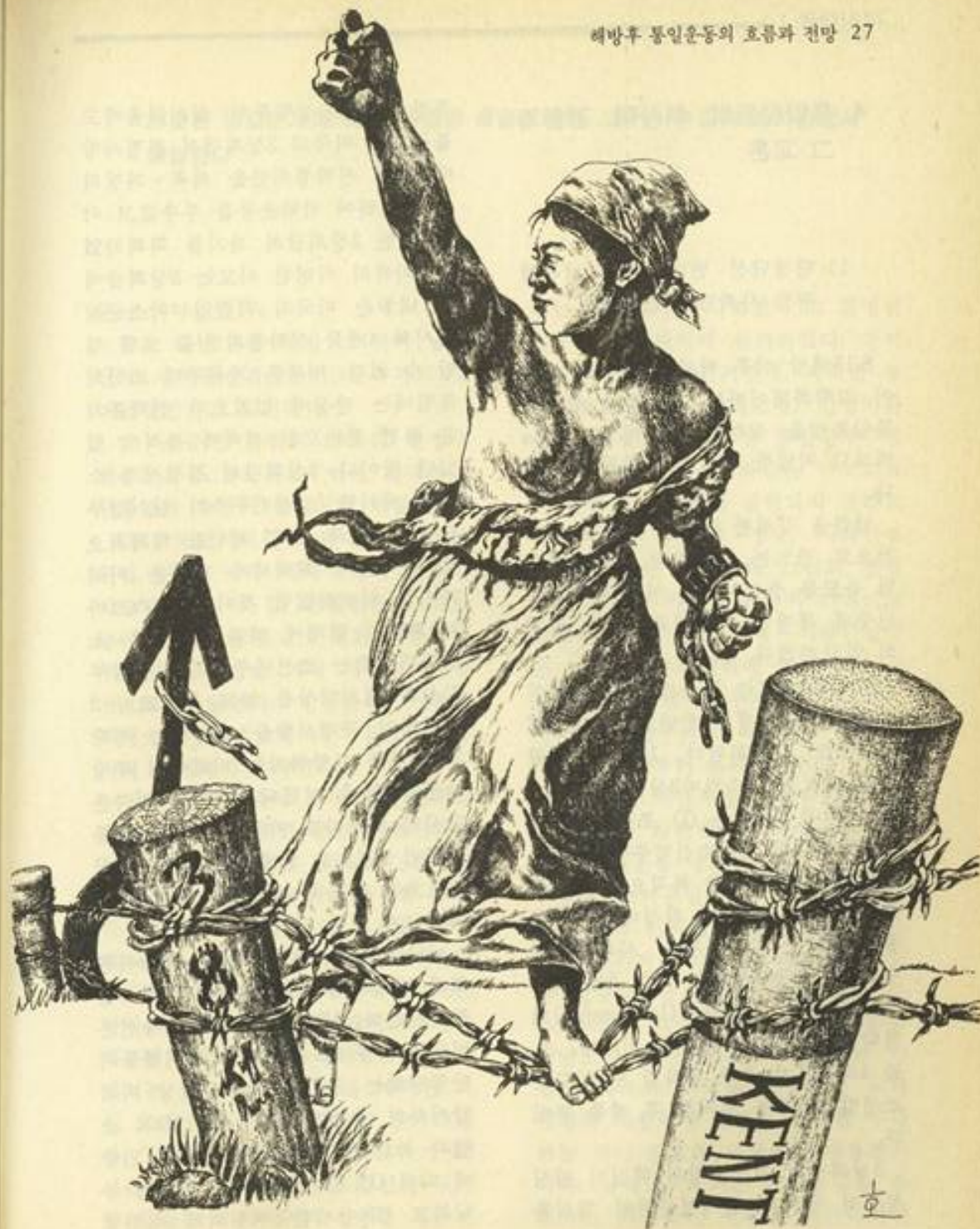
또한 통일을 노동해방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계급적 편향에 다름아니다. 통일이 노동해방의 수단이라면 여타의 계급, 계층이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노동계급의 연대전술이 타월해서인가? 노동해방의 대의에 흔쾌히 동의해서인가? 아니다. 운동은 민중 스스로의 요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계급에 대한 동정이나 일방적 지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 노동계급의 해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노동해방을 위해 반드시 건

녀야할 강입은 분명하지만 노동해방의 수단일 수는 없다. 노동자계급은 계급으로서 자기의 계급적 요구 뿐만 아니라 민족의 다수의 구성원으로서 민족을 이끌어갈 영도자로서 민족적 요구를 체현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요구는 현시기 민족자주와 통일에 대한 요구로 표출되는 바 이는 계급적 요구로 환원할 수도 없고 계급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수단도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민족이라는 실체는 계급과는 그 역사적 근원과 목적도대를 달리하며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이러한 민족적 실체에서 파생하는 민족문제로서의 통일문제는 그 고유한 본질과 동력을 가지는 것이다(2장참조). 통일문제와 노동해방의 문제가 시간적 선후로서 수단과 목적으로 관계지을 수 없다면 통일을 노동해방의 수단이라고 말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민족은 사회변혁이 성공하여 계급적 대립이 소멸한 이후에도 통일이 된 후에도 존속한다. 이 때에는 민족문제로서의 통일문제는 해결되고 노동해방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여전히 민족문제-민족간의 불평등 해소문제, 민족적 특성과 처지에 맞는 사회발전 촉구 등-와 사회정치적 제문제-사상개조, 사회, 자연개조 등-는 남아있게 된다. 통일문제를 노동해방의 수단처럼 여기는 견해는 민족문제로서 통일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면적이고 불철저하고 피상적인 견해이다.

그래서, 계급적 관점에서 통일운동

을 전개한다는 말의 의미는 수정되어야 한다. 통일을 노동해방의 수단시하는 것은 올바른 노동계급의 관점이 아니다. 통일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민중의 계급적 요구로서가 아니라 민족적 요구로서 참여한다. 자주민중으로서 통일된 민족으로서 존엄있게 살려는 민중의 통일에 대한 요구는 단일하다. 이러한 일치된 요구에서 전민중적인 통일운동은 가능한 것이다. 노동해방을 목적으로 한 통일운동이 따로 있고 농민해방, 빈민해방, 학생해방을 위한 통일운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이 통일운동에서의 요구가 유별난 것이 아니라 단일한 요구를 실현하는데서 의지와 능력이 남다르다는데 있다. 그 이유는 불문가지일 것이다(이러한 원리는 민주화 투쟁, 자주화투쟁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운동을 벌여나가는 데서 철저성여부를 요구가 다르다고 파악한다면 노동자계급 내부에서도 개인이나 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통일운동에서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관점은 형제간의 만행으로서 노동자계급이 전체 민중형제의 통일에 대한 요구를 가장 선두에 서서 가장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모범을 보이겠다는 각오와 결의이다. 다른형제들에게 절실한 요구로 나서지 않는 노동해방을 위한 통일운동을 강요하는 것은 만행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유치한 행동에 다름아니다.



4. 통일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그 교훈

1) 단정단선 반대투쟁과 남북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8.15해방 이후 역사적 과정은 분단이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임과 동시에 통일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투쟁이 전개된 시기였다.

남한을 강점한 미국은 38선을 국경선으로 만드는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 음모를 추진시키고 이에 반대하는 민중의 투쟁을 대량살육전으로 철저히 억압하였다.

미국의 음모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사항 불이행과 한반도문제의 UN이관으로 구체화된다. 1945년 12월 16일 개최된 모스크바3상(미, 영, 소) 회의의 결정사항은 ①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수립 ②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외제 작성에 있어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와 사회단체와 협의 ③ 공동위원회는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탁통치(Trusteeship)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 영, 소, 중 4국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 등이다.

3상회의의 결정사항의 핵심이 임시정부의 구성과 임시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4개국 신탁통치 실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상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해 신탁통치만을 왜곡·과장되게 선전하여 반탁운동을 부추겼고 이를 통한 3상회의의 파기를 획책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의도는 3상회의에서 내놓은 미국의 제안인 '미소군정 실시와 4개국 신탁통치안'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처음부터 조선의 독립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신탁통치를 통한 한반도의 지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3상회의의 결정서가 소련이 제시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과 4개국 후견' 제안을 대체적으로 받아들여 채택되자 미국은 이의 파기를 의도하였던 것이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열린 미·소 공동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구성의 협의대상을 놓고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사항을 반대하는 정당과 단체를 포함하자는 미국측의 주장 때문에 끝내 결렬되고 만다. 미국은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거수기에 불과했던 UN으로 한반도문제를 이관시키므로써 그들의 의도대로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미국은 UN에서 UN임시 한국위원회의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통과시킨다. UN감시하의 남북총선은 미군정에 의해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탄압당하는 조건에서는 사실상 미국 감시하의 총선거와 같은 것이었다. 소련과 북한 그리고 남한의 애국 민중에 의해 UN결정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UN임시한국위원회의 북한방

그릇된 통일문제에 대한 관점은 통일문제의 고유한 본질과 독자성에서 출발한다

문이 거부되었다.

결국 48년 2월 26일 UN에서 남한만의 단독총선거의안이 통과되고 5.10단정선거가 실시된다.

미·소공위 결렬후 미국의 단정수립음모가 노골화되자, 이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UN한국임시위원단 반대, 단독정부수립 반대, 국제 제국주의의 앞잡이 이승만, 김성수 등 친일반동과 타도 등의 요구를 내걸고 진행된 민중들의 투쟁은 2.7투쟁을 거쳐 제주도 4.3항쟁으로 폭발한다. 민중들의 가열찬 투쟁으로 제주도에서는 5.10선거가 거의 실시되지 못하였다.

민중들의 애국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단독선거를 통한 분단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남과 북의 전민족의 통일열망과 힘을 결집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48년 4월 19일~23일에 걸쳐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제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였다. 연석회의에는 남북의 16개정당과 40개사회단체를 대표하여 695명이 참석하였는데 남쪽에서는 이승만과 한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파와 애국자들이 참가하였다.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선에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고 천명한 김구도 연석회의에 참가하였다. 연석회의에서는 단독선거반대, 외국군 철거, 전조선정치위원회소집, 입법기관 선거, 헌법제정을 통한 통일정부수립 등을 결의하였다. 위와같은 연석회의의 결정은 남한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연석회의에 참가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에게는 미군정과 그들의 앞잡이의 테러등 가혹한 탄압이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당시 미국-이승만일당은 남북협상추진세력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기도 했다(연공세력을 공산주의로 매도하는 상투적 수법은 이때부터 본격화되었다).

단정단선 반대투쟁과 남북연석회의는 통일을 실현해야할 우리세대에게 어떠한 교훈을 남겨주는가?

첫째, 조국통일은 좌·우의 이념대립을 떠나 민족대단결의 이념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승만 일당의 '공산주의자와는 함께 살 수 없다'는 사고, 민족대단결·연공의 이념조차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수법은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미국의 이데올로기이다. 남북연석회의는 조국통일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이념과 전민족적인

지배와 힘을 모으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주는 모범이었던 것이다.

둘째,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 시켜야만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정단선을 외치는 우리민중이 누구에 의해 학살되었는가? 전민족의 의사를 결집한 남북연석회의 결정사항은 왜 실현되지 못하고 이승만, 김성수 등 일부 매국노의 의사대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었는가? 제주도 인구의 1/3에 달하는 애국민중은 미국놈의 지휘아래 미제 군복을 입고 미제 총으로 무장한 미국놈의 앞잡이들에 의해 살상되었다. 소수에 불과한 이승만일파를 권좌에 올려놓고 좌익을 포함한 다수의 민족자주세력을 정치적 탄압으로 철저히 파괴하여 분단을 결행한 장본인도 미군정이었다.

분단이 장기간 고착화됨에 따라 미국이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교묘히 자신의 얼굴을 숨기면서 그들의 대리통치세력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미국의 지배와 간섭이 통일의 결정적 걸림돌이다. 남북대결과 분단의 핵심인 군사정치적 문제(정전협정, 미군주둔, 군지휘권 장악등)에 관한 한 미국의 지배력은 아직도 확고하기 때문이다.

2) 4.19혁명과 통일운동

한국전쟁을 계기로 분단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전쟁의 궁극적 원인과 객관적 성격을 파악하기에 앞서 미국

을 혁명으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반공숭미의 도그마가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미국과 이승만일당의 효과적인(?) 선전과 활용을 통해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승만정권의 반공 반북정책에 기초한 정치탄압속에서도 통일운동은 전개되었다. 50년대통일운동은 진보당의 평화통일운동이 대표적이다. 진보당의 평화통일운동은 통일된 한국국회를 형성하기 위한 자유선거 시행, 선거의 준비와 실시를 감독, 감시하기 위한 국제감시위원회를 인도, 스위스, 체코대표로 구성, 선거를 준비, 실시하기 위한 전한국 위원회를 대한민국과 북한당국의 대표로 구성, 통일선거법의 후 외국군 철수등을 기본강령으로 하였다. 자주, 평화통일을 내건 진보당의 통일강령은 당시 북진통일노선을 주창하는 이승만정권과 정면으로 대립하였다. 이승만정권의 정치적 탄압과 원천적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5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평화통일을 기치로 내건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200만표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진보당의 통일운동은 59년 7월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의 처형으로 막을 내리지만 이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마침내 4.19혁명에서 폭발하게 된다.

진보당의 통일운동은 해방직후와는 달리 제도권내에서 벌어졌다는데 그 특징이 있는데, 제헌국회 소장파의원들의 평화통일론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국군철수, 국가보안

8.15해방 이후 역사적 과정은 분단이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임과 동시에 통일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투쟁이 전개된 시기였다

법반대 등을 내건 제헌국회 소장파의원들이 49년 4월 '국회프락치사건' 조작을 통한 가혹한 탄압으로 거세되었듯이 진보당의 활동도 이승만정권에 의해 불법화되었던 것이다.

민중들의 단정단선반대, 통일정부 수립의 요구를 철저히 억압하면서 들어선 이승만정권에 의해 또다시 제도권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합법적 통일운동조차 차단된 상황에서는 이승만정권을 타도할 때만이 통일운동이 장애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4.19혁명은 이승만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부의 수립과 자주화,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4.19직후의 통일운동은 사회대중당을 비롯한 혁신정당과 혁신세력의 집결체였던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등의 활발한 통일논의와 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과 교류추진 등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혁신세력의 통일론을 요약하면 남북협상을 통일추진방법의 기본으로 규정하고 서신왕래, 남북교류실시를 당면한 요구로 제기하면서 외국군철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전국의회 구성, 헌법채택등을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이 정부가 국제적으로는 중립국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남북학생회담개최, 남북학생 친선체육대회 개최, 학생기자교류등의 구체적인 요구를 내걸고 행동에 돌입하였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기치하에 전개된 학생들의 통일운동은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며 힘차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4.19혁명으로 집권하게된 민주당은 이승만 일당의 무력북진통일론만 포기했을 뿐 민중적인 통일열망을 수렴하지 못하고 통일에 대한 실천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61년 1월에 발표한 민주당의 남북통일정책에 관한 성명은 민주당의 통일노선이 본질적으로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다를 바 없는 반공통일정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성명에서는 중립화통일론에 대해서 공산적화전략을 망각한 의견, 남북협상에 대하여 악랄한 공산분자와의 협상에 앞서 정국안정, 정당·단체간의 협의 필요성, 남북인사교류로서 소련과 중공의 지령하에 움직이는 북한괴뢰집단 설득불가능, 남북교류는 공산당원의 월남을 가능케하고 공산간첩확장세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 남북서신왕래는 북한에 서신왕래의 자유가 없

는 만큼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결론적으로 각계의전수령을 위한 통일촉진기구의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중의 통일논의를 수렴하기는커녕 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반공법안' '대모규제법' 등의 2대악법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결국 4.19이후 청년학생과 민중들의 통일운동은 당시 집권세력에 의해 수용되지 못한 채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좌절되고 만다.

미국의 사주와 지원을 받아 총칼로써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일당은 '중앙정보부 설치에 관한 법률' '반공법' 등을 제정하여 원천적으로 민중들의 통일운동을 불법화하였다.

4.19직후 통일운동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민중들이 조직적, 대중적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4.19직후 통일운동이 파쇼 통치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조건-이것은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을 수립하지 못한 주체적조건과 같은 의미이다-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파쇼 통치세력은 그들을 지원조종하는 미국을 몰아냄으로써만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미국을 축출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또다른 대리자가 출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4.19는 반미혁명으로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군부를 부추켜 혁명의 성과를 찬탈해가는 것을 예견하지도 막

지도 못했던 것이다.

또한 주체적인 역량에 있어서는 반미민족자주의식의 취약과 함께 전체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해나갈 지도부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의 과제로 제기하였다.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는 민주화, 조국통일, 민족자주에 대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운동을 추진시켰더라면 통일운동에서도 일정한 결실을 맺고 4.19혁명의 성과도 쉽게 찬탈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5. 6월항쟁과 통일운동의 본격적 재출발

박정권 등장 이후 극심한 반공정책으로 대중적인 통일운동은 거의 봉쇄되었다. 60, 70년대 통일운동은 주로 비합법적인 지하활동이나 개인적 저항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전자의 경우는 통일혁명당과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이 대표적이다. 이들 조직은 전체운동을 지도해갈 전위조직을 지향하는 조직으로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기본강령으로 내걸고 지속적인 의식화·조직화 작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통일혁명당은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다(85년에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그러나, 이들 조직이 80년대 이전까지는 반파쇼민주투쟁을 선결적 과제로 제기하고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은 민주화 투쟁에 집중하였다. 그래서, 60, 70년대에 이들의 직

4.19혁명은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부의 수립과 자주화,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접적인 활동의 결과로 대중적인 통일운동이 전개되지는 못했다.

한편,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두개의 한국정책이 본격화된다. 1969년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은 냉전적 세계질서를 대화와 평화분위기로 전환할 것을 제창하면서, 분단국에 대해서는 평화의 이름아래 분단의 고착화노선을 강요한다. 국제적인 평화분위기는 닉슨의 중공방문, 미-중공, 일-중공수교로 구체화된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긴장완화가 대소전진기지로서 남한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에게는 여전히 통일된 한국이 아니라 식민지 군사기지인 분단된 한반도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노골적인 남북대화정책을 지향하고 현상유지노선-두개의 한국정책을 입안하여 분단영구화를 추진하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힘의 약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식민지 지배의 교활함, 악랄함을 잘 드러내준다.

미국의 두개의 한국정책은 남북UN 동시가입을 통한 분단의 국제적 합법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박정희의 6.23특별성명으로 구체화된다. 이 성명에서는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

는다"라고 천명하여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의사를 사실상 표명하고 공산권과의 문호개방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6.23선언은 두개의 한국정책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는데 머물렀다.아직도 남한이 대내적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을 승인할 조건을 마련치 못하였고 국제적으로도 공산권과의 교류를 실현할 처지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6.23선언은 독재정권의 유지, 안정화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7.4남북공동성명등 일련의 남북대화를 차단하고 민중의 고양되는 통일열기를 호도하는데 당면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두개의 한국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결행단계에 들어선 것은 단독올림픽이 강행되고 노정권이 등장한 이후이다.

박정권의 몰락과 '서울의 봄'은 사회변혁과 통일운동 활성화의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전두환 노태우일당의 쿠데타에 의해 민중의 민주정부수립의 열망은 좌절된다. 광주민중항쟁은 전두환 노태우일당에 의해 유혈참극으로 막을 내리지만 사회변혁에서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고 80년대를 관통하는 민중투쟁의 원동력이 되었다.

전두환정권하에서도 극심한 파쇼폭압으로 통일운동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통일운동이 대중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이 해결되어갔다.

먼저, 대미관계에서의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반미투쟁의 고양을 들 수 있다. 광주항쟁을 사주, 지원한 미국의 추악한 제국주의자로서의 모습이 폭로되고 민중생존을 파탄시키는 경제침략자로서 미국은 반미투쟁의 과녁이 되었던 것이다. 80년대 들어 반미무풍지대의 한반도가 반미열풍지대로 전변하여 미국대사관, 미문화원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게 되었고 광주의 미문화원은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반미의식과 투쟁의 고양은 자주적 원칙에 입각한 통일운동이 활성화될 주체적 조건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둘째, 6월항쟁을 통해 파쇼폭압을 완화하고 민주화투쟁의 부분적 성과를 쟁취한 것은 통일운동전선의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4.19직후도 그랬지만 민주화투쟁이 진전되면 통일운동도 가속화된다. 파쇼통치를 선결적 과제로 삼고 투쟁해온 광주항쟁이후 민주화운동은 6월항쟁으로 부분적인 결실을 맺고 통일운동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셋째, 대통령선거 패배의 뼈저린 교훈은 통일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6월항쟁이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로 귀결되지 못한 조건에서는 통일운동이 민주정부의 확실한 토대 위에서

낙관적으로 전개되기는 힘들었다. 오히려 대통령선거의 뼈저린 교훈 위에서 군부독재소생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 통일운동이 전개되었다. 대통령선거는 단결이 민족해방운동의 관건적 문제라는 점과 '자주없이 민주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겼다. 후자의 문제는 반공반북의식이 민중의 자주화 요구를 강력히 제약하는 조건에서 곧바로 민족대단결의식 고취를 위한 통일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선거 이후 원점으로 돌아간 민주정부수립의 과제와 통일운동이 함께 진행되었던 것이다.

넷째, 단독올림픽 강행을 통한 두개의 한국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노정권의 등장으로 단독올림픽강행은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성숙한 국민의 민주화역량은 공동올림픽 쟁취투쟁을 제기하고 추진할만큼 자라났고 또한 당면해서 요구되는 공동올림픽 쟁취를 중심으로한 통일운동을 통해서 역량이 더욱 장성강화될 수 있었다.

다섯째,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본격화된 세계적인 평화와 군축의 흐름은 통일운동을 전개하는데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였다.

위와같은 주 객관적인 조건속에서 88년초부터 청년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을 필두로 종교인, 지식인, 재야사회단체의 통일논의와 자주적 교류운동이 공동올림픽 쟁취투쟁과 결합하여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6월항쟁을 통해 파쇼폭압을 완화하고 민주화투쟁의 부분적 성과를 쟁취한 것은 통일운동전선의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위한 사회단체협의회'(조·통·협)가 결성되었고 이러한 조직적 성과는 전민련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88년의 각계층의 통일운동은 당면한 최대의 과제였던 공동올림픽실현을 이룩하지 못하고 각계각층의 고유한 요구를 실현하는데도 실패했다. 하지만 미-노정권의 반통일성을 폭로하며 두개의 한국조작과 독재정권안정화음모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고 7.7선언과 같은 부분적 양보조치를 획득한 것은 커다란 성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88년 통일운동의 의의는 통일운동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으로 정착시킨 점과 사회변혁운동과의 관련성하에서 총체적이고 변혁운동의 일환으로서 전개했다는 점일 것이다. 한마디로 88년부터 본격화된 통일운동은 해방직후와 같이 변혁운동이 좌절되어가는 과정에서의 패배적 운동이 아니고 4.19혁명 후의 통일운동처럼 중도반단할 성질의 운동도 아닌 것이다. 민중들의 자주화, 민주화투쟁이 고양되는 가운데 사회변혁운동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변혁운동의 총체성을 담보해내는 승리적 전망하에서 전개된 운동이 88년의 통

일운동이었다.

6. 평양축전참가와 90년대 통일운동의 진로

80년대는 광주항쟁의 피의 교훈에서 출발하여 자주화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민주화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면서 통일운동의 본격적 전개를 선포한 투쟁의 10년이였다. 그러나, 80년대는 주체적 변혁역량을 부단히 강화시키고 하루도 투쟁을 멈춘 날이 없었지만 변혁운동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80년대를 마감하는 89년의 통일운동은 일련의 방북사건으로 특징지워진다. 문익환목사, 임수경양, 서경원의원 등은 통일운동의 선각자로서 조국통일운동의 과제와 이정표를 뚜렷이 제시하였다. 지금은 이들이 간첩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철없는 학생으로 매도당하지만 이들이 뿌린 통일의 씨앗은 통일의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마침내 결실을 맺고 말 것이다.

특히, 임수경 전대협 대표의 평양축전참가는 개인적 차원의 애국적 결단을 넘어서 조직적인 통일운동의 성과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정부당국이 거부하는 가운데 공공연히 월북(?)을 공언하면서 평양행을 실현한 것은 임수경대표가 사상 최초의 것이다. 이러한 방북이 일부 물지각한 극우인사의 비난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88년 이후 전개된 대중적인 통일운동의 성과인 것이다.

전대협의 평양축전참가의 성과는

① 노정권의 통일정책(7.7선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반통일적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내주었다.

② 통일의 장애물이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와 국가보안법임을 뚜렷이 부각시켰다.

③ 미-노정권의 두개의 한국조작 정책행동을 깨부수고 내외에 '조국이 하나다'라는 민족의 통일외지를 세계만방에 시위하였다.

④ 평양축전참가는 통일운동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⑤ 임수경 대표의 주체적인 평양축전참가활동의 전과정은 통일문제에 관한 올바른 입장을 세우는 초석이 되었다.

⑥ 임수경 대표의 평양축전참가는 국내의 통일운동과 해외동포의 통일운동과의 결합을 강화시켰다.

⑦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옹호하는 세계 각 나라들과 국제적인 친선과 연대를 강화시켰다.

⑧ 통일조국의 주인이요 새세대가 될 남과 북의 청년학생이 분단의 고

통을 후세에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남북청년학생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평양참가의 최대의 성과였다(이상의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9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평양축전참가보고 및 악평-전대협, 참고).

앞에서 제시한 평가는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실익'이라기 보다 앞으로 투쟁의지를 다지게 한 '전망'위주의 평가내용이다.

90년대의 통일운동은 80년대 통일운동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80년대 통일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는 측면은 평양축전참가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90년대에 예견되는 정세와 관련하여 특별히 힘을 쏟아야 할 부분과 80년대 통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90년대에는 미-노정권이 유엔가입 추진을 통한 두개의 한국의 국제적 합법화를 실제로 결행할 것이 예견된다. 최근에 진행된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과 동구권의 일부국가와의 수교는 그러한 가능성과 현실성을 높여주고 있다.

우리민중은 남한과 수교하는 공산국가를 타할 수만은 없다. 이것이 북한과 남한민중이 처한 조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른 점이기도 하다(남한민중은 외교적 노력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노정권의 분단 영구화음모를 폭로하고 통일된 국가로서의 UN가입이라는 대안을 적극적

90년대의 통일운동은 80년대 통일운동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으로 제시하고 우리민족의 통일열원과 역량을 세계만방에 시위하는 것만이 공산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각나라들이 가까운 시일내에 우리민족의 통일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갖게 하고, 공산국가들을 통일된 국가의 UN가입을 지지하고 그때까지 두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UN동시가입을 반대하게 만들 수 있다. 요컨대, 두개의 한국분쇄투쟁이 외국에게 지원을 구걸하는 외교주의적, 사대주의적 투쟁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민족의 주체적인 통일의지와 능력을 통해 세계각국을 민중의 편으로 되게 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미군철수,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90년대는 민중의 민족자주역량의 성숙과 미-청와대정권의 식민지 지배체제해편의 필요성에 의해 위의 문제들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80년대는 북한에 모든 책임을 물리는 수법과 "한국민이 원하는 한..."이라는 궤변으로 문제를 회피해왔지만 90년대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문제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문제해결의 시기, 방향, 폭과 수준은 민중들의 투쟁정도에 의해 좌우되고 이에 따라 장기

간 평화정착이라는 미명하에 분단이 지속되는가, 실제적인 평화정착을 통해 조국통일의 길이 활짝 열리는가가 결판날 것이다. 정전협정폐기, 남북불가침선언채택, 군비축소, 미군철수 등의 문제에서 일정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이것이 민중들의 투쟁에 의한 완전한 승리가 아닐 때에는 6.29선언과 같이 또다른 기만적 결과인 분단고착화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방안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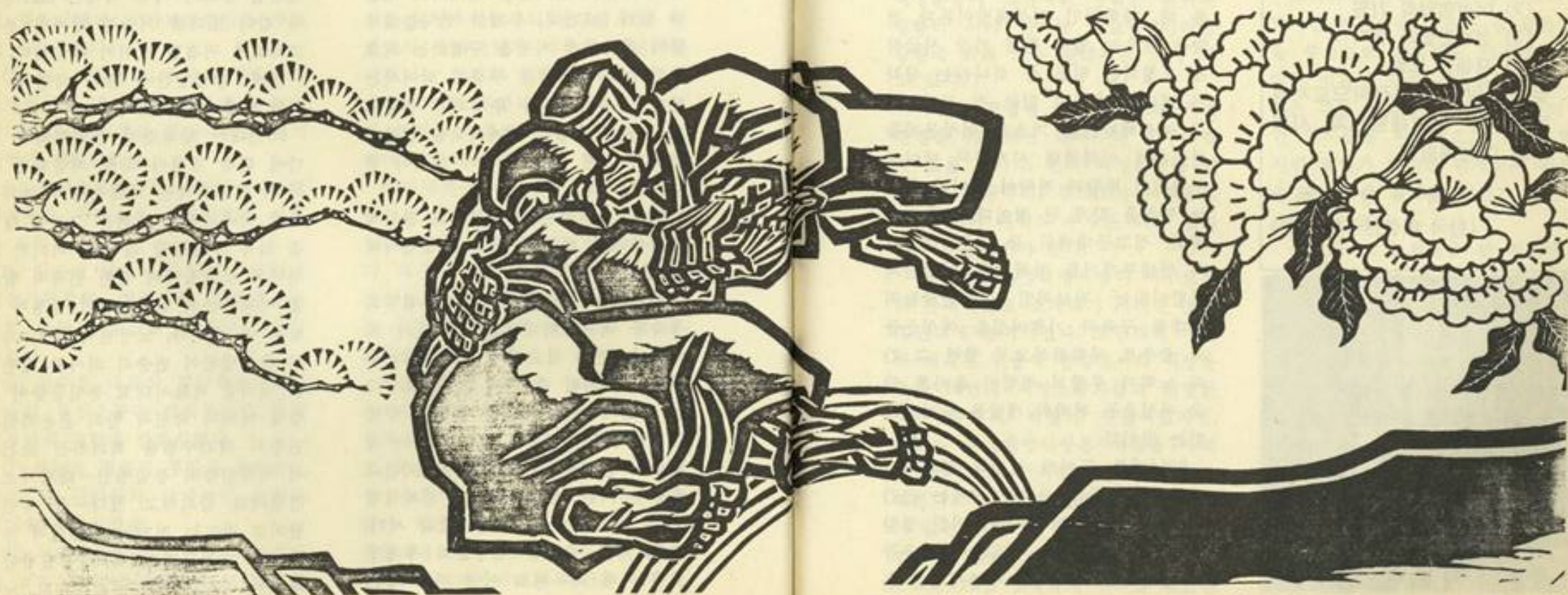
90년대는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안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무조건적인 대결정책이 불가능해진 국내외적인 조건은 그러한 경향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통일방안에 관한 민족적 합의를 이룩하는데 남한민중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노정권이 마치 자신의 통일방안이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통일운동이 고앙될 때마다 국민적 합의 운운하면서 민중의 의견수렴을 회피하는 조건에서 애국민중의 통일방안-대체적으로 연방제로 합의하고 있다-을 국민적 합의로 만드는 것만이 반통일적 통일방안을 대체하고 민족적 통일방안을 내오는 지름길이다. 마지막으로, 노동

자, 농민 등 기층민중이 통일운동의 전면으로 나서 민족대통일전선의 확고한 구심력을 형성해야 한다.

사회변혁운동과 마찬가지로 통일운동의 주력도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이다. 이들은 분단의 최대 피해자이고 이를 극복할 압도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 80년대 통일운동에 노동자, 농민이 전면으로 나서지 못한 것은 역량의 미성숙에 기인한 한계였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투쟁과 초보적인 정치투쟁을 통해 획득한 의식적 각성과 조직적 성과는 90년대 통일운동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주고 있다. 90년 1월 결성된 전노협의 건설은 노동자의 통일운동에 밝은 전망을 예고해 준다. 공장에서 통일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강단에서 통일지향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농촌에서 통일대화가 오고갈때 반통일세력의 궤변과 작태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또한 노동자,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강력한 통일전선이 형성되어 통일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면 4.19적 후와 같은 중도반단없이 통일운동을 승리로 결말지을 수 있을 것이다. **원래**



맑스주의 여성해방론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간의 쟁점 검토

1. 들어가며
2.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탄생의 배경
3. 맑스주의 여성해방론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간의 쟁점
 - (1) 가부장제
 - (2) 여성억압의 기원
 - (3) 성별분업의 유지
 - (4) 재생산 노동
4. 맺는 말 — 운동전략으로서의 맑스주의 여성해방론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박 영 희
(한국 여성연구회 회원)



1. 들어가며

미군정기 이래 그 맥이 끊겼던 사회변혁운동으로서 한국 여성운동이 부활된 지 10년이 채 못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 제기된 진보적인 여성운동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통해 볼 때, 과학적인 여성해방이론과 전략을 세우는 일이 현재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일들 중 하나라는 생각이 널리 공유되고 있는 것 같다. 서구 여성해방론을 기초로 여성문제를 단순하게 이해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생존권대책위, 성고문대책위 등 사건 대응식의 연대투쟁기를 거쳐,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는 진보적인 여성단체들의 연대를 구축과 기층여성을 여성운동의 중추로 세력화하고자 했던 그 간의 노력과 투쟁의 경험이 올바른 한국 여성운동 전략의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를 돌이켜 보건대 한국여성운동이 이 만큼 성장한 데에는 근간의 과학적 인식의 증진이 미친 영향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여성운동의 현단계는 조직적인 수준에서나 운

동의 방향의 면에 있어서나 목적의식적인 변혁운동으로서 제 꼴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어렵다.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및 개정 등 여성의 법적 지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노동운동 탄압, 반민중세력들의 정치적인 대연합 등으로 시작된 대내적인 탄압 국면이 여성운동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명실상부한 정치적 구심체를 건설하고 여성을 세력화해야 할 때 이다. 여성운동에 있어서의 정확한 원칙과 방향이 서야 한다는 필요는 이러한 상황에 의해 더욱 절대적인 것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시작은 부르조아적 관점을 배격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여성운동에 있어서의 개량주의, 부르조아 이데올로기, 사이비 과학의 추방은 더욱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여성해방사상이 서구로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에 들어서였다. 80년대에 이르러 재개된 민중적 관점에서의 여성운동은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치열한 생존권투쟁의 직접적 산물이었지만, 서구의 여성해방사상은 여성을 사회변혁세력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렇다 할 만한 이론적 지침이 없던 상황에서 서구 여성해방론이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그중 가장 강력하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른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었다. 이는 맑시즘의 사적 유물론을 방법론으로 계승하되 그것이 여성억압의 문제에 설명력이 약하다고 비판하면서 거기에 여성해방사상(Feminism)을 접목시킨 것으로서 스스로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Socialist Feminism)이라 불렀다. 80년대 초 운동의 과학화를 위한 논쟁이 채 일반화되기 전, 맑시즘에 대한 이해가 불철저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상당히 설득력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80년대 하반기에 이르러 진보적인 여성운동 이론가 및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 비판은 주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과연 맑시즘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킨 것인가 아니면 맑시즘의 외피를 쓴 판넌론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으로 모아졌다.

여기에 그 논의들을 한 자리에 모아본다. 따라서 본고는 주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 대한 비판에 대부분이 할애될 것이다. 이는 맑시즘 자체의 여성해방론이 주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 대한 비판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후자에 대한 비판의 소개가 곧 전자의 입장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맑스주의 여성해방론의 자세한 소개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또한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지금까지

지의 논의를 모으고 소개하는 일이 그것들의 산술적인 종합에도 미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면서 단지 원저자들의 논지에 대한 왜곡이 없기를 바란다.

2.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탄생의 배경

미국의 사회주의 여성해방론(Socialist Feminism)은 60년대 급진주의 여성해방론(Radical Feminism)과 맑시즘의 비판을 통해서 탄생하였다. 급진주의에 대한 비판의 주된 쏠점은 그것의 물역사적 관점에 맞추어진 것이었고 급진주의가 제기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계승되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급진주의의 탄생은 한편은 발전적인 측면을, 한편은 퇴보의 측면을 함께 함의하는 것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이후 제기된 여성의 지위에 대한 문제의식은 19세기말 페권을 전 부르조아의 권리 의식에 기반한 이른바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이었다. 이들이 주도한 참정권운동의 승리 이후 부르조아 여성해방론은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여성의 지위에 만족하면서 침묵을 지켰다. 1963년 베티 프리단이 『여성의 신비(The Feminine Mystique)』를 출간한 것을 계기로 동등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차단당한 교육받은 여성들의 불만이 표현

되기 시작했고 이들은 1966년 전국여성기구(NOW: 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라는 조직을 만들어 자유주의적 여권 투쟁을 제기한다.

부르조아 여성해방론은 철학적 기반을 자유주의에, 전략은 개량주의에 둔 것이었다.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은 처음에는 이러한 부르조아 여성해방론의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여성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급진주의의 주장은 부르조아 여성해방론보다는 한발 진보적인 면을 가진 것이었다.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의 '급진적인' 측면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의 반영이기도 하다. 당시 신좌파(New Left)를 중심으로 한 민권운동에 참가했던 여성들이 운동 조직 내에서도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비판한 데서 연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성차별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여성들만의 분리된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을 찾은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이 투쟁의 대상으로 남성을 설정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들은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를 사회 전반에 만연한 지배 중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보았다. 인종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등은 남성우월주의가 확대된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요컨대 모든 남성은 남성우월주의로

미국의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60년대 급진주의 여성해방론과 맑시즘의 비판을 통해서 탄생하였다

부터 이익을 얻으며 모든 남성은 여성을 지배해 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강간 방지 센터, 의식화 소집단, 여성문제 상담소 설치 등을 하는가 하면 한편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가구와 공동체, 레스비안 관계, 여성문화의 확산 등을 추구했다. 196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들의 주요기반이 되었던 것은 여성 센터, 소규모 사업, 여성 문화 행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공동체(women's communities)라는 조직이었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그들의 표어는 일견 정치투쟁에 그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지만 실상 그들의 정치 프로그램이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어서 여성 대중이 직면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또한 그들의 분리주의는 운동이 지나치게 내부지향적인 것이 되도록 했고 결국 자기만족적인 것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정치·사회적인 영역에서 여성들이 부딪치고 있는 전반적인 현실에 대한 투쟁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급진주의의 이러한 오류는 여성 억압 현실을 남성/여성이라는 대립 구도 속에서 파악한 데서 기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이 대안으로 제

시한 여성문화(womanculture)라는 것 또한 '남성적인 것=억압적인 것=폐기되어야 할 것'이라는 도식 속에 자리한 것이었다. 그들은 남성문화의 특질로서 폭력, 지배, 죽음을 들었다.¹⁾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의 관점에서 남성은 설명될 수 없는 존재이다. 남성들이 여성을 지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남성이기 때문에"라는 것이다. 여성이 억압을 당하는 것 또한 계급적 관점의 대개 없이 곧장 일반화된다. 여성 억압은 여성의 인종, 민족, 계급에 상관없이 여성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 점이야말로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바라보게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위계 질서를 남성문화의 특질이라고 보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급진주의 여성운동의 조직은 느슨했고 단순했다. 또한 반(反)이론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운동으로서의 발전에 체질적인 장애를 안게 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 의해 단순한 행동주의 혹은 '이론없는 실천'으로 비판되었다. 급진주의는 궁극적으로 자기만족적인 운동 방식에 안주하려는 백인 부르조아 여성들의 계급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부르조아 세계관과 자본주의 양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주의해야 할 사실은 여성운동이 기층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한, 명목적인 전략과 실천으로 대표될 부르조아 여성해방론은 언제나 다시 살아남을 것이며 지금의 여성운동 속에도 알게 모르게 숨어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이 이론적으로 취약하고 계급구조와 연관없이 여성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며 물역사적인 관점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급진주의의 가부장제라는 개념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그들은 후기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이 가부장제를 여성지배의 총체적 체계로 인식한 것을 받아들여 이론적으로 정교화해갔다. 이 작업은 맑스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진행되었다. 즉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을 사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맑시즘을 여성해방론의 관점에서 계승·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맑스주의를 비판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성과 무관한(sex-blind) 이론으로서 맑스주의의 설명으로는 여성 억압을 포착해 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맑스주의는 인간을 계급에 따라 구분할 뿐 성에 따른 구분은 하고 있지 않아 예를 들어 노동자의 문제가 짚어질 뿐 '여성' 노동자의 특수한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남성 중심적인 이

론이라고 비판되었다.

그들이 맑스주의에 대해 이론적 회의를 품게 된 데에는 러시아에서의 스탈린의 반동이 한 계기로 작용했다.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스탈린 시대의 여성 정책은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에게 여성 억압의 해결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여성 억압이 맑스주의가 말하는 대로 사유재산제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유재산제의 소멸에 따라 소멸될 것이라는 견해를 버렸다. 그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계속 존재하는 여성 억압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급진주의의 가부장제라는 개념을 받아들였고 성과 계급이라는 이분된 범주를 가지고 여성 현실을 설명하려 했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한편으로는 남성은 적이 아니며, 여성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억압 현실은 자본주의적 사회·경제의 맥락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맑스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여성 억압을 설명해 줄 이론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 중에는 성별관계와 계급관계의 상호관계를 개념화하는 입장에 따라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나누어질 수 있지만 일원론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이원론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이원론(이중체계론)이고 한국 여성학계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을 사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맑시즘을 여성해방론의 관점에서 계승·발전시켰다는 것이다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로 이중체계론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3. 맑스주의 여성해방론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간의 쟁점

(1) 가부장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가부장제라는 개념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철저한 이론적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자에 따라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이 동의하는 가부장제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다.

1. 가부장제는 성에 기반한 억압관계의 체계로서 남성지배/여성종속이라는 사회관계의 총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2. 가부장제는 현존하는 모든 사회와 생산양식 속에 존재해왔다.
3. 가부장제는 남성에게 권력과 통제력이 부여된 위계 체계이며 가부장

적 권력 관계는 성별 분업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재생산된다.

4. 여성들을 지배한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가부장제는 계급을 초월하여 남성들간의 연대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의해 유지된다. 이에 여성들은 그들의 계급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억압받는 자로서 경험과 상황이 동일하다.

5. 가부장제는 생산양식과 분리된 체계로 이해된다. 그러나 생산양식과의 관계는 하나의 상호의존적인 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고 전적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체계라는 견해도 있다.

6. 가부장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지배적으로 유지된다. 확립적인 계급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도 가부장제 체계의 본질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²⁾

맑스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가부장제의 이해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전제 위에 서 있다. 첫째는 남녀간의 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회관계가 생산양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맑스주의의 견해를 부정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회는 통합된 전체로서가 아니라 각각 독립적인 기원과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는 가부장제와 생산양식으로 구

성되어 있다고 보는 점이다. 요컨대 경제관계는 다양한 관계 체계 중 하나일 뿐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서구에서 강단 맑스주의 지식인들 사이에 번져 나갔던 서구 맑스주의가 있었다. 특히 생산이 “역사에서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요소”라고 본 맑스주의의 입장을 “경제는 결정적이지만 최종심급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처음 계기부터 끝까지 ‘최종심급’의 유일한 시기는 결코 도래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해석한 알튀세(L. Althusser)로부터 철학적 기반을 제공받은 것이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에게 있어 가부장제와 생산양식 중 어느 것도 사회전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이 두 체계는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가부장제의 물질 기초는 무엇인가? 하이디 하트만(Heidi Hartmann)은 그것을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남성의 통제라고 한다. 또 가부장제는 여성의 출산이나 정조에 대한 통제라는 개념도 포함시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이것은 보다 급진주의 쪽에 가까운 것인데 그것과 차이가 있다면 가부장제를 성통제와 경제적 종속의 결합물로 본다는 점이다. 하트만의 주장을 보자면, 엄밀한 의미에서 노동력이 상품화된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이란 노동자의 가치 창출 능력이다. 따라서 주부의 가사 활동은 노동이긴 하지만 (상품화된) 노동력을 소모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하트만의 ‘노동력’이라는 용어는 이 점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되고 있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가부장제를 설명하기 위해 맑스 정치·경제학의 기본적인 범주들의 개념을 재정의하고자 한다. 우선 그들은 노동이 인간의 물질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수단을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에 반대한다. 인간의 생존에는 음식이나 옷가지 등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성적 만족, 정서적인 보살핌 등도 필요하며, 따라서 이러한 활동 또한 노동(재생산노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만족을 위해서 인간이 노동을 해야 한다면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한 체계 또한 생산 체계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 이 생산 체계가 궁극적으로 맑스주의에서의 ‘경제’라는 것에 의해 규정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성과 자녀 생산이 상부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성과 인간 생산은 부분적으로는 경제에 의해 결정되고 부분적으로는 그것을 결정하는, 사회의 경제적 토대의 일부로 본다.

그들은 맑스주의에서 말하는 생산양식의 개념 또한 사물의 생산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인간 생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가부장제를 생산 양식과는 별개로 형성되었고 발전 역시 생산양식에 의해 규정받지 않는 독립된 체계로 봄으로써 이원론이라는 관념론의 세계로 뛰어들어 버릴 것이다

되어야 한다고 한다. 생산양식의 개념은 생산관계를 포함하고 있고 생산관계는 소유관계이며 사회관계, 즉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단지 맑스주의가 강조하고자 했던 바는 생산물 생산이 한 사회를 기본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이었다. 문화, 이데올로기 및 정치란 한 사회의 생산력 수준에 의존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들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산력의 수준으로부터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질라 아이젠슈타인(Zhila Eisenstein)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상호 의존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가부장제는 재생산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정치체계이고 자본주의는 계급적 생산관계에 기반한 경제 체계라고 파악한다. 정치를 계급관계의 표현이라고 보는 맑스주의의 개념과는 달리 아이젠슈타인은 정치를 물질적 기초로부터 분리시켰을 뿐 아니라 정치체제를 성적 위계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가부장제 개념을 정치체계 전반을 포함하도록 넓혀 놓았다.

이처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가부장제를 생산양식과는 별개로 형성되었고 발전 역시 생산양식에 의해

규정받지 않는 독립된 체계로 봄으로써 이원론이라는 관념론의 세계로 뛰어들어 버린 것이다.

(2) 여성 억압의 기원

맑스주의에 있어 여성 억압의 시초는 모권의 전복에 있다.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사유재산의 발생이 부계 상속의 계기가 되면서 모권이 전복되기에 이르렀음을 설명하였다. 가족사육으로 창출된 잉여가 개별 가족의 소유로 되고 이 과정이 남성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남성이 사유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최초의 노동분업인 남녀간의 분업이 있었다. 양육을 위해 남녀간의 자연스런 분업이 생겨났고 이 가족을 돌보는 일은 여성의 일이 되었던 것이다.

주의해야 할 사실은 맑스주의에 있어 자연스런 성별 노동분업 그 자체는 여성 억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러한 분업을 초래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는 존재하는 것이며 차별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여성억압은 생물학적 차이가 사회적 차별로 전환된 과정에서 빚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급발

생 이후 사회적 잉여가 사적으로 전유되면서 이 성별 분업이 전체적인 착취관계 속에 포괄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착취관계 속에서 성별 분업은 고유한 논리로 발전하여 제도화된 사회관계로 굳어지고 이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비합리적이고 억압적인 성별 분업의 제 측면들을 결과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사유재산, 계급 발생, 국가의 탄생으로 설명되는 시기부터 여성은 억압받아 왔으며, 따라서 이 억압은 사유재산의 폐지에 의해서 종식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남녀간의 기능 분화가 생물학적 차이로부터 필연적이고도 자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설명이 남녀간의 분업이 미래 사회에서도 추구되어야 하는 이상이라는 주장은 아니다. 출산과 수유 등이 여성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되었던 것은 당시의 생산력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인간들이 재생산 과정에 아무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모든 인간 자원을 집중해야만 했었던 데에 원인이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초의 성별 분업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늘리기 위한 자발적인 발전이며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초의 성별분업은 여성을 지배하기 위한 남성의 고안물이 아니라 자연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관계의 역전은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에게 오면 최초의 성별 분업 자체가 여성 억압으로 설명된다. 그들은 모성 역할이 생물학적 필연성 보다는 사회적 관계속에서 파생한 것, 즉 인간(남성)이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본다. 가부장제의 물적 기초인 이 성별 분업이 계급 발생 이전의 일인 만큼 가부장제는 계급 발생 이전에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기원을 달리 할 뿐 아니라 가부장제는 인류 최초의 지배 형태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성차별이 계급 사회 이전에 있었다는 주장을 통해 계급 사회 소멸 이후에도 성차별은 여전할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가부장제가 기원부터 발전과정까지 독자적이고 소멸 자체도 독립적인 과정을 겪는다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논리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가부장제 소멸에 대한 이들의 주장의 저변에는 현재의 사회주의 사회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불만족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사회주의 혁명 이후 공장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와 똑같이 평등해지리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보인다. 사회주의 혁명은 더 높은 발전 단계인 공산주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과정이다. 소련의 불세비키는 혁명직후 이혼법과 가족법의 제정등 여성의 법적 평등의 보장 뿐 아니라 모스크바 여성 위원회를 불세비키당 중앙위원회 여성부(제노텔)로 승격시켜 여성 해방

최초의 성별분업은 여성을 지배하기 위한 남성의 고안물이 아니라 자연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반영한다. 이 관계의 역전은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성 지위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사회·경제적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국내외의 반(反)혁명 기도와 피폐해진 환경은 당의 여성 정책이 여성 차별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초기에 있어서 효율성의 측면을 고려한 여성 정책들이 보수성을 띠는 것은 사회·경제적 한계로 평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스탈린의 권력체제 하에서의 모성을 강조한 보수적인 여성정책들은 오류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한계에서 오류에서건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의 눈에 불만족스럽게 비친 사회주의 여성들의 지위가 사회주의 혁명이 여성 해방으로 가는 길임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것은 본질과 현상간의 문제인 것이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즐기치게 이 둘 사이를 혼동하고 있다.

(3) 성별 분업의 유지

여성 억압의 기원에서 설명했듯이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에게 있어 성별 분업은 여성 억압의 가장 중요한 기제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본주

의 사회에서 그것이 어떻게 유지된다고 보는가?

하이드 하트만은 성별 직업 분리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존속시켜 주는 주요 메카니즘으로 설명한다.⁴⁾ 그는 맑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이 직업 분리 현상의 책임을 자본가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것에 있어서의 남성 노동자들의 역할과 가부장제적 사회관계의 영향을 무시했다고 비판한다. 성별 직업 분리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게 되고, 저임금은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위해 결혼하게 만들며, 결혼한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아야만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남성들은 고임금과 가사 노동의 서비스를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요컨대 하트만은 자본주의 초기 노동시장에서 미숙련 노동자를 축출해 내는 데 숙련 남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많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가족임금제는 여성을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남성 자본가와 남성 노동자의 타협의 산물이며, 미국의 인쇄 노조가 남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력하

게 지지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남녀 노동자간의 갈등은 성에 기초한 억압과 피억압관계의 표현이 아니라 자본주의 노동과정의 탈속련화하면서 미속련 노동이 속련 노동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속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해고의 불안과 임금 하락의 위협의 책임을 미속련이 대부분이었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나타난 것이었다. 즉 이는 성, 인종, 연령 등 모든 차이를 차별화하여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빚어진 속련 노동자와 미속련 노동자간의 갈등이었다는 것이 맑스주의자들의 견해이다.

맑스주의자들은 가족임금제가 노동자계급의 특징 계층에만 허용된 혜택이었다는 점을 들어 하트만을 반박한다. 그들은 비이주민인 백인 집단이 노동자화 하면서 생산노동과 가정이 분리되는데 가족임금은 백인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층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한다.⁵⁾ 더구나 미국 여성의 경우를 볼 때 소수 민족 여성의 경우엔 가족임금이란 것이 가족 전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이 못 되었기 때문에 가족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보태야만 했다. 하트만의 논의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가족임금이 전 미국여성을 가정에서 머물도록 한 억압 기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노동영역이 사회와 가정으로 분리된 것은 앞서 말한 자본의 분리 정책의 산물

이지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억압의 산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남성 노동자들이 물론 성차별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이 의식을 힘으로 표출할 수 있을 만큼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에서 통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산업예비군으로서 여성들이 생산 노동 현장에 진출하게 되는 것은 자본이 언제 그들을 필요로 하는가에 달린 것인지 남성 노동자들이 그것을 원하고 허용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피억압/억압이라는 대립 구도로 이해하는 급진주의의 관점을 철저히 극복해 내지 못함으로써 남성 노동자가 실제로 누려보지도 못했던 권력을 그들이 갖고 있는 양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4) 재생산 노동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주부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재생산 노동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인간 생산(임신, 출산, 양육), 노동력 재생산 노동(요리, 세탁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재생산 노동(모성 역할)에 여성들을 한정시키는 권력 관계를 재생산관계라고 한다. 아이젠슈타인에 따르면 이 권력 관계는 여성의 생물학적인 출산 기능에 대한 사회정치적인 통제에 근거해 있

맑스주의자들은 남녀의 노동영역이 사회와 가정으로 분리된 것은 자본의 분리정책의 산물이자 남성노동자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억압의 산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회가 다음 세대의 재생산에 관심을 갖는 한 이것은 필수적인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양육이 왜 출산에 덧붙여 항상 언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그의 재생산 관계 개념은 사적 유물론의 기초 위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재생산 관계가 왜 생산 양식마다 다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재생산 관계가 생산 관계와 변증법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관계란 물질 소유관계로서 생산력과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인데 그의 재생산 관계는 물질 생산과 필연적 연결없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실상 변증법적 통일을 위한 대립물이 없다. 이는 그가 재생산 관계의 동력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이다. 변화와 발전의 개념이 없는 변증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없다.

엥겔스는 그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의 1884년 제1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역사에서 결정적 계기는 궁극적으로 직접적 생활의 생산 및 재생산이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그 하나는 생존수단, 즉 의

식주의 대상과 이에 필요한 도구의 생산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그 자체의 생산, 즉 종의 번식이다”⁶⁾

위의 귀절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이 재생산노동이라는 범주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생산노동에 상응하는 규정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사적 유물론에 기초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목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엥겔스가 자신들이 세운 이중체계의 원조가 되는 셈이다. 거기에 덧붙여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엥겔스가 그의 이런 초기의 통찰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아쉬워하면서 엥겔스조차 놓쳐버린 초기의 통찰을 자신들이 계승하여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

엥겔스가 인간 재생산과 생계수단 생산이 서로 구별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는 점에는 맑스주의자들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들은 엥겔스가 이 두 가지 과정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으며 또한 ‘분리된’ 채로 이 두 영역이 사회를 조직한다고 결론내리지 않았음을 밝힌다. 또한 맑스주의자들은 사회 조직이 노동의 발전 단계와 가족의 발전단계에 의해 규정된다는 엥겔스의 말이 이 두가지가 전

제 사회 조직과 역사 발전과정에서 똑같이 결정적 요소라는 의미는 아니며 더우기 가족 발달 단계가 노동의 발전 단계로부터 독립적인 것임을 뜻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인용된 문구가 모호하게 쓰여졌음을 인정하지만 역사란 인간 재생산이라는 생물학적 상수항이, 질적으로 서로 다른 발전 단계를 통해 변화되며 또한 자체의 역사가 연구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관계 내에 포괄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⁷⁾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여성의 재생산 노동이 사용가치를 생산하므로 생산노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학은 눈에 보이는 생산 활동을 통해서 상품으로 결과되는 노동만을 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시장에서 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는 것만이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이 공/사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사적 영역에서의 재생산 노동은 보이지 않게 되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은 가사 노동에 대한 임금 지불을 주장하거나 가사 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가사 노동에 대한 임금 지불 요구는 여성 해방의 전략으로서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궁극적인 한계는 있으나 생활

자료를 상품화해 가는 그 속성에 따라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가사 노동이 사회화(상품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가사 노동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사 노동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기가 곤란하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가사노동이 여성을 가정의 영역에 묶어둠으로서 여성의 생애 전반의 경험을 규정한다는 사실이다.

맑스주의자들은 재생산노동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 정치경제학에 재생산노동이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의상 가사노동이라는 표현을 빌게 된다.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여성의 영역이 가정으로 고착되었으며, 여성들이 그 안에서 수행하는 가사노동으로 노동자의 재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임금을 적게 줄 수 있게 되므로) 여성의 가사노동이 사회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노동력 재생산에는 불충분하므로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산업예비군으로 존재하게 되며 이것은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여성을 가사노동 전담자로 묶어 둠으로써 자본은 이중적인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여성이 가사노동 전담자라는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임금의 근거가 된다. 그 만큼의 초과이윤이 자본가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자본가는 이 관계를 유

맑스주의자들은 여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사노동이 사회화되어야 하며 여성들은 사회적 노동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지하기 위해 남녀간의 노동시장을 분할하고, 직무를 분리시키고, 같은 일을 해도 여성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는 등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자 한다.

여성들은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우므로 경제적인 이해 계산으로 결혼하게 되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또 다시 종속되고, 그나마 기층 여성의 경우에는 생계를 위해 사회적 노동에 다시 재투입되므로 이중고를 겪게 된다.

따라서 맑스주의자들은 여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사 노동이 사회화되어야 하며 여성들은 사회적 노동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4. 맺는 말 — 운동 전략으로서의 맑스주의 여성해방론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서 투쟁의 목표는 가부장제와 성별 분업의 타파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과 가부장제에 대한 투쟁이 병렬적으로 상정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독

립된 정치운동이라고 한다. 그들은 사회주의 혁명이 여성해방에 충분 조건은 아니나 필요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가 사회주의 혁명이 여성 해방 혁명에 선행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또 양 혁명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답이 없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가부장제의 타도가 자본주의 타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모든 남성들은 기존의 가부장제를 고수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남성들이 가부장제 타파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반동적으로 그 운동에 저항하려 들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의 범계급적인 자율적 여성 운동이라는 해방 전략이 세워지게 된다. 그 자율성이라는 것은 남성, 노동자 계급 운동,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전위 조직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이다.

그들은 인간 존재 규정력이 계급에서 뿐만 아니라 성에서도 주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범계급적인 여성 운동을 상정한다. 그러나 맑스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계급은 성보다 근본적인

규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같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억압의 경험은 동일할 수가 없다. 성적 억압의 경험이 동일하다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하더라도 계급적 이해가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라는 게 맑스주의자들의 입장이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의 범계급적 여성 운동이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계급과 성을 동일한 수준에 놓고 본 것이 아니라 성을 더 궁극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맑스주의자들의 여성들이 사회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인간 해방의 문제를 생산 노동에만 연결시키는 단순하고도 경제주의적인 물신화 경향이라고 비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스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여성의 경제적인 독립이 여성 해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 노동에의 참여는 여성의 의식을 변화시켜 주체적인 인간으로 서게 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그들은 믿는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의 이와 같은 비판은 여성 억압이 근본적으로 경제관계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들의 관점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들은 선진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노동에 대량 투입되었으나 어느 경우에도 해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여성해방은 사회 노동에의 참여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가사노동 종사자로 여성이 정체되어 버리는 것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또한 노동 시장에서 차별에는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막연해진다. 그저 성별 노동 분업의 폐지라는 구호만 여전하다. 구체성을 상실한 운동 전략이라는 것은 부르조아 세계관의 산물이다. 해방이 결과적으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관념론만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셈이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범계급적 자율적인 여성 해방 전략이라는 것은 그들의 반레닌주의적·반노동자 계급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남성이 적이므로 노동자계급 남성 또한 적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 투쟁의 수단은 무엇인가?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수단이란 고작 윤리적 설득과 계몽이다. 과연 그들에게는 가부장제 타파조차 치열한 투쟁의 목표인지 의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노동자계급 운동을 단순히 이익 집단들의 연대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노동운동과의 연대란 분리된 영역들의 산술적 종합일 뿐 연대 조직을 이끌 정치 전략은 있을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의 운동관은 6·70년대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의 느슨하고 민주지상주의적인 운동관과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다. 관념론적 이원론으로 점철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급진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범계급적 자율적인 여성해방 전략이라는 것은 그들의 반레닌주의적·반노동자 계급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의 여성해방론이라는 일원론으로 환원되고 마는 것이다. 실천의 장보다는 주로 강단 위에 존재했던 서구 맑스주의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전략은 부르조아 세계관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그들의 복잡한 관념론은 노동자 계급에 의해 주도되는 자본주의 타도에 복무할 수 없는 부르조아의 정치적 이해의 반영인 것이다. 1988

<풀이>

- 1) Alison M. Jaggar(1983),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 Sussex: Rowman & Allanheld publishers, 283쪽.
- 2) 하이드 하트만/린다 번햄 외(1989), 『여성해방이론의 쟁점-사회주의 여성해방론과 맑스주의 여성해방론』 김혜경/김애령 옮김, 도서출판 태암, 151~152쪽.
- 3) 앞의 책, 163~164쪽.
- 4) 하이드 하트만(1985), 「자본주의, 가부장제, 성별 분업」, 『제3세계 여성노동』 여성평우회편, 창작과 비평사, 57쪽.
- 5) 앞 2)의 책, 237쪽.
- 6) 프리드리히 엥겔스(1985), 『가족의 기원』 김대용 옮김, 아침.
- 7) 앞 2)의 책, 198쪽.

- 하이드 하트만/린다 번햄 외 지음(1989), 『여성해방이론의 쟁점』 김혜경/김애령 옮김, 태암.
- 프리드리히 엥겔스(1985), 『가족의 기원』 김대용 역, 아침.
- 여성평우회 편(1985), 『제3세계 여성노동』, 창작과 비평사.
- 손 덕수(1985), 「가사노동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여성과 일』, 이대 출판부.
- 김 정희(1987), 「성억압의 유지·강화 메카니즘」, 『이화』 41호.
- _____(1984), 「마르크시즘과 여성문제」, 『석순』 5호, 고려대학교 석순편집위원회.
- 이 승희(1987), 「여성문제의 본질과 형태」, 『사회과학 개론』 백산서당.
- 심 정인(1987), 「여성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여성』 1호, 창비.
- 여성사 편집부(1988), 「한국 여성해방이론 전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여성』 2호, 창비.
- Alison M. Jaggar(1983),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 Sussex: Rowman & Allanheld Publishers.
- 김 애령(1989), 「사회주의 건설과 여성운동」, 『청지』 15호, 서강대청지편집위원회.

편집실 기획

연세여학생운동론 여학생 취업문제에 대하여

〈편집실〉



편집실 기획 I

연세여학생운동론

-총여학생회 활동을
중심으로-

『잉태』 편집부

1. 들어가는 말

2. 연세 여학생운동의 흐름

(1) 객관적 조건의 성장과 내부적
준비기(∼87년)

- 1) 여학생운동 성장배경
- 2) 여학생운동의 전사(前史)

(2) 여학생운동의 주체정립기(88. 89
년 총여학생회)

- 1) 여학생운동론 정립의 과정
- 2) 주체의 준비사업과 개정사업에
대하여
- 3) 대중조직 축성사업에 대하여
- 4) 투쟁사업의 관점과 방법에 대
하여

3. 90년 여학생 운동의 과제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위하여-

4. 마치는 말

1. 들어가는 말

반미구국운동의 봉화불을 올린 광
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장거가 일어난
지 10년째,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일대
전기를 이룩한 87년 6월 민주화대행
진과 7, 8, 9 노동자대투쟁은 반미구
국운동의 활로를 개척하고 노동자계
급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중적 진
출을 이루어냈다. 이로 인하여 식민
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지도사상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었고 대중운동적
관점, 조직적 통일단결의 관점, 반미
투쟁의 지도사상이 광범위하게 전파
되었고 대중운동적 관점, 조직적 통
일단결의 관점, 반미투쟁의 관점을
물어주고 투쟁해나가게 되었으며 지
도역량과 대중역량이 가속도로 성장
해나갔다.

이것은 70년대 민주화운동의 질적
전환을 보여준 80년 광주민중의 피어
린 투쟁의 결과물이었으며 노동대중
이 역사의 주인으로 당당히 진출해온
투쟁의 결과물이었다. 또한 87년을
기점으로, 자주·민주·통일운동의
대중화와 더불어 대중투쟁이 활성화
되었고 이를 목적의식적으로 지속적
으로 보장할 대중조직이 광범위하게
만들어졌다. 이것은 민족해방운동에
나서는 대중의 주인의식, 자주적 진
출의 고양에 따른 것으로써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상의 실천적 위력을
대중적으로 검증한 것이었다.

88년 건설된 총여학생회는 여학생운동의 내용과 활동력을 증대시켜
왔으며, 민중지향적 연대의식을 강화하면서 사회여성운동으로의
배출 통로가 되어왔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의 성숙과 주체
적 역량의 축적은 사회여성운동의 발
전·강화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났
다.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가열차고
현신적인 투쟁으로 이어진 80년대 생
산직·사무직 여성노동자와 기층민중
여성의 진출은 여성운동의 변혁적 성
격과 지향을 뚜렷이 하고, 주체를 올
게 파악할 실천적 계기가 되었다. 더
불어 민주화투쟁과정을 통하여 성장
한 진보적 여성운동가들의 출현과 제
민주적 여성단체들이 모인 <한국여
성단체연합>의 결성과, 각계각층 여
성대중의 진출은 80년대 여성운동이
각계급층여성성을 포괄한 대중운동으
로 정착하게 되는 질적 발전과정이었
다. 이렇듯 발전해나가는 사회대중운
동은 제부문운동 발전의 밑거름이었
으며 대중의 생활적 이해와 요구에
의거한 부문운동의 활성화는 구국운
동 대중화에 복무하게 되었다.

학생운동에 있어서도 다양한 부문
운동체들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학우
들의 자주성 고양, 학생운동의 대중
화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것은 여학
우들의 자각과 투쟁력을 불러 일으켰
고, 여학생대중조직을 건설할 대중적
기초의 마련이었으며 광범한 조직건

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
었다. 이러한 대중운동의 추세에 맞
춰 선진적으로 자각한 여학우들을 중
심으로 88년 건설된 우리대학교 총여
학생회는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예정
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여학생운동
의 내용과 활동력을 증대시켜왔다.
여학생운동 주체들을 중심으로 여성
운동에 대한 이해, 과학적 이념의 탐
구작업이 항상적으로 모색, 그 발전
적 전망을 구체화시켜 나갔고 지속적
이고 끈기있는 대중사업을 통해 부문
운동적 자기역할을 찾아나갔으며 민
중지향적 연대의식을 강화하면서 사
회여성운동으로의 배출통로가 되어왔
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운동에 대한 대중적 인
식과 주체역량의 미성숙으로 인해 많
은 한계와 오류를 천착시키면서 보다
점진적인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지난 88,
89년은 여학생운동의 <주체정립기>
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이 과정을
세밀히 살펴보면서 제기되었던 문제
와 주체의 오류를 지적하고 90년 여
학생운동에 맡겨진 과제를 총괄적으
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2. 연세 여학생운동의 흐름

(1) 객관적 조건의 성장과 내부적 준비기(~87년)

1) 여학생운동 성장의 배경

87년은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와 질적 도약을 보여준 한해였다. 사회변혁운동의 부문운동으로써 여성운동을 정립하는 계기였고, 여성운동의 핵심적 주제를 옮겨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계급계층내에서는 여성들이 조직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이것은 80년대에 성장한 민주적 계단제의 결합으로 87년 3월 결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학생운동에서 배출된 진보적 여성운동가들에 의한 과학적 여성운동론의 연구 성과, 각 계급계층으로의 집단적 투신을 통한 의식화·조직화의 결과물이었다. 또한, 70년대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여성노동자들의 존재적 자각을 통하여 주체로 등장한 여성노동자, 노동자 가족들의 가열차고 헌신적인 투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운동의 객관적 발전정도와 여성운동의 역량성숙에 힘입어 학생운동 내에서도 선진적인 여학우를 중심으로 여학생의 조직화, 여학생운동의 대중화 문제가 제기되었고, 연대협의체로서 <서울지역 여학생대표자협의회> (아래 여대협)가 발족되었

다.

여대협은 그간 여학우들의 고립적이고 산발적인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지도하고 각학교 여학생조직 기반의 강화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기하였다. 84년 이후 제여성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해온 경험 속에서 여학생운동을 인식해나가기 시작한 선진 여학우들은, 86년 부천 성고문사건을 대하면서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여학우들이 투쟁력·단결력을 확신하게 되었고 87년 6월 항쟁의 과정에서 조직적 대응력을 갖출 필요를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지도주체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각학교 여학생운동이 조직적 기반을 확고히 틀어쥐지 못한 가운데 실질적인 지도력을 행사해오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여대협의 결성은 각학교 여학생운동 주체들의 자각과 각성을 높여나갔으며, 부족하나마 여성운동의 학생부문운동으로서 연대투쟁·연대사업을 담보해 나가는 조직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실제, 여대협의 결성으로 인해 각학교마다 여학생조직문제의 제기와 토론이 활발히 벌어졌고 독자적 사업영역을 넓혀나가며 여성운동이 학생운동 내에서도 자기방향을 잡아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2) 여학생운동의 전사(前史)

우리대학교에서 본격적인 여학생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은 88년초가 되

**여대협의 결성은 여학생운동 주체들의 자각과 각성을 높여 나갔으며
부족하나마 여학생운동의 학생부문운동으로서 조직적 기초를 마련했다**

지만, 그 이전부터 소수이지만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노력의 과정도 무시할 수 없다. 80년대 초반, 학생자치활동이 학도호국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시기(학생운동의 비합법시기)에 우리 대학교에는 제3연대(여학생연대)로 편제된 여학생회(일명 녹양회)가 있었다(물론 이 여학생회가 어용적, 판제적 성격을 띠고 학생간부 임명제등 제한된 활동에 머물러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는 달리 비합법적인 학생운동의 투쟁활동 속에서 성장한 여학생운동가들의 <여성학연구모임>등에서는 여성문제의 본질, 여성운동의 변혁적 역할등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들은 변혁운동의 진로를 정립하지 못했던 학생운동의 실정 속에서 급진적 서구 여성해방이론의 유입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활동의 서둘러, 급진적 제오류를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연구·교육을 위주로 하는 <편집부>, <여성문제연구회> 등으로 돌아가고, 다른 한편은 적극적인 대중조직운동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다가 84년 유화국면에 접어들면서 각학교마다 학생의 대중자치조직으로서 자주적 요구를 실현할 총학생회 건설투쟁

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때 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 등 몇몇 학교에서는 기존 활동의 성과물을 토대로, 때로는 심각한 논쟁을 거치면서 <총여학생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에는 별 다른 문제제기도 없이 총학생회 건설 당시 여학생부로 편제되었다. 이것은 녹양회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여학생운동가들의 편향된 활동등으로 실? 제 여학생운동의 주체가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연구씨클>의 조직역량도 거의 희박했었다. 그러나 <여학생부>로 편제된 대다수 <남녀공학>대학이 그러하듯이 우리 대학교에 있어서도 3년간 <여학생부>의 활동은 극히 소극적이며 정체되어 있었다. 당시 학생회가 이원적구조(under-open)로 되어 있었고 정치투쟁 일변도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학생부>는 유명무실한 부서였다. 여학생부장만 있는 <여학생부>는 정치투쟁에 휩쓸려 선전과 사회를 담당하는 것이 주임무였고 기존 대중사업을 배치하여도 일회적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여학생부는 남학생중심의 학생회활동에 여학생들이 참가하는 유일한 합법공간(물론, 학생운동을 하

는 여학우는 많았으나 여학생운동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이었으나, 사람을 준비하고, 여학생운동을 대중화할 구조로는 한계가 컸다. 독자적 사업을 할 역량도 없었고 학생운동사업에 끌려다니면서 여학생들을 키워낼 수도 없었던 것이다.

87년 초, 대중운동이 활성화되고 대중조직이 결성되면서 여학생운동 주체들에게 <조직전화>의 필요성이 가장 크게 대두되었다. 이것이 <여부-여회> 논쟁으로 표면화된다. 당시 여학생운동 주체들은 그간 <여학생부> 활동의 정체요인을 <조직구조>의 문제에서 총체적으로 발현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여학생운동이 여학생들의 존재적 특성,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대중사업을 펼쳐나가야 하고 대중투쟁 조직화를 통하여 주체의 준비, 지도력을 강화시켜 나간다고 했을 때 <총학생회> 체계로서는 이를 담보해나갈 수 없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성운동이 변혁적 성격과 임무, 현재 여성들의 생활적 처지와 조건을 고려한다면 ① 목적의식적인 여학생운동주체의 활동과정을 통하여 여학생의 정치적 각성과 지도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② 여학생대중의 의식화, 조직화사업이 계획-집행-평가까지 일관되게 담보되어야 하며 ③ 또한, 스스로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적, 조직적 훈련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운동분리, 주의라는 등, 조직만능주의라는 등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운동의 대중화, 다양화 부문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대중노선'의 정착에 의해 해소되어 나갔다. 오히려 보다 중요했던 문제는 (당시, 논쟁에서) 대중조직건설방식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당시 <조직 전화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여학생운동 주체들은 87년 2학기 <총여학생회 건설 준비 위원회> (아래 여준위)를 발족하고 조직건설을 위한 전단계 준비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여준위는 올바른 여성운동의 관점에 선 여학생운동론을 정립하여 대중적으로 선전교양하는 것, 조직전화의 필요성과 제조직관계를 정립하는 것, 다양한 모임을 확대 발전시켜 조직기초를 다지고 사람을 준비하는 것등의 조직내용을 준비하고 내용역량을 축적할 것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활동내용으로 본다면 ① 총여학생회건설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공유를 위하여 단위간담회, 공청회등을 개최하고 87년을 중심대상으로 한 편지보내기, 신문발간, '잉태' (여학생잡지)발간 사업을 추진하였다. ② 사진전시회, 문화대동제, 연극상연등을 통하여 여성문제의 대중적 인식을 높여나가려 했고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학생들의 제문제를 폭로해 나갔다. ③ 대통령선거시기 부모님께 편지보내기운동, 식발단식투쟁으로 여학우들의 정치의식화, 여학생운동의 변혁운동적 성격을 명확히 밝

87년초 대중운동·대중조직 건설이 활성화되면서 (조직전화)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여학생운동 주체들은 87년 2학기 여준위를 발족시켰다

혀나갔다. 여준위의 이러한 활동은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주체의 활동방향을 세워나감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의 객관적 조건(대통령선거시기, 겨울방학)과 더불어 대중적 파급력을 높이지 못함으로 인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의당 건설준비위원회의 활동의 더욱 착실히 내적역량을 구축하고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것으로 자기목표를 잡고 활동력을 높여 나갔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운동 주체들의 조급성과 조직전화의 필요성을 앞세운 조직형식주의적 관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조직건설을 제기하게 된다(여기에는 1년간 전준위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과 조직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할 즉각적인 총여학생회 건설을 주장하는 논쟁이 있었다). 기간활동에 대한 과대평가와 조직문제해소에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 결국 88년초 <총여학생회 건설>을 준비하게 되었고 주체역량의 미흡, 대중적 토대의 허약등은 총여학생회 출발의 한계를 노정하게 된 근본요인이 되었다.

(2) 여학생운동의 주체정립기 (88. 89년 총여학생회)

1) 여학생운동 정립의 과정

실천적 경험을 통한 이론적 검증이 일천한 여학생운동에 있어서 여학생운동론은 전체운동과 여타부분운동에서와 같이, 대중운동의 발전, 주체역량의 발전정도에 의해 올바르게 규정되어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간 총여활동에서 나타난 세가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학생운동의 사상이론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① 우선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변혁운동에 나서는 여학생운동의 사상의식이 낮고 편향이 심하다는 것에서 나타난다. 실제 많은 학교의 여학생조직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조직의 건설과 운영에 커다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우리 대학교의 경우도 이에 벗어나지 않는다. 87년 6월항쟁이후 이의 평가를 둘러싸고 각 사상적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학생운동대오의 분열과 대립의 골은 깊어갔고 87년 대통령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보여졌던 종파적 모습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남았다. 이 당시 <여학생부실>

은 학생회에서 이탈한 정파들의 집산지였고 이들의 사상적 논의, 불평불만의 해소처였다. 이러한 모습은 88년 하반기 다른 정견을 가진 총학생회가 당선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었으나, 여학생운동 주체들의 사상적 혼란과 편향을 가중시켰던 것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여학생조직 공간이 사상적 편향의 집중, 소수파의 보금자리로 활용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여학생운동주체들의 미흡한 활동력으로 공간사용의 여지가 넓었던 측면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학생운동주체들의 낮은 사상의식에 기반한 사상적 편향의 문제이다. 정치적 입장이 다른 활동가들이 사업을 할 때 "여학생회부터 잡아라", "총학생회를 못잡으면 여학생회라도 잡자."라고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여학생운동의 양을 과대평가해서도 아니고 여학생운동의 대중적 지도력을 믿어서는 아니다. 단지 분파적 활동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여학생운동이 변혁운동의 관점을 올바르게 틀어쥐고, 사회여성운동의 일주체로 진출하고 학생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한다고 했을 때 일차적으로 사상적 통일을 전제한 정치적 지도역량을 꾸준히 발전시켜내지 못한다면, 이러한 모습은 또 재현될 것이

고 대중들에게 신뢰받으며, 간부들과 굳건한 동지적 결합을 이루어 나가는 어려울 것이다.

②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여성해방운동이론의 혼란이었다.

이론이란 사상적 내용을 심화시키고 실천활동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현실의 실천적 검증을 통하여 보다 풍부화되는 변혁운동의 무기라 할 것이다. 80년대들어 주체의 성장과 운동의 발전에 따라 여성운동이 변혁운동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게 되고 기존의 서구여성운동이론의 급진적 폐해들을 많이 극복해왔다. 80년대중반이후에 여성운동의 논의는 주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과 <맑스주의 여성해방론>논쟁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여학생운동의 주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되었다.

88년 여학생운동 주체들은 <여성운동의 본질과 기원>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여(주요 교재는 『가족의 기원』, 엥겔스), 주로 심정인의 <여성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과 박정렬의 <여성모순의 본질에 관한 해부>를 중심으로 논쟁을 벌이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여성해방이론의 성과 계급의 이분법, 이중체계론을 극복하고자한 것이었으나 여학생운동 간부들에게는 오히려 이중체계론에의 경사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민족·계급·성문제를 동질선상에 놓고 그 상호관계를 입증하려고 했던 것에서나 여성을 계급범주에 넣

여학생운동 주체들의 사상적 편향의 문제와 여성해방 이론의 혼란은 여학생운동의 정개에 있어 커다란 이론·실천적 장애를 가져왔다

고 투쟁대상은 자본가와 독재권력이라는 것에서도 드러나는 바, 활동속에서는 여성모순의 특수성을 앞세워 전체적 연관과 투쟁의 유기적 결합을 놓치게 된다.

88년 후반기를 넘어서면서 『여성』 2집의 <한국여성해방이론의 전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기점으로 조금 안의 『여성해방론』, 『여성해방이론의 쟁점』등을 통하여 맑스주의 여성해방이론을 정립하게 되고 주체들에게도 일정정도 관점을 재정립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논쟁이 여학생운동주체의 실천적 지침으로 되지 못했던 것은 여성학계의 소장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들의 이론적 연구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성격에 대한 파악과 민족문제에 대한 관점정리가 되지 못한 채 고전적 원론에 입각한 <본질>해명과 <사회구조적 연관>설명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89년의 경우, 이제까지 논의의 총괄인 맑스주의 여성해방이론을 옮겨 정리하고 <본질과 기원>의 수준을 넘어서 새롭게 정립된 변혁운동의 관점에 서서 한국사회 여성운동론을 연구·진작시켜야하는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운동에 대한 이해·연구작업이 정체되었다. 이것은

현재 여학생운동주체들이 여학생운동을 전개하는데 커다란 이론·실천적 장애를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③ 그다음 논의될 문제는 여학생운동의 지위와 역할규정의 문제이다.

이것은 앞에서 검토해온 우리의 사상운동적 관점, 여성운동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여학생운동의 지도역량과 대중역량이 얼마나 발전하는가에 의해 정리될 것이다. 여기서는 그간의 실천적 논쟁의 과정을 통하여 정리된 결과물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논쟁은 여성운동이 일차적인가, 학생운동이 일차적인 규정내용인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의 서로 다른 견해는 <혁명적 여학생운동의 총진군을 위하여>라는 문건과 <여학생운동론> (『이화』 42호)로 대표된다. 이 당시 여성운동의 일차성·이차성을 따지고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요인은 학원에서 여학생운동의 투쟁내용이 학생운동의 투쟁흐름과 걸맞지않게 전체 여성의 독자적·특수한 문제에만 집착하는 경향과 학생운동에 매몰되어 여학생운동의 부문운동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향을 노정하였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두 견해 모두가 정확히 자

신의 견해를 정리하지 못하고 단지 사상적 차이에 근거하여 여성운동을 바라보는 입장을 달리했을 뿐이다. 또한 여학생운동은 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을 함께 결합해야하며 여학생운동을 주제로 세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초반의 이러한 논쟁은 88, 89년을 경과하면서 일단락 정리되어 나갔다.

첫째 여학생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의 총체적 지향을 담은 여성운동의 일반적 과제를 학생이라는 존재적 특성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학생운동이 여성운동의 총체적 대변자로 제역역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며 조직대상·주체의 역할도 여기에 근거해야 한다. 여학생운동은 이후 사회여성운동으로의 진출준비와 선진적 활동가배출의 의무를 갖게되는 것이다.

둘째, 여학생운동은 각계급계층으로 구성된 여성운동의 학생부문운동이다. 이것은 식민지사회운동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원에서 주어진 여학생의 사회적 임무와 노동계급여성의 지지·지원·연대투쟁등은 여성운동의 강력한 부대로써 사회적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여학생운동이 학생운동투쟁과정 속에서 여러가지 편향을 보이고 있지만, 여학우의 자주화된 힘을 결집(일차적으로 여학우 대중의 처지와 자주성 실현에 대한 이해·요

구를 파악해야 한다)하여 학생운동의 조직화 여성운동의 역량강화에 복무해 나간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매시기별 대투쟁사업에 임해 나간다면 주제역량의 성장에 따라 극복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 주체의 준비사업과 개정사업에 대하여

88, 89년 총여학생회의 제반 투쟁과 대중사업을 평가하기에 앞서 가장 문제로 대두되었던 조직구성원, 사람의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어떠한 당위성과 조직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이를 원할히 수행할 조직주체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조직은 올바르게 구성될 수도 없고 목표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도 없을 것이다.

① 우선 총여학생회조직성원을 목적의식적으로 준비하지 못하였다. 사람의 준비란 모든 사업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판전이 될에도 불구하고 그간 총여학생회는 2년동안 이 문제를 핵심에 두고 사업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여준위의 활동이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끈기있게 사람을 양성해온 모범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준위는 총여학생회조직을 구성할 만큼 조직수준에 걸맞는 사람준비를 하지 못하였던 한계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88년의 경우에는 회장단만으로 출발하게 되었으며 며칠내에 여기저기서 조직성원을 급조하였다. 여기서의

88년의 경우 회장단만으로 출발하여 며칠내에 여기저기서 조직성원을 급조하였다. 여기서의 문제는 서로 다른 정파·사상적 경향성의 문제였다

문제는 서로 다른 정파·사상적 경향성의 문제였다. 89년의 경우 목적의식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들이 선거에서 멀어지고 종파적으로 급조된 회장단과 인적관계로 형성된 집행부 등<종파적 문제>를 가장 크게 야기하였다. 여기서의 문제는 종파적 모습과 여성운동에 대한 자신감·이해도가 크게 뒤떨어진 간부들의 모습이었다.

이상의 경험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또한 목적의식적으로 사람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많은 문제가 야기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모든 사업의 중심을 사람의 준비에 두어야 한다. 기층단위의 다양한 소모임·학습모임·친목모임 등을 통하여 사람을 발굴하고 파·단대별 여학생부나 여학생의 주체가 되게끔 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있는 단대여간부들은 단대사업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지도하여 역량을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앙단위에 있어서도 기층단위활동을 통해 훈련된 여간부들을 집중적으로 교양하는 기간을 두고 이들과의 결합을 돈독히 해야한다. 지금까지 대중속에서 사람을 발굴·준

비하지 못하고 상층에서 인적결합을 위주로 사람을 모았던 것은 조직을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측면과 대중조직의 토대가 그 만큼 부실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준비하는 것에 주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② 다음은 사람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개조하는 사업의 문제이다. 설령 인적결합에 의해서 모여졌다 하더라도 사업과 활동의 과정속에서 단련·개조되면서 점차적으로 의식수준과 활동력 또한 여학생운동간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높여나갈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자주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단한 투쟁과 조직적 개조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실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으나 1년사업을 마치면서 여학생운동을 정립하고 여성운동가로서 진출하는 여학생운동의 간부가 다수 배출되었음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학생운동조직내에서 이러한 사람개조사업이 일천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2년간 활동속에서 나타난 사람개조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정치사상적 이해수준을 높이

고 정치적 생명력을 우선에 둔 사상 개조사업을 하지 못했다. 총여학생회 조직은 어느 조직보다는 인적인 결합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혈연적이고 생활적인 결합력은 조직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 결합이 사적인 관계 일시적인 관계형성에만 머물러 집단적 위력·동지애로까지 발전해가지 못하였다. 무엇때문인가?

사회변혁을 지향하고 부문운동에 복무하고 있는 여학생운동주체들에게 일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여성운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운동의 전망을 수립하는 것이며 또한 변혁운동의 일주체로서 정치사상적 지도력을 갖추는 것이다. 여학생운동하는 많은 간부들이 <사상학습을 받고 싶다> <우리는 입장없는게 입장이다> <투쟁의 무풍지대>라는 자조반 푸념반의 말들을 많이 하곤한다. 이것은 여학생운동주체들의 현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들은 낮은 사상의식을 높여나가고 운동의 전망과 부문운동의 내용을 조직적으로 담보하여 그들의 운동성과 정치적 생명력을 고양시키길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자신들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해소·개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조직적 단련과정을 통해 집단주의를 키우고 동지애와 의리로 뭉쳐나가지 못하였다.

조직의 발전을 개인의 명망과 위세로 동지애적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초기결합이 사적인 만남과 인적 유대로 시작되었다고 해서 동지애와 의리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하나의 뜻을 간직한 길을 함께 가는 동지를 얻는 것은 천금보다 귀중한 것이다. 나보다는 내결에 동지를 더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고서야 어찌 생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대중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자그마한 차이를 큰 차이점으로 불리고 조그만 실수에도 쉽게 비틀어지고 동지의 잘못을 꼬집어 비난하기에 더 집착하며 감정에 치우쳐 간단히 의절해버리는 모습은, 동지를 믿지않고 동지를 간단히 포기하여 자기를 중심으로 동지를 판단하는 가장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인 것이다.

또한 조직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조직을 위해 스스로를 헌신하려는 집단성이 부족했다. 조직생활을 통한 사람관계에 자신의 생활과 품성을 개조해나가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확하고 능력있다하더라도 개인의 도덕성, 개인의 입신양명에 불과하며 널리 세상을 이롭게하게 참다운 인간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없다. 조직에서의 약속을 식은 죽 먹듯이 어기고 개인의 생활리듬에 따라 행동하며, 몇 날며칠을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불쑥 나타나고 자신의 감정으로 조직생활을 하는 등의 모습은 집단적 조직규율과 공동체생활을 중요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다.

셋째, 사업의 자립성을 보장한 기술실무적 능력을 키워나가지 못하였

사회변혁을 지향하고 부문운동에 복무하는 여학생운동 주체들에게 일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여성운동에 대한 이해·전망수립이며 또한 변혁운동의 일주체로서 정치사상적 지도력을 갖추는 것이다

다.

각 조직성원의 조직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각 사업영역이 할 일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의미공유가 되어지지 못하고 상층에서 이미 결정한 대로 부서를 결성, 집행부를 인선·배치할 때 각 성원의 자주적인 능력은 발휘될 수가 없는 것이다. 대중사업의 목표와 수준 그리고 활동의 영역도 준비된 사람들의 역량정도에 걸맞게 정해져야 하는데 거꾸로 원대한 사업과 체계를 구성해놓고 사람을 꿰어 맞추어 왔던 것이 기간의 활동 모습이었다. 따라서 실제사업의 집행주체가 자기가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일에 떠밀려 기계화·관성화되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는 집행주체의 자발성과 책임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하나의 문제는 집행부의 독자적인 전문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각 부서별 연관과 사업의 총화이다. 예를 들면 89년 교육부의 경우 대중교육사업과 각 단위교양사업, 간부교육사업을 자신의 주내용으로 설정했지만 실제활동에 있어서는 축전부정, 농활담당, 취대위사업을 떠맡으면서 주된 교육부사업의 성과를

들어쥐지 못하고 일의 하중에 눌리면서, 사업의 주체는 무력감과 패배감에 빠지고 교육부의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물론 대중조직공간이 끈끈하지 못하면서 의결과 집행을 담지하고 집행력을 총괄하는 현 실정에 기인한 바도 크지만 이보다는, 각 부서의 독자사업을 확고히 하여 주체의 전문적 집행력을 높이고 이의 총화로써 전체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요인이 더 크다할 것이다.

3) 대중조직 축성사업에 대하여

사람의 준비와 조직적 기초가 미흡한 상황에서 출범한 총여학생회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단위조직건설과 강화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88, 89년 사업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사업기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조직적 기반을 넓혀나가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①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88년초 조직위상 논쟁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조직형식주의적 관점이다.

88년초 총여학생회가 처음 건설되면서 총학생회와의 관계문제, 단대조직과의 연관문제 등으로 총여학생회 위상논쟁이 있었다. 이것은 당위적으

로 조직의 지위를 강변하는 것이었고 실질적인 대중기반과 조직지도력이 담보되지 못한상태에서 실제적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여학생대중조직, 여학생들의 대표적 자치기구라는 성격을 재확인하고, 조직의 지위문제는 당위적차원의 논쟁으로써가 아니라 주체역량(지도역량과 대중역량)의 강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렸다. 그러나, 조직전화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부터 총여학생회를 건설하고 조직위상논쟁을 할 때에도 그 기저에는 조직의 형식적 틀에 의해 만사를 해소하려는 생각이 깔려있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며 주체역량의 준비정도이다. 대중적 인식과 토대의 구축이다. 이러한 기초작업의 성과를 없이 형식에 얽매었을 때 그것은 허장성세일 뿐이다. 88, 89년 조직사업 전방에 걸쳐 중앙조직이라는 체면에 의해 실속없이 만들어진 운영위원회는 간판만 존재할 뿐 사람이 없었던 조직형식주의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총여학생회 조직사업에서 먼저 사람을 준비하여 실속있는 사업을 틀어쥐고 조직의 내용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단위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실질적인 단위주체를 세우지 못했다.

총여학생회라는 중앙조직이 먼저 건설되면서, 단위조직사업은 단위활동을 적극지원·추동해내고 이를 통하여 단위의 내용성과 활동력을 고양시켜 책임있는 단위주체를 선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대중활동공간에서 성장하며 대중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들에게 신뢰받는 간부의 배출과정이고, 사업과 활동의 실질적인 단위주체가 결집된 운영위원회 강화과정이 된다.

그러나 88, 89년의 단위사업은 이러한 기초작업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틀에 안주해 있었다. 88년 운영위원회의 모태로 시작된 <단대여학생대표자회의>는 각 단위조직의 부제, 각 단대별 편차에 의한 책임없는 대표자모임으로써 실제 단위 의사수렴과 중앙의결·집행력을 담보할 수 없었던 모임이었다. 따라서 2학기에는 이들을 실질적인 단위의 주체로 세우는 것을 목표를 단대활동지원과 교양사업을 위주로 모임을 꾸리게 된다. 이것은 동원과 홍보의 대상에서 벗어나 주체의 자각과 활동력을 고양시켜내는 계기점이 되었고, 이의 결과물로 꾸려진 것이 이과대 여학생회건설과 치대 여학생회건설이다.

또한 88년 하반기 다양한 모임·씨름·과에서의 사업도 그 일환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목적의식적으로 힘있게 진행되기보다 대중의 증대되는 요구에 따라가는 식이었고 각단위의 주체를 세워나가는 데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88년의 초보적 작업이 89년의 운영위원회 조직사업에서 계승·발전되어 나가야했으나 오히려 정체되었다. 89년의 운영위원회는 아직도 실질주체가 준비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용이며 주체역량의 준비정도이다. 대중적 인식과 토대의 구축이다. 이러한 기초작업의 성과를 없이 형식에 얽매었을 때 그것은 허장성세일 뿐이다

고 그 형식적 위상에만 참목하여 단대학생회의 부회장을 단위 여학생회 조직구성의 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들은 지원·보조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을지언정 총여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주체가 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이들을 실질적인 단위주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조직사업을 안일하게 바라보는 오류를 낳게 되었고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88년 사업을 경과하면서 이미 밝혀진 단대별 상황과 조직수준 편차에 따라 교양사업과 조직결합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현상적인 운영위원회의 유지와 대중적 동원의 통로로만 바라본 지도 주체가 판성적인 사업태도를 벌인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여학생운동 의식화·조직화의 수준에서 운영위원회는 <단대대표자 모임>으로 그 구성원과 규정력을 완화해야하며 <대표자>들에 대한 교양과 사업지도를 통해 각단대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③ 일상적 대중의식화사업에 힘을 넣지 못했다.

조직화의 기본전제로서 일상적 대중의식화사업의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대중의 생활적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목적의식적인 지도와 결합되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다. 여학우들의 자치활동공간이 협소한 남녀공학에서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대중적 참여도를 높여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대중적 의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전화방문, 공청회, 간담회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편지보내기, 단위순례대행진 등 대중적 만남과 결합의 장을 넓혀나가야 한다.

또한 일상적 대중사업에서 교육과 선전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대중교양사업과 연구사업이 있다. 88, 89년을 통하여 <교육부>가 내적 역량을 축적하는 연구학습사업이 미진했던 것은 가장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것은 학습도서목록표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각 소모임을 지도·지원하고 끊임없이 여성운동의 내용을 심화·축적해 나가는데 있어 단절이라 할 것이다. 대중교양사업은 바로 이러한 연구사업의 총화·결과물로써 외화되어야 할 것이며 단위 조직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기간 대중교양사업으로는 88년의 민족여성학교에 이어 89년의 단기학회와 여성학교는 낮은 차원이지만 여성문제의

인식을 심화시키고 여학생들이 모여 토론·연구학습하면서 여성운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장으로써 유효하며 앞으로는 학우들의 참여로 실속있는 내용이 채워지고 광범위하게 확산시켜야 할 사업형식이다.

전반적으로 88, 89년의 교육사업은 주체의 노력과 다양한 형식개발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파급력과 내적역량의 축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원인은 각단위의 소모임등 다양한 학습씨클을 내실있게 지원하지 못하고 각 대중사업을 통한 조직화의 결실을 내오지 못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선전사업은 전시화, 기획자보, 신문, 잡지 등의 언론매체활동이 있었다. 선전활동은 체계적인 대중교양의 내용성을 담보하고 각 성격에 따른 정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매시기별 정세·핵심사항이 기동성있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학우대중의 참여와 의사수렴의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지난 선전활동에서 지적할 것은 일방적 의사전달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편집역량이 부족하고 대중접속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빚어진 것으로서 각 선전물이 대중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동성있는 정보수집이 필수적이다. 역량이 부족하다면 한가지방식이라도 확실히 대중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또 지적해야 할 것을 정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선전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상대중사업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생활문화개선과 학내복지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남녀공학 여학생들의 생활문화를 개선하여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밑바닥이며 여학생들의 특수영역의 이해를 담보하여 보다 바람직한 공학의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영역의 사업이다. 또한 공동체장을 통해 여학우들의 활동을 고양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된다. 복지사업은 88, 89년을 거쳐 대단히 부족한 사업영역이다. 89년에는 복지부조차 없었으며 이 부분의 사업은 방치되어 왔다. 이것은 이 사업이 선거때 반짝거리는 시혜의 일부분이 아니라, 학원 자주화투쟁의 일부분이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것을 쟁취한다는 여학우의 각성을 일으키는 사업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이상의 교육·선전·문화·복지 등의 일상적 대중사업이 88, 89년동안 소기의 성과는 거두어들이지 못하였으나 많은 부분에 씨앗은 뿌려졌다.

4) 투쟁사업의 관점과 방법에 대하여

2년동안의 활동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총여학생회·여학생운동에 대한 대중적 의식화 정도가 낮고 여학생운동의 지도역량과 대중적 토대가 뿌리를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여학생운동의 투쟁경험이 일천함으로 인해 투쟁속에서

기간 투쟁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학원정치투쟁과 여학생운동의 독자적 투쟁을 유기 결합하지 못하고 매몰, 편향을 겪어왔다

발굴된 지도인자가 적고 조직의 올바른 지도력이 행사되지 못한 데에 있었다. 또한 여학생간부를 집중적으로 훈련·배양시켜낼 공간의 협소함도 커다란 장애요인이었다.

여기에서는 기간 투쟁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학원정치투쟁과 여학생운동의 독자적 투쟁을 유기 결합하지 못하고 때로는 매몰, 때로는 편향을 겪어왔던 모습을 살펴보고 모범을 찾아내어 관점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① 우선 지적할 점은 여성운동의 독자적 선전작업에 집착하여 학생운동투쟁을 방기하거나 분리된 투쟁영역으로 사고했던 투쟁사업이다.

이것은 여학생운동이 여성운동의 특수한 과제를 모두 담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여성운동의 일반적 과제와 학생운동의 일반적 과제는 동일하며 여학생운동이 여성운동의 지도조직은 아니다) 학생운동의 일부분으로서의 일반적 과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내지 못한 탓이다. 한편으로는 그 당시 총여학생회 건설의 유의미성을 독자적 영역의 확보로 바라보고 대중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주체들의 의식적인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업은 일상대중사업과 더불어 여성문제를 선전·폭로하고 낮은 차원

이나마 여학생운동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럼에도 주체들의 일면적 사고는 여학우가 안고있는 사회적 모순의 총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고, 학생(식민지 청년학도로서의 계층적 특성)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임무를 축소시켜 왔다. 이러한 사고는 88년의 오류를 반성하면서 89년 사업에서는 많이 극복되어 나갔으나 그 사고의 잔재는 요소요소에 남아 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여학우를 주인으로 세워나가는 여학생운동이 학원의 여학생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운동의 일부분이며 여성으로서의 자각과 조직적 결집을 통하여 학생운동의 대중화, 나아가 구국운동전선의 부분이 사회여성운동의 동력을 강화한다는 관점하에 제 투쟁에 임해야 할 것이다.

② 다음으로 지적할 점은 또다른 편향으로서 여학생운동의 주체들이 낮은 차원의 부문사업을 일천하게 바라보고 선도적 정치투쟁에 휩쓸리는 현상이다.

물론 학생운동에 있어서의 정치투쟁은 식민지사회 청년학도로서 수행해야 할 임무이며 이에 여학생운동 주체들이 참여는 당연한 것이다. 문제

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대중의식화·조직화로 뒷받침되지 못한 채 선진적 간부들만의 개별적인 참여에 그칠 뿐이고, 때시기별 정세에 따라 진행되는 정치투쟁 일정에 밀려 일상대중사업이 방기되어진다는 점이다. 대중의식화 없이 조직화 없고, 조직된 대중투쟁역량이 아니고서는 위력적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우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중의식화·조직화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당장에 성과물들이 드러나지 않아겠지만 끈기있는 사업을 통해 조직화된 대중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낮은 차원의 정치투쟁 영역과 방법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87년 6월 이한열열사가 쓰러졌을 때, 민주광장에서 가두로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들며 병원사수투쟁에 너나없이 참여하고 도시락, 담요를 싸들고 다니던 여학우들을 생각해 보라! 여학생운동 주체들은 간부본위적인 투쟁 형태와 구태의연한 방법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여학생대중의 자주성을 고양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쉽게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낼 정치투쟁의 영역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여학생운동의 부문운동적 영역을 정치투쟁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전체운동, 여성운동을 나누어 보는 것이 아니라 구국운동의 일반적 과제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여지로 투쟁내용을 분리시켜서는 안된다. 자

주·민주·통일투쟁은 여성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민주화를 열망하는 모든 애국세력의 통일된 투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여성이라는 존재적 차이를 사회적 차별로 전화시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요소를 없애고 여성운동의 특수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여학생대중의 생활적 처지와 이해에 근거하여 목적의식적인 지도를 통해 정치투쟁영역으로 인입, 정치적 의식을 고양시켜 나가야 한다.

3. 90년 여학생운동의 과제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여학생운동의 흐름과 현황을 점검해 보았다. 한마디로 기간의 활동과정은 87년을 기점으로 각학교마다 여학생 대중조직의 건설과 활성화사업이 모색되어지고 연대협의체가 건설되는 등 여학생운동 주체의 발전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객관적 조건의 성숙과 대중의 자주적 진출에 힘입어 건설되었던 여학생 대중조직들은 주체의 준비정도가 낮고 대중적 기초의 부실함으로 인해 많은 난관과 자기한계에 봉착했었다. 한술에 배부르려 했던 주체들의 조급성과 과도한 사업배치, 무책임성 등도 간부와 대

90년대 연세여학생운동의 가장 핵심적 과제는 "대중의 실정과 수준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목적의식적 지도력을 강화하여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루는 것이다

중과의 피리를 가져왔고 학우들을 대상화하고 무사안일한 관성적 사업태도 등도 발전을 이루어나는데 장애요소였다. 그러나 여학생운동의 투쟁경험이 일천하고 조직적으로 훈련된 간부가 부족했던 당시의 실정과 조건을 고려한다면, 88, 89년의 제투쟁과정은 지도주체의 문제와 투쟁·조직의 제문제를 제기하면서 타산지석으로서의 모범과 내부적 성과물을 쌓아 올렸다고 볼 수 있다.

이제 90년은 이러한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과제를 달성하면서 여학생운동의 전망을 밝혀 나갈 것인지를 내와야 한다.

90년대 연세여학생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대중의 실정과 수준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목적의식적 지도력을 강화하여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학생운동을 대중화하는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체의 준비정도가 가장 중요하게 나선다. 주체의 준비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으며 대중에 전진으로 복무하는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총여학생회 활동이 주체의 정립과정이었다

면 이것을 기초로 대중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90년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상관점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것은 변혁운동에 나서는 여성운동이 올바르게 변혁운동에 복무하고 투쟁하기 위한 관건적 요소라 할 것이다.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관점 속에서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합된 힘으로 반미구국 통일전선을 이루어내고 자주·민주·통일투쟁으로 전진할 때, 우리의 '민족자주정권'의 수립은 가능해질 것이다. 더불어 각부문 대중조직이 이를 명확히 설정하고 대중의 자주적 진출을 이루어낼 때 자신의 변혁적 임무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87, 88년 이후 새로운 사상이 변혁운동에 뿌리를 내리고 그 실천적 검증과 사상적 위력을 더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자주사상의 관점, 입장이 옮겨져 있지 못하고 구체적 실천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② 주체적 관점에 입각한 '여성운동론'을 정립해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 여성운동내에는 갖가지 잡다한 사상과 해방론이 난무해

왔다. 어용·반동화된 관제 여성운동은 차치하고라도(이들이 여성운동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얼마나 왜곡·변질시켜왔는가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비판되어야 한다), 60년대경 직수입된 자유주의·급진주의·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이론들은 성 대립적 사고를 심화시켜왔고, 여성문제의 본질을 은폐시켜 사회구조와의 투쟁을 향한 여성운동의 변혁적 성격을 간파해왔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이분법적으로 성과 계급을 분리시켜 여성운동가들의 사상을 호도시켜왔다. 이제 이것은 어느 정도 불식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요소가 남아있다. 또한 변혁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하며 여성문제를 제기한 맑스주의 여성해방론이 있으나 이러한 분석은 경제적 토대, 계급적 이해, 노동력 착취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어 실제 변혁투쟁에 나서는 데 있어 오류를 남기고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이론적 성과를 이어받고,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성격에 입각하여 한국사회현실의 여성문제, 여성운동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식민지시대의 제 3 세계 혁명과정에서 보여주듯이, 일제치하 항일투쟁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이 어떻게 단결, 투쟁해야 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③ 일상적 대중의식화사업을 기본에 놓고 제정치투쟁을 지원·결합해야 한다. 대중적 투쟁, 조직화에 앞서 의식화사업, 대중적 각성을 선결조건이다.

여학생운동은 지금 준비기라는 규정성 속에 놓여져 있다. 무엇보다도 지도 역량과 대중역량을 탄탄히 구축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여학생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존재적 특성을 파악하고, 여성문제의 자각과 행동적 결단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모순해결의 총체적 지향성과 민중지향성, 식민지 청년학도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학생대중의 낮은 정치의식, 소극적 활동을 탓하기에 앞서 그들의 무한한 잠재력, 자주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자각할 투쟁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투쟁의 영역과 방법을 개발하여 여학생대중의 참여공간을 넓혀나가도록 해야 한다.

④ 실속있는 조직사업을 통해 사람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있고, 투쟁의 필요성이 있다해도 '사람'이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거창한 조직의 외형보다는 알뜰살뜰한 내실을 기해나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조직의 체계와 질서, 운영은 사람에게 맞게 해야 하며 집단주의 공동체 생활에서 사람을 개조해나가야 한다. 또한 대중사업, 정치투쟁등을 통하여 사람을 발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업의 성과로 보아야 한다. 각종 소모임, 대중단체, 학습친목모임 등을 통해 사람을 발굴·조직적 훈련을 하도록 하자.

이상, 간략한 평가 속에서 도출된

이제 90년은 기간활동의 결과물들을 토대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전진>을 약속해야 한다. 이것은 여학생운동 주체의 근본적인 혁신과 투쟁을 필요로 한다

1세대를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는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기된 과제들을 현실정에 근거하여 더욱 풍부화하고 구체화하였을 때 차기 주체들이 해야 할 일과 방향성을 올바르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4. 마치는 말

88, 89년을 중심으로 연세 여학생운동을 평가하면서 아직까지 조직건설 투쟁이 완결되지 못하였고 주체의 정립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년 동안의 활동을 통하여 반미구국운동의 대중화를

위하여 각계급계층 여성운동으로 진출해 나가는 여성운동의 조직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소박하게나마 깨달아 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90년은 기간활동의 결과물들을 토대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전진>을 약속해야 한다. 이것은 막연한 사업구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학생운동 주체의 근본적인 혁신과 투쟁을 필요로 한다.

부족한 글이나마 여학생운동 발전에 기여하는 소고가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편집부의 한계로 인해 <원주캠퍼스 여학생부 활동>, <여학생운동가의 사회진출모임>을 담아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후 이부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90년

여학생 취업문제에 대하여

1. 대졸여성 취업난의 현실
2. 취업난의 근본원인
3. 현실적 극복방안-좌담

요즘 항간에 떠도는 신조어 중에 '취직'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졸업을 눈앞에 둔 여대생들이 취업하려다 못해 결국 취업대신 평생직장이라는 시집을 간다는 말이란다. 대졸여성의 취업난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듯하다.

89년에 여학생처에서 우리대학교 졸업반 여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면 단과대나 과에 상관없이 90%이상의 여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 취업율은(89년 2월 기준) 여학생이 특히 많은 문과대나 가정대의 경우, 대학원 진학이나 일시고용직 등을 제외한 순수 취업율이 30%를 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대학교 졸업생의 일반적인 취업율이 70%임에 비교해 볼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며 미취업자의 대부분이 여학생임을 알려준다. 취업난의 문제는 물론 여학생만의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고학력 실업율이 증가하면서 남학생들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그러나 고학력 인력이 요구되던 시기에도 있어왔고 최근에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는 대졸여성의 취업난은 단순히 인력수급구조의 변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대졸여성 취업난의 근본원인과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1. 대졸여성 취업난의 현실



여대대생들이 취업이 잘 안된다고 한다.
신문에서도 몇면 특집 기사를 내고
TV에서도 많게는 얘기한다.

무엇보다도 내가 취업이 안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
우수한 성격으로 군·공·교를 나와서
열심히 대학생들을 해聘된 내가
못하 실업자가 될 형편에 놓여있는 거다.

그대...
문제야...

문제는 문제!



남학생도 취직이
안되는데...
저는 실업이나
가난에 어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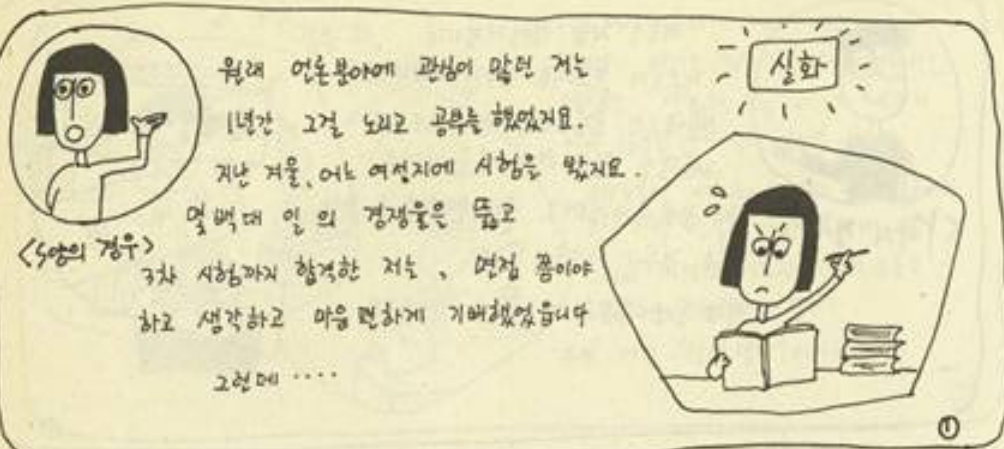
교수님께 취직 부탁을 드려라 갔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취업문제에 있어서
2순위라는 거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 나쁘다. 왜? 왜?

그러고 서경이라는 (계절!) 중매사가
왜 취업 때문에 놓여져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여성의 취업' 이라는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
것일까?



원래 언론 분야에 관심이 많던 저는
1년간 그걸 노리고 공부를 했었지요.
지난 겨울, 어느 여성지에 서함을 받지요.
몇 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3차 시험까지 합격한 저를, 면접 준비야
하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①



평소 입면 옷을 단정히 빨아 다려 입고간
저는 경장 (처마) 을 차려입은 다른 사람
들은 하고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별 상관 있은나 했지요.
기자로서의 능력은 평가 받는 자리에서
척마를 안 입은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제 '오판' 이었습니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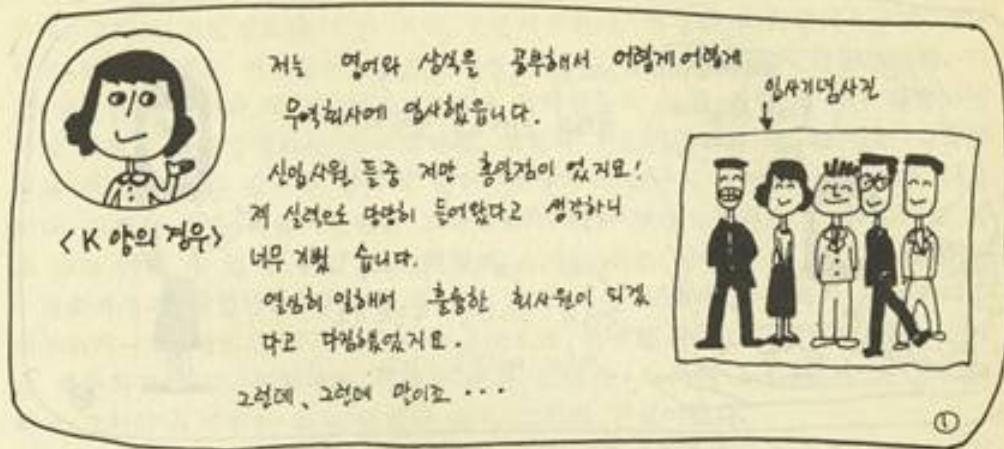


바지를 입대!
바지를!

와! 대단하네!

구박만 잔뜩 받고
면접생을 나왔습니다.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저는
낙방을 했던 거지요!

③



저는 영어와 상식을 공부해서 어떻게 어떻게
무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신입사원 들중 저만 총연장이 있었지요!
제 실력으로 당연히 들어왔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뻐 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회사원이 되겠
다고 다짐했었지요.
그런데, 그런데 만이죠 ...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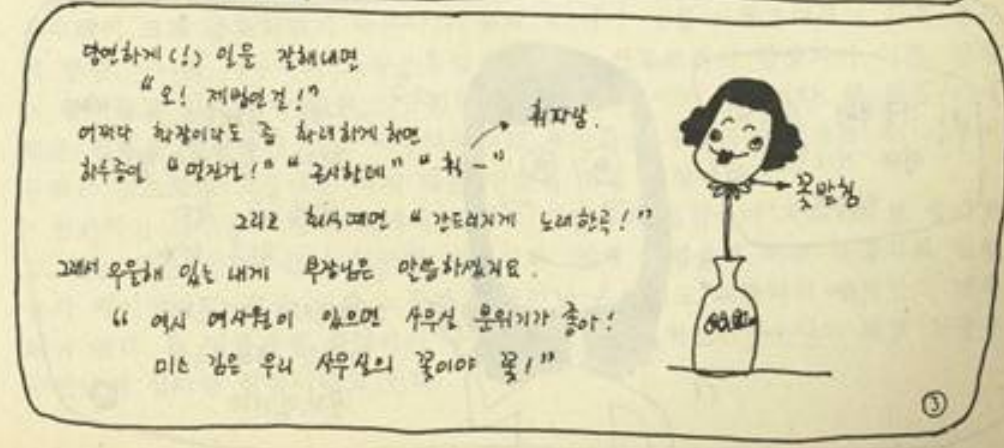
커피? 울루!!

김미숙씨!
나는 커피!

나도!

똑같이 입사한 남성들은
열심히 일들을 하는
시간에, 저는
커피 하고 분사하고
사투리를 해야 했지요.
부장님은 나보고 놀이기에
일하니 좋지 않다고
만들하시기로
하,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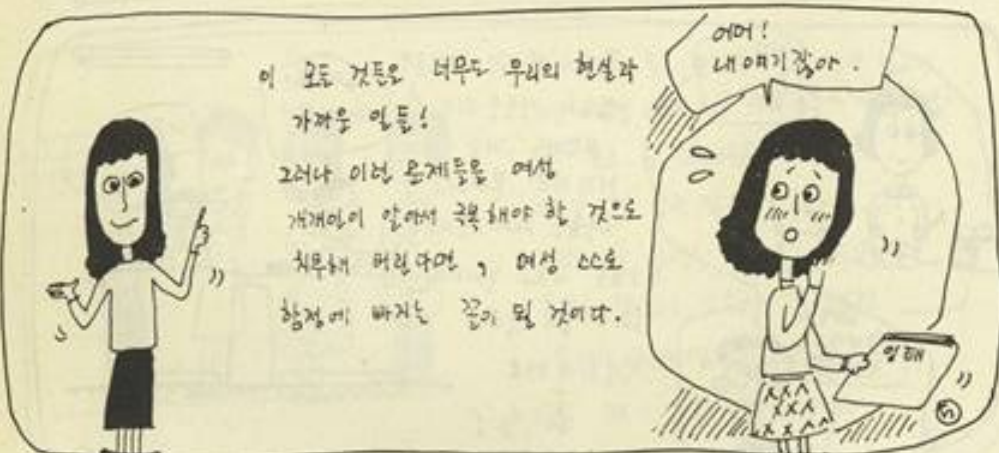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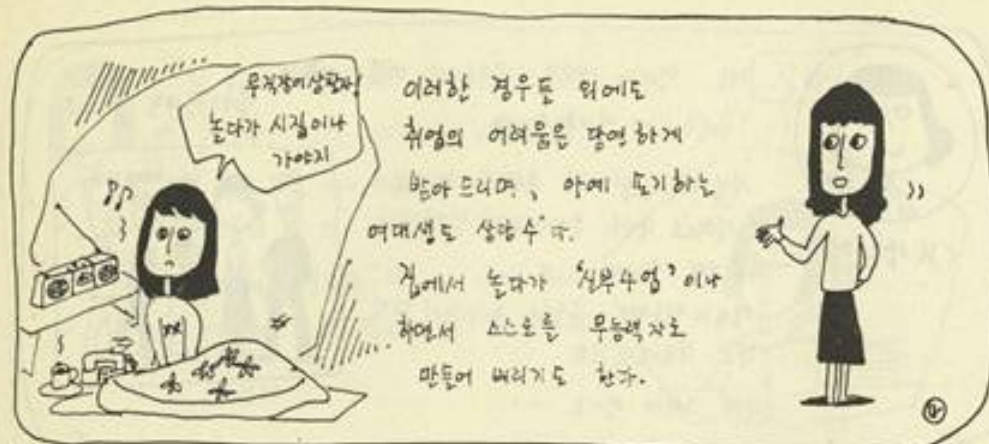
⑤



당연하게 (!) 일을 잘해내면
"오! 제발영걸!"
어쩌다 화장이라도 좀 하려하게 하면
하루종일 "명자!" "귀사한테" "취-"
그러고 회사때면 "간드러지게 노래하구!"
그래서 우유하게 있는 내게 부장님은 만뽕하셨습니다.
"여시 여사원이 있으면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
미는 김은 우리 사무실의 꽃이야 꽃!"

꽃만형

⑥



2. 취업난의 근본원인

여학생 취업 문제에 대하여 85

취업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그리고 취업정보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여성의 사회참여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실제로 여성들이 각 방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높은 취업 욕구나 타분야에서의 여성의 활동양상과는 반비례하게, 고학력 전문인력이라 할 수 있는 대졸여성의 취업의 문은 갈수록 좁아져 흔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된다. 그래서 많은 대졸여성들은 고학력과 무관한 단순노동직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는 어쩔 수 없이 '취직'으로 떠밀리려 가기도 하는 것이다.

대졸여성의 취업난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 혹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치부되거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도 해결을 위한 조직적·사회적 노력 없이 개인적 노력에 그치거나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고학력 취업난 속에서 대졸여성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취업차별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주체들이 올바른 해결방법을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점증되는 고학력 실업률

최근 몇년동안 실업률이 점차 하락해온 추세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89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88년의 2.5%에 비해 0.3% 높아진 2.8%를 기록하고 있다. 실업자중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49%를 차지, 대졸자의 실업률이 평균치의 2배인 5.4%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89년 하반기 신규인력채용은, 현재 활황을 보이고 있는 금융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줄어들어 대졸자의 취업난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 신규 경제활동인구의 흡수력이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생산직 뿐만 아니라 사무직의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근로조건이 향상되어 이직, 전직이 줄어들고 있으며, 기업이 신규인력채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즉 결원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기 보다 사무자동화로 추진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바, 사무자동화는 앞으로의 고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전반적인 실업률의 증가 속에서도 특히 대졸자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력수급의 불균형 때문이다. 전체 실업률에 비해 대졸자의 실업률의 배이상이고, 고졸 이하 노동자의 구인난 속에서도 대졸자의 구직난이 계속되어 왔다. 또 인문계열 졸업자의 구직난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분야의 몇몇 직종은 구인난이 심각한 현실이라고 한다.

이는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사무·전문·행정)의 일자리가 제한적인데 반해 관련 전공의 대입정원이 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했고 그에 따라 졸업자도 크게 늘어난데 따른,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다. 대졸자의 일부가 학력과 무관한 택시기사, 자영 등으로 취업하고 있지만 수급구조의 전환이 없는 한 취업제수·삼수생까지 누적되어 해마다 취업의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파행적인 인력수급구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서부터 비롯된다.

60,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했던 단순 육체노동력을 저임으로 고용해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저학력이라는 저임의 명분과 이들을 관리할 관리·사무직 인력이 필요했다. 관리 사무직에 고학력자를 고용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주고 화이트칼라, 중산층 등의 허위의식을 주입함으로써 통제의 기를을 강화시켰던 것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임노동력으로 간주되어 경제적, 사회적 적당한 인정과 댓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사회적 인정과, 정당한 댓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해서 사무직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생산적 노동자가 되기를 기피하고 대학졸업장을 따기 위해 치열한 입시지옥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자동화의 영향으로 정신노동, 육체노동의 구분이 점차 멀어져가고 사무직 인력의 공급에 비해 수요는 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력간 임금격차의 명분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학력 실업난의 해소와 그 전제로서 입시난,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모든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댓가가 지불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저임금의 해소 및 학력간 임금격차가 해소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대졸여성의 취업난

대졸여성의 취업문제의 심각함도 위에서 지적한대로 일반적인 고학력자 취업난과 그 맥을 같이한다. 즉 근본적으로 경쟁관계를 통해 산업예비군(실업자)을 생산해내는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가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에 더하여 고학력자의 수요감소가 증첩되어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대졸여성 취업난이다. 이러한 근본원인 속에서 미취업(실업)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지만 왜 고학력 여성에게 산업예비군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전가되는가에 대한 까닭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지적했듯이 고학력자에게 허위의식을 주입시켜 저학력자와 분리시켜낸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차이를 차별로 전화시키면서 여성은 저임금을 받아도 된

다는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는 것이다.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한 산업규모의 급속한 팽창은 노동과정에서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 근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정밀함과 인내력만이 요구되는 단순노동분야를 급속히 확대시켰다. 생산이 기계를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생산과정이 단순화된 노동분야가 확대되어 별다른 숙련이나 육체적인 힘이 크게 필요치 않게 되자 이러한 단순노동에 적합한 미숙련 노동력은 산업예비군을 형성하고 있던 여성으로부터 뚝뚝으로 대량 구하게 되었다.

미숙련·저임금 노동에 여성의 노동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노동력에 대한 저임금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산업예비군을 필연적으로 창출해낼 수 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여성의 역할이다.

여성산업예비군의 존재는 노동력의 수요, 공급에 적절하게 동원되는 안전판의 역할도 하지만 남성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만약 남성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면 자본가는 '너희들보다 저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있다'라고 협박하면서 남성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를 묵살하고 저임금을 강요한다.

여성노동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미숙련·저임금 노동력을 요구하므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노동력은 거부당하는 것이다. 대졸여성에게는 대졸남성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부담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채용을 기피한다.

우선 모성보호의 비용부담이 많다는 것이다. 여성은 인류의 재생산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 이 일은 단순히 여성의 일이 아닌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원을 낳아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시켜서 사회의 노동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육아와 가사노동은 여성의 역할로 규정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여성에게 무보수 노동을 하도록 전가시킨다. 그러나 탁아소를 설치하고 수유시간의 공급, 생리휴가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가사노동의 영역은 사회화되어야 한다.

또다른 이유로 드는 것이 여성은 근무연한이 짧아 기술축적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용을 꺼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에게 지워질 산업예비군의 임무를 위해서 유포시킨 '여성의 직장 은 가정'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장된 것이다. 여성은 평생 노동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하는 존재, 결혼하기 전까지만 일하는 존재로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의 직장이 가정일 수 있는 집단은 일정정도의 학력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의 직장이 가정일 수 있는 집단은 일정정도의 학력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의 직장이 가정일 수 있는 집단은 일정정도의 학력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의 직장이 가정일 수 있는 집단은 일정정도의 학력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의 직장이 가정일 수 있는 집단은 일정정도의 학력과 있다.

때문에 기혼, 미혼을 가릴 것 없이 평생 노동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여성의 직장은 가정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편없이 낮은 임금으로 온갖 일을 닦치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에서 본대로 대졸여성의 취업난은 전반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도 중층적인 원인을 해결하여 여성노동의 저임금구조를 깨뜨리고, 여성의 평생노동권을 쟁취하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여성 취업을 가로막는 장벽이 거대하고 구조적인 만큼 여성들도 조직적으로 힘을 모아 온갖 이데올로기와 제도적 장치들을 부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인 노력의 하나로써 89년 서울지역 여학생대표자협의회가 꾸려낸 취업대책위원회는 여성취업차별 해소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취업대책위원회가 꾸려지게 된 경위와 여학생취업차별 철폐를 위해 벌였던 활동을 되돌아보며, 대졸여성 취업난의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우리 여학생들이 평생노동권 쟁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토론하기 위해서 좌담을 마련하였다.

3. 좌담-취업난의 현실적 극복방안

▲ 참석한 사람

김보성 (2대 총여학생회 교육부장, 취업대책위원회 담당자, 도서관 86)

유승희 (3대 총여학생회 여성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식품공학 87)

서현주 (서울대 총여학생회장, 서울지역 여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권한대행, 서어서문 86)

김성희 (『잉태』편집부장, 국문 86)

▲ 열린 때 : 1990년 1월 31일

▲ 열린 곳 : 총여학생회 『잉태』편집실

▲ 정 리 : 『잉태』편집부



김성희 : 이렇게 여학생들의 취업문제를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학생들의 취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여학생 취업문제에 대한 현실적 극복방안을 지난해(89년)여대협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꾸려진 취업대책위원회(아래 취대위)활동을 중심으로 토의해 보고자 좌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취대위가 꾸려지게 된 의의와 활동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성 : 현재 여학생들의 취업문제는 성차별적인 사회의식, 비계획적인 경제구조, 대학내 남녀공학 문화의 폐해, 가사노동의 문제 그리고 기업의 고용구조에 대한 문제 등이 맞물려 있는데 이러한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조직적 차원의 문제의식 속에서 조직적인 힘으로 싸워나가야 함이 취대위의 의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학생투쟁의 범주나 발전정도에 따라 여러 의의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대협이 여학우들의 명실상부한 대표조직으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여학우들 가장 현실적으로 답답해하는 취업문제, 즉 고학력인력임면서도 고용기회를 제한당하는 여학생들의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려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차적인 의의로, 여성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에 참여해야한다는 의식 속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한 노동자의식 함양, 자주적 권리쟁취를 위한 여학우들의 연대의식고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취대위건설은 지난해 4월부터 여대협차원에서 고민되기 시작했으나 중앙에서 튼튼한 준비를 이루어내지 못하였으며, 여름방학때부터 9개 학교 주체들이 모여 취대위의 위상과 의의, 그리고 투쟁목표들을 처음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속에서 여성노동과 취업의 의미, 그리고 각기업 채용계획을 연구하면서 조직적인 선전작업을 이루어냈고 그리하여 지난해 10월 20일에는 공청회를 열게 되



보성 :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조직적 차원의 문제의식 속에서 조직적인 힘으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었습니다.

성희: 여름방학이후 취대위에서 잡았던 활동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성: 구체적인 목표로 잡았던 것이 취업차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부분과 조직적 투쟁의 결과로 차별의 벽을 부순 모범을 창출하여 여학우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불어넣는다는 부분이었는데, 목표획득을 위해서 계열조직의 강화와 기업방문투쟁 등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투쟁을 통해 각 학우들의 조직적 대중적 토대를 다져나가는 문제, 여학생처의 강화 그리고 취업의 심각함을 사회여론화하는 문제등이 구체적 목표로 잡혔습니다.

성희: 다섯가지의 획득목표 속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졌으리라 봅니다. 신도리코 방문투쟁이나 취업차별 철폐를 통한 공청회등이 그 예가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서현주: 공청회는 대중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취대위의 첫 사업으로서 전체차원으로의 첫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의 생산, 차별상황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위해 제기된 사업이 공청회라고 할 수 있으며, 전반적 취업실태, 억압이데올로기 그리고 여학우들의 조직적 문제에 대한 선전작업은 개별학교로 진행되었으며 여대협 차원에서는 10개학교 정도가 결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대협차원에서 제기된 첫 대중적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성과는 획득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이후 사업은 기업방문투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기업에 대한 집중공략을 통한 정취를 목표로 삼아 계열주체에 의한 조직적 성과를 바탕으로 전망을 세우려 했으나, 조직주체가 꾸려지지 못하고 힘있게 밀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잡았던 목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 기업에게서 올해 당장부터 대졸여사원의 공채자격부여, 이외 획득후 여학생들에게 성과를 주고 취업이 가능토록 한 처음 목표설정 자체가 오류였습니다.



현주: 신도리코 방문투쟁은 여성의 문제가 사회와 기업의 책임의식으로부터 동떨어질 수 없음과 기업가의 논리를 깨닫게 해준 중요한 기회가 되었죠.

목표를 수정하여 8개 기업의 고발조치등의 사후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예상외의 큰 반응을 얻어 대중적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도리코방문투쟁은 여성의 문제가 사회와 기업의 책임의식으로부터 동떨어질 수 없음과 기업가의 논리를 깨닫게 해 준 중요한 기회가 되었죠.

성희: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이란 것이 고발을 당했을 때 기업에겐 벌금부과에 그치게 되어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을 강화하여 법적 제재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보성: 기업고발전에 연결시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법조문에는 벌금부과의 세칙이 있지만 고발을 당해도 벌금을 꼭 안내도 된다는 겁니다. 즉 법차원에서 암묵적인 통과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부분에 대한 투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벌칙강화외에도 남자·군필또는 면제자에 한정하는 경우, 남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 직급을 달리해서 뽑는 경우 등 모집·채용시 남녀차별의 구체적 행태를 명시할 것과 남녀고용평등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감면등의 현실적 지원을 할 것,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의 요구가 있을 시 필기·면접시험의 공개 의무를 명시할 것 등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선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현주: 지난해 11월 14일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8개사를 고발하여 사회여론화하면서, 시행령마련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약 만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무제 2 장관의 면담투쟁시 대중의 의견으로서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11월 28일 면담팀을 정무제 2 장관실에 보내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정부의 여성정책제와 집권당에의 여대생들의 불신을 공개적으로 여론화시키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관련부처가 많아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이 어렵다." "취업문제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변명을 했을 뿐 요구를 묵살당했을 뿐 아니라, 50~60여명의 여학우들이 세종문화재단에서 소집회형식으로 기다리다 전원 강제 연행되어 담장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싸움은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묵살하는 국가기구의 속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조직적 힘에 대한 확신과 그 싸움이 정부와의 접촉기회가 되었음을 의외로 남긴 채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면 투쟁으로 제기된 것이 고발건과 시행령개정건의 두가지로 결집되는데 각각이 올바른 방식이었는가, 어떻게 하면 목표를 쟁취할 것인가 등이 여대생들의 취업난이 해결될 방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속에서 다시금 평가될 것 같습니다. 현정권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정책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대중적 토대를 갖고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시행령개정을

설정했을 때에도 일정정도의 오류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쟁의 경험 이 없고 대중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일관되게 집중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즉 고발하자마자 시행령개정을 요구하는 등 일관성없는 사업으로 말미암아 상층의 사업으로 대중과 분리되는 오류를 낳고 말았습니다.

성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대생들이 힘을 모아 집단적으로 밀어부쳤을 때에만 조그만 개선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요. 여대생들의 힘을 조직적으로 결집하려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서명운동밖에 없는데 이것조차 홍보가 안되고 여학우들의 힘을 모아내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학우들을 묶어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승희: 지난해 취대위사업의 문제점이었다고 지적되는 것이 취업문제가 총여학생회차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자 대중적 요구를 잘 반영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들이 대중과 동떨어져 사업을 벌이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총여학생회의 공간조직이 있는 학교에서조차 운영위원회의 선을 타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벌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취업주체가 과·단대 주체를 꾸리는 일부부터 즉 조직화문제까지 다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여학생회사업은 중앙주체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결의되고 그 사업이 여학생 공간조직을 타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여학생회에서 집행부가 논의하여 그것이 공간조직을 타고 내려가고 공간조직을 통해 집행부가 강화되는, 즉 조직화사업으로 귀결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지난해에 노정되었던 오류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성: 지난해의 경우 공청회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학우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해서 공청회가 여론화시키기 위한 작품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취업문제가 사회적으로 여학생들의 이해요구에 밀접해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치고 들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경험의 축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그속에서 큰 성과물로 남는 것은 처음엔 취대위주체로 결합했던 학교가 5개 학교 뿐이던 것이 사회여론화와 학우들의 반응을 통해 학우들의 요구가 증명되면서 각 학교의 총여학생회의 중심사업으로 취업문제가 자리잡게 되어 수많은 이들이 고민하도록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주제들부터 이 사업이 어떠한 의의와 목표를 가지는가, 여학생들이 왜 취업이 안되는가 하는 근본적 물음부터 따지고 들어가면서, 투쟁의 경험속에서 물론 오류와 한계도 많았겠지만 전반적으로 여학생주체들이 취업문제에 대해 새로이 각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학우들의 조직화와 내용을 생산해내는 문제가 풀릴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취대위 주제들이 그러한 평가속에서 대안과 해결책은 나오지 못했지만 차기 주

성희: 올해 취대위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로는 취업에서 채용때부터 규정된 남녀차별을 철폐하는 것과 쿼터제를 실시한 것 등입니다.



체들의 고민내용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주: 아까 정무제 2 장관에게 요구했던 것 중에서 10%이상의 쿼터제의 제도적 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이상의 쿼터제가 우리의 원칙-여성해방의 원칙-에 위배되지않는가하는 문제제기가 있으나 이제는 쿼터제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야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희: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쿼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회평등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만큼 여성의 사회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쿼터제를 통해 의무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쿼터제도 기업·직종별로 달리 책정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승희: 올해 취대위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로 학우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취업에서 채용때부터 규정된 남녀차별을 철폐하는 것과 쿼터제가 되더라도 면접에서의 불리함을 제거하기 위해 쿼터제를 실시할 것 등입니다. 쿼터제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봐야할 것 같은데요, 10%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재학생중 여학생의 비율로 정하든지, 공대와 같이 남학생들이 많이 있는 데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책정한다든지 하는 좀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취대위밑에 연구소조를 둔다든지하여 연구사업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사업과 함께 연대투쟁을 계획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등 여대협중앙에서 원칙을 고유하고 각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중사업을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보성: 지난해의 경우에는 연구와 정책생산과 집행 모든 것들을 취대위에서 담당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선을 제대로 타지 못하여 집행자체도 힘들었지만 취대위에 대한 조직적 확산 또한 힘들었기 때문에 취대위원장이 여대협부회장을 겸임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와 정책생산단위인 취대위가 제대로 결합되는 방도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연구가 더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성희 : 여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어서 취대위를 우리의 조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내오도록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희 : 취대위사업이 전 여대협 차원에서 진행되고있는데 각 학교별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보성 : 중앙대가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별로 주제를 꾸리고 취대위사업을 같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겨울방학동안에는 여성문제와 함께 전체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교육과 취업대책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여 올해에는 주제생산을 더 많은 과로 확장시킬 계획인 것 같습니다.

중앙대와는 달리 타학교에서는 취대위 책임주체조차 꾸리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많은 사람들을 주제로 내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중적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을 관건으로 하면서 대중적으로 쟁취해낼 수 있도록 투쟁형태를 계획하고 여학우들의 힘을 모아내는 것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희 : 취대위사업이 이리이러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그러한 한계가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일반학우들에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결과물은 미비하고 결국 자기의 조직으로 생각지 않는 것 같은데, 여학우들에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내오도록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성 : 여대협차원에서 지난해 벌였던 사업들에 의해 돌출되는 전체차원의 모순도 많지만 취업문제를 둘러싼 주변의 여러 문제도 많습니다. 과에서의 남녀차별문제등으로부터 여학우들을 규합해내면서 여학생취업을 지도하는 과수준의 교육과 기업실태·정보전달 또한 과차원의 싸움으로 규정될 수 있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전망의 교육과 정보전달을 담당하는 '취업대책과'의 건설이 우리 학교의 투쟁목표로 설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학교의 경우 여학생치가 있으므로 싸우기에 유리하며, 낮은 수준으로부터의 싸움을 일궈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희 : 그런데 문제에 부딪힌 것이 그렇게 싸움할 때 싸움이 대상이 남학우들로 귀결되면서 남녀간의 싸움으로 되어 남학우들의 반감을 살 우려가 있다는 것

입니다. 사실 취업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여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학력인력이 높고 취업률이 높아만가는 현실에서 남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취업은 커다란 문제일진대 어떻게하면 취업문제에 있어서 남녀학우의 연대를 이루어낼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성 : 여학생들이 취업문제로 뭉쳐서 싸우다보면 남학우들도 규합, 취업대책의 문제가 남녀를 한 전선으로 뭉치게하는 구심점으로서 여학생취대위가 전체차원의 취대위로 발전하리라 전망하고 있으며, 남학우들의 반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 취대위를 사회진출추진 위원회와 연계하여 취업준비의 소모임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승희 : 저희 식품공학과 4학년의 경우 사회 진출을 통해 민주적 소양을 쌓아야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나름대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볼 때 사회진출추진위원회의 문제는 대중과 괴리되어서는 안되며 항상 대중과 같이 호흡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성 : 소모임은 과별로 모이는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가장 기초적인 과단위에서 대중적 기반이 마련되어 중앙의 지지·지원이 결합되고, 그리하여 여학생조직의 전망을 일구어내는 과제가 투쟁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성희 : 예, 지난해에는 여학생 취업난의 문제를 조직적으로 풀기 위한 취대위사업이 처음 시작한만큼 한계와 오류를 보였고, 문제제기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문제제기의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성과물을 얻어내어 보다 많은 여학생들이 사회적인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올해 여학생 취업대책을 담당할 주제들의 의욕적인 분투를 기대하며 이 좌담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5

● 잉태 글모음 ●

머릿속에서 빙빙 돌기만 하던,

혹은 손으로 꼬적어온 하던

글조각들을

힘차게 꺾매어

잉태에 넣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잉태는 살아있는 당신의 글발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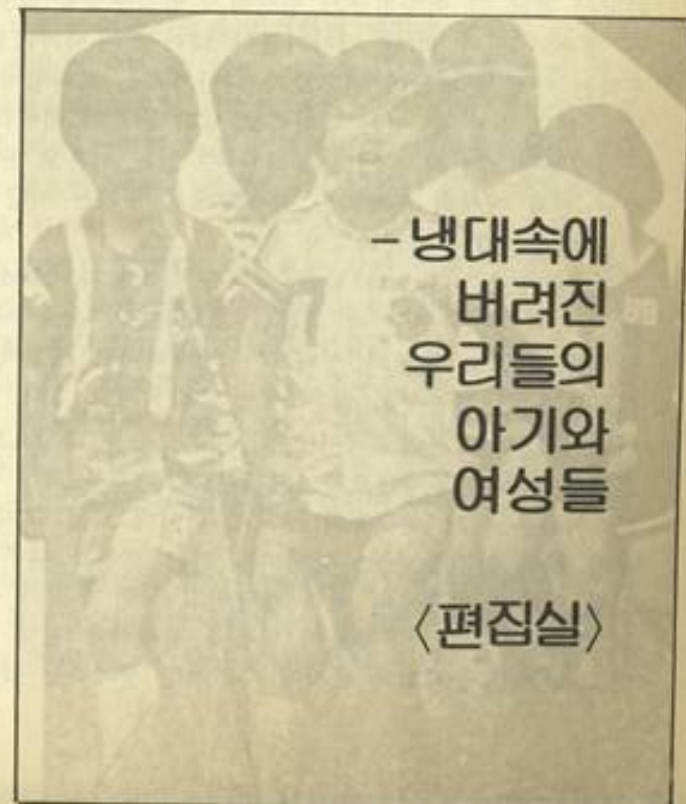
원고 낼 곳: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 잉태편집실

※ 적당한 글값을 드립니다.

탐 방

홀트아동복지회와 애란원을 찾아서



- 냉대속에
버려진
우리들의
아기와
여성들

〈편집실〉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88년 당시 미국언론들은 한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우리나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보도했다. 그런 화제거리 중에 외국인들은 물론 한국인들까지도 충격을 주면서 수차례 한 기사가 있었다. 그것은 "포니와 베이비 수출" "아기수출 세계 제 1위 한국"이라는 해외입양에 관한 문제였다. 그때부터 국내언론은 해외입양문제를 이곳저곳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외입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해외입양아 문제는 단순히 민족의 수치이며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치부될 것이 아니다. 해외입양되는 많은 기아, 미아의 75%정도가 미혼모들의 아기이고 또 그 미혼모들이 성관계가 문란하고 정조관념이 희박한 여성들이라고 손가락질하기에는 너무나 그들로서는 억울한 점이 많다. 아기를 낳는 상태까지 가는 여성의 대다수는 성에 대한 지식이 무지하고 중절수술 비용조차 구하지 못하는 딱한 경우가 많고, 미혼모가 있다면 거기에 관계된 미혼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부는 대개 아기나 미혼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결혼 전에 아기를 낳는 책임을 미혼모 혼자서만 지고 사회적 냉대를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아는 친구나 선배들에게 "누가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져서 결국 그 여자친구가 임신해서 중절수술을 받았다더라"는 등의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이상 흥미거리로만 남아서는 안될 것이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미혼모와 나아가서는 해외입양문제와 연관이 된, 바로 우리 자신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개인의 문제로 돌려질 수 있는 미혼모 문제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전체 여성의 문제라는 인식속에서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구체적인 여성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미혼모의 발생 배경을 살펴보자.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의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부모의 성태도가 폐쇄적일수록, 그리고 본인의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피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인구보건 연구원이 서울 시내 3백 10명의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혼모의 54%가 공장근로자이고 37%의 미혼부 역시 공장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개 성교육의 부재로 피임에 대해 무지하거나 임신초기에 중절 비용이 없어 아기를 낳는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결혼전에 임신한 여자가 미혼모의 원래 개념이고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미혼모들이 또 그와 연관된 미혼부들이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이런 사실들은 성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단순히 우리

는 그 당사자인 미혼모와 미혼부의 개인적인 도덕성의 타락이나 책임성의 부재를 꾸짖을 수 만은 없는 것이다.

나이가 점점 어려워지는 미혼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성개방 풍조와 함께 사회적 도덕성이 날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 성개방풍조와 사회의 도덕성 실추는 해방이후 서구문화(특히 미국)의 왜곡된 형태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건강한 전통문화까지도 천시한 사회적 흐름과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80년대들어 국민 우민화 정책으로 사용된 3S정책도 큰 작용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모든 개인사를 정치상황과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그 당시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가짐을 볼때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이제 임신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미혼모들이 어떻게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임신한 사실이 남들에게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 미혼모들은 허리를 졸라매고 직장일이나 자기가 하던 일들을 대개는 계속한다. 그러다가 점점 배가 불러 자기의 일들을 계속 못할때는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자기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고 팔고나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입양기관(우리나라에 입양법인단체는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4군데가 있다)에서 상담을 하게 된다. 상담을 몇 차례에 걸쳐 한 미혼모들은 대체적으로 아기를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입양기관 산하에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기거하며 아기를 낳기도 하고 또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기거할 수 있는 자선사업단체(예를 들어 애란원)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애란원의 경우는 미혼모 제한 수가 30명 정도로 미혼모들은 일정한 프로그램하에 자수나 꽃꽂이 등을 배우며 같이 생활하는데 모든 비용은 무료이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재단쪽에서 대주는 돈과 바자회등을 열어 미혼모들이 만든 작품을 팔아서 생긴 이익금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45%정도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애란원과 같이 미혼모보호 시설을 갖춘 곳이 서울에서 5군데 정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미혼모의 수에 비해 굉장히 부족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홍보도 덜 되어있고 남의 눈이 두려워 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어쨌든 미혼모들은 그 곳에서 생활하면서 아기에게 대한 친권을 거의 포기하게 된다. 때문에 아기는 낳자마자 입양기관으로 전해지고 모든 아기에게 대한 문제는 입양기관에서 전담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아기들은 해외입양 아니면 국내입양의 순서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1951~88년까지 38년동안 해외입양된 아기는 무려 10만여명인데 반해 같은 기간 국내입양은 2만 8백여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5공화국시절에 해외입양고아는 전체 해외입양아 수의 반에 해당되는 5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해외입양아가 국내입양아 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법률적으로 북한이나 몇몇 제3세계 국가와 영국, 일본 등은 아기의 해외입양자격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70년대까지만 해도 해외입양기관에 대해 적용하던 2대1쿼터제-국내입양을 2명시켜야 해외입양을 1명시킬 수 있다-를 폐지, 82년 이후 해외입양은 사실상 완전 자유화되었다. 이것에 발맞추어 해외입양알선기관들은 현실적으로 국내입양보다 10배가량 수익성이 더 좋은(?) 해외입양에 더 힘을 쏟게 된 것이다. 이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입양기관에서 아기를 해외입양시킬 경우 기부금을 5천달러정도 받는데 그것은 각각 현지 입양기관, 한국측 입양기관, 아기 데리고 갈 항공료로 나뉘어 진다. 그런데 대개는 호송인 1명에 3~4명의 아기를 함께 데리고 가기 때문에 항공료에서 엄청나게 많이 남는다는 것이다. 보사부 감사자료에 의하면 3개 기관의 입양호송비가 86~88년 3년간 75억원을 남겼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입양 경쟁은 무척 치열해 직원에게 할당제로 입양아동을 구하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미혼모와 상담할 때는 의뢰 아기의 친권을 포기하도록 이야기 한다고 모 아동복지회 노조측에서는 이야기한다. 해외입양 후 입양아의 국적취득여부, 양부모 가정의 성장환경, 사망여부 등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도 각 입양기관이 지난 3년동안 해외입양시킨 아기들 중 약 50%가 국적취득여부가 미확인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사후관리도 대체적으로 잘 안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입양이 성행하고 국내입양이 부진한 중요한 이유 중의 또 하나로 입양하는 부모들의 아기선택기준이 그동안 너무나 까다로웠던 점도 들 수 있겠다. 홀트아동복지회 상담요원에 의하면 그들은 아기부모의 학력사항, 혈액형과 아기의 정신결함을 따지고 예쁜아기들을 위해 입양이 어려울때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들 경우는 미리 태어날 때부터 신체가 부자유하고 정신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아기를 대상으로 입양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훌륭하게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외입양을 나쁘게 보는 태도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충분히 설득력있는 이야기이다. 이것과 연결해 국내입양에 대한 무척 희망적인 모습들도 보인다. 최근 입양 신청자 4백명을 대상으로 카톨릭사회복지회가 설문조사한 결과, 혈통을 중요시하고 남아를 선호하고 입양사실에 비밀을 요구하던 일반적 의식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청자의 63%가 여아를 원했으며 무자녀가정이 81%로 아직 많은 편이나 종전과는 달리 친자녀가 있는 가정도 18%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이 35세미만인 가정이 전체의 66%나 돼 젊은층에서 "남의 아기를 어떻게 키우느냐"는 기존인식에 큰 변화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 하나 우리를 호 못하게 하는 것은 해외입양의 무분별한 반대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으로써 아기와

미혼모보호의 움직임이 민간단체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카톨릭사회복지회는 "우리아기는 우리가 돌보자"는 구호아래 국내 입양만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 법인단체를 설립하고 사랑의 부모찾기운동의 일환으로써 영아 일시위탁시설인 성가정입양원을 세워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뜻있는 작가나 교사가 「사람사는 정을 심는 모임」이라는 이름하에 미혼모가 키울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육아시설을 마련해 놓고 공단지역에 미혼모상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미혼모 보호와 방지대책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해외입양문제는 미혼모 문제가 해결될때 보다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아직까지도 미혼모나 해외입양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써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 정부가 뼈아픈 반성 속에서 확고한 입양정책과 구체적인 미혼모 보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경쟁이 날로 심해지는 해외입양기관을 하루 빨리 통제합시킴과 하고, 사회복지법과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양부모의 자격기준(나이, 경제적 능력 등)을 완화하고, 이중 호적을 가진 입양아기들의 친자 입적이 가능하게 만들고, 입양가정에 혜택을 주어야 하겠다. 특히 모자복지법의 수혜대상에 미혼모도 포함시켜 미혼모의 임신 중절, 분만시의 의료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법조항에 명시해 놓아야 한다. 또 편모나 극빈부모, 미혼모가 아기를 낳은 후 기를수 있도록 자립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으로써 탁아소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둘째로 직장·학교·가정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올바르게 건강한 성교육 즉 단순히 성에 대한 지식과 순결의식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상태에서 행복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게하는 여성학과 관련된 분야들도 광범위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입양에 대한 전체국민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져야겠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경제적·사회적 질시대문에 아이에 대한 친권을 어쩔수없이 포기하는 미혼모에 대해 따뜻한 손길들을 보내야겠다. 그리하여아기를 입양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지 않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들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특히 중요시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미혼모예방대책은 물질만능주의와 연관된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있는, 성을 상품화시키는 퇴폐·향락적 분위기를 일소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인 문화들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여서 막연하게 들릴 지 모르지만 절대로 막연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80년대에 급격히 늘고 있는 인신매매법, 폭행을 가하는 폭력배, 폭력배는 아니더라도 결코 여자쪽에서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울 시키고 책임을 지지않는 몰지각한 남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미혼모 혼

자에게만 잘못을 뒤집어쓰게하고 남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직되고 건강하지 못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만연된 사회분위기등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미혼모들이 생겨나게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미혼모나 해외입양의 문제를 어쩌면 자기자신의 문제로 느끼지 못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귀에 자주 들리는 여대생미혼모, 군입대가 가까와오면 의폐 588에 들른다는 남학생들의 모순되고 왜곡된 생활태도(물론 전체를 마구잡이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그 나라안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건강하여야 하는 대학내에서의 성차별문화와 잘못된 여성상등이 미혼모등의 문제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나라의 젊은 여성들 중 다섯명중의 한명은 접대부, 흔히 말하는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볼때 가임여성 열명중 한명은 접대부이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원치않는 임신으로 중절수술을 받거나, 혹은 아기를 낳아 입양시키며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임신이란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그 상대방 남자는 임신 사실을 모르기도 하며, 안다 하더라도 상대방 여자에게도 책임을 맡기고 발뺌을 하고 만다. 대부분 성에 대해 무지하며, 피임방법조차 알지못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어떻게 손을 써 볼 수 없는 순진한 여성들을 일방적으로 죄인 또는 부도덕한 여성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부당하다.

성을 사고파는 이 사회의 병폐가 낳은 왜곡된 성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성은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따라서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여성과 성을 상품화시키는 사회가 미혼모와 버려진 그 아이들을 낳는 주범인 것이다. 낙태법의 입법을 두고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운운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얼핏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인간 특히 여성을 왜곡시키고 성을 제공하는 도구쯤으로 인식되는 이 사회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미혼모들은 더욱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게 된다.

진정으로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존중하는 것은 낙태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인간으로 보고 성이 상품이 아니라 인간적인 행위로 정착될때 가능하다. 이렇게 탄생된 아기는 그 부모가 결혼을 했건, 그렇지 않건간에 편견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한 법적 수속은 부모가 준비가 되었다면 즉시라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것이 버려지는 아이를 타고, 양부모를 찾아 해외로 실려가는 아이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잉태논단



- 합법정당 결성을 둘러싼 장기표·박노해 논쟁에 부쳐
- 통일운동과 여성운동

합법정당 결성을 둘러싼 장기표 · 박노해 논쟁에 부쳐

(민주화노동청년연합 사무국장)

김 종 만

—일은 다 벌어지고 이제 논쟁을 해야만 했나

박노해씨가 합법정당결성에 나선 장기표씨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글은 『노동해방문학11월호』에 원고지 4백매 분량으로 실려있다. 월간 『사회와 사상 11월호』에 실린 장기표의 글 「나는 왜 합법정당 결성에 나섰는가」에 대한 반박 형식이다. 『사회와 사상』이나 『노동해방문학』은 좋은 삶은 민족주의 진영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큰 월간지이다. 결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파문은 박노해씨가 장기표씨를 비판하면서 '장기표씨의 전략 수정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분노'라는 어떻게 보면 계급성이 투철하고 어떻게 보면 저널리즘에 영합하는 듯한 자극적인 제목을 붙인 탓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그동안 다 알면서도 서로 모르는 척해오거나 불분명했던 각주장의 내용이 분명해지면서 생기는 파급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논쟁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다니! 일은 이미 다 벌어졌다. 정당 만들겠다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었다. 그런데 비밀스럽게 논의를 하다가 이제 와서 사후추인을 요구하는 식으로 자기주장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와서 비판하는 것도 그렇다. 이런 면에서 박노해씨의 주장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충분한 논의와 광범한 합의의 과정인 전민련내에서의 치열한 노

현재의 압당한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체세력>으로 합법정당을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선투쟁과 사상투쟁이 전개되었습니까? 전민련 전산하단체와 소속회원들이 합법정당결성논쟁에 주체로 참여하도록 여러 수단과 회의와 방법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했습니까?", "단순히 뜻이 맞는 몇 사람들이 모여서 즉, 애당초 합법정당결성을 찬성하고 있던 전민련성원들만이 아닌 농민운동단체와 노동운동단체등의 주요한 민중운동조직을 참여시키도록 오랜 내부토론과 논쟁을 인내있게 조직하셨습니까?"(노동해방문학 68쪽) 장기표씨도 이에 대해서는 자신있는 대답을 못할 것이라고 한 박노해씨의 주장은 옳다. 최근에 나온 「민주화운동청년연합」기관지 『민주화의 길 22호』도 합법정당논쟁의 큰 문제점중의 하나로 논의의 비민주성을 지적한 바 있다. 기간도 별 차이가 없다. 기껏해야 2개월도 채 안된다. 그때 지금처럼 논쟁이 벌어졌어야 했다. 논의도 제대로 못하는 사이에 일은 다 벌어졌었다. 『민주화의 길 22호』에 쓰여진대로 활동가들은 '어어'하는 사이에 이미 합법정당결성은 추진되고 있었다. 일선에서 활동하던 수 많은 활동가들은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운동 지도부들이 내린 결성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엇인가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어버렸다. 전민련은 결성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민주적 절차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하는 민족민주진영으로서의 치명적인 문제이다. 결론이 아무리 좋아도 논의가 민주적이지 못하면 일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따를 텐데 우리 운동에 아주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합법정당 추진을 비민주적으로 처리했으니 문제가 안생길 리가 없다.

논쟁은 결정하기 전에 벌이는 것인데 결정이 다 된 뒤에 논쟁을 벌이니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 이글도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장기표씨와 박노해씨의 주장을 검토하며 이루고자 한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는 안새라?

장기표씨는 『사회와 사상 11호』에서 먼저 합법정당이 필요한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그러나 전혀 설득력 없게 제시하고 있다. 장기표씨는 합법정당이 필요한 이유를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으나 읽는 이의 편의를 위해 글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저 나가 합법정당을 만들겠다는 데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여기서 대체세력이 꼭 합법정당이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이 정치적 지도의 올바른 여부에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장기표씨등이 합법정당 결성을 호소하는데는 아마 다른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가장 큰 이유는 전민련으로 해보니까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추측은 장기표씨가 '상근인력 100명 이상이 필요하다', '조직의 위계질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한데서 전형이 드러나기에 할 수 있다. 전민련 뿐 아니라 민족민주진영에서 활동하던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서 이탈하고 전민련의 상근자도 모자라고 나아가 상근비 지급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합법정당이 아니고는 돈도 사람도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했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혀 설득력이 없는 논리를 가지고 합법정당을 추진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변혁운동은 사람 수만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로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은 원칙이며 끝까지 관철시켜야 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적 지도이다. 물론 합법정당, 전위에 관한 이야기도 해야 한다. 그러나 올바른 정치적 지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형식과 실무만 다루는 조직론은 유해하기까지 하다.

—무리한 주장에 따른 혼란

합법정당을 추진하는 쪽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보니 필연적으로 생기는 논리적 헛점을 공박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박노해씨로 대표되는 노동해방그룹의 정세 인식은 실로 급진적이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정당결성 추진세력의 잘못된 논리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상대적으로 그 정당성을 획득할 가능성까지 생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노해씨등의 주장은 타당한 면이 많다. 특히 원칙적인 면에서 그렇다. 박노해씨가 워낙 잘 지적했으니 몇구절만 인용한다.

현재제의 모순과 관련하여 "사회가 이처럼 혼란하다고 해도 정치와 행정이 제대로 되어간다면 조만간 혼란이 수습되리라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겠지만"이란 말은 신식민주국가독점 자본주의 체제가 필연적으로 가지고 오는 혼란에 대한 무의식적(?) 물이 해가 녹아 있다. '합법주의적 경향을 현실로서 수용하고' 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현실로서 수용해야 할 것은 막연한 다수 대중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인 합법칙적 역사발전의 경로에 따른 진리의 길이다. '평민당이 나 민주당이 제도권 정당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면 합법정당을 결성할 필요성은 줄어들겠지만'이란 말도 마찬가지이다. 평민당과 민주당은 제역할을 아주 잘하

조직의 규율이 대체세력답게 서고 각 민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조직의 형식이 어떤 것인가에 달려있지 않다

고 있다. 평민당과 민주당은 결코 민중의 당이 아니다. 이런 당에게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가정을 한다는 게 우습다.

이런 면면에서 장기표씨의 글에 대한 박노해씨의 지적은 거의 타당하다. 심지어 박노해씨가 분개하다시피 말하고 있는 합법정당의 인적자원에 관한 장기표씨의 견해, 즉 "현재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활동가들…… 이 합법정당을 통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견해는 수많은 민족민주운동가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든다. 합법운동은 비합법운동보다 더 어려우면 어렵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개운동을 하면서 운동의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비밀운동보다 더 어렵다. 전성으로 공개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 앞에서 비밀활동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까지 공개적으로 대변해야하고, 나아가 비밀활동을 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활동까지도 해줘야 한다. 그러기에 공개활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속에서 더욱 단련된 사람이어야 한다. 비밀활동도 지루하고 고통스러우나 항상 독재정권과 얼굴을 맞대고 활동하면서도 원칙을 잃지 않는 공개 지도자는 더욱 고통스럽다. 이

런 것을 이해하면 장기표씨도 운동에서 일단 쉬고 있는 사람을 합법정당의 인적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한다. 새로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되지만 무원칙하게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는 안된다.

—합법정당과 의회투쟁을 혼동하고 있다

합법정당을 추진하는 세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혼동하고 있는 것은 왜인가?

의회투쟁을 합법정당운동과 혼동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의회투쟁은 절대로 필요하다. 온국민을 상대로 민족민주진영의 대의를 널리 알리고 민족민주진영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여론을 청취하고, 나아가 독점자본가 집단의 음모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박노해씨의 말대로 의회에 진출한 민족민주진영의 의원들은 민족민주진영의 목소리를 의원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선전해야 한다.

국민들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과 같은 사회운동단체 (전민련등을 사회운동단체라고 부르는 것이 국민만인지 장기표씨도 그런지는 불분명하다. 장기표씨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처럼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민련과 같은 사회운동단체는 국민들에게 재야단체로 불리고 있다”는 구절이 그렇다. 그러면서 장기표씨는 바로 앞에서는 또 ‘전략단위’로서의 대체세력은 전민련과 같은 민중운동연합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혼란을 자아내고 있다)는 민주화투쟁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기는 해도 정권을 장악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장악하려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타당하지는 않지만 무시해서는 안된다. 나라 안팎의 많은 문제에 대처해 나가려면 적어도 상근인력을 1백명 이상 확보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합법정당일 때만 가능하다. 권력을 인수할 때가 되면 조직내에 혼선이 없어야 하는데 이는 위계질서가 뚜렷한 정당조직이어야 한다. 국민들이 민주화투쟁에 참여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지 않는 것이 승리할 전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은 대체세력이 출현해야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세력으로서의 합법정당을 결성해야 한다.

요약하면 이와 같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의문을 설새 없이 느낀다. 의문 중의 핵심은 “국민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대체세력의 출현인가 하는 것과 그 대체세력이 반드시 합법정당이어야 하는가”이다. 장기표씨는 『사회와 사상』에 실린 인터뷰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국민들이 5공청산, 전교조 인정, 통일운동등의 투쟁에 동참하지 않는 까닭은 승리의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전망은 대체세력이 있어야 생깁니다.”

결국 국민들은 승리할 가능성을 대체세력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노해씨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이 침체에 빠진 원인은 계급 역관계에 의한 퇴조정세 때문이지만 이를 역전시켜내지 못한 것은 ‘내부적 요인’ 때문이었다. 지금 민주화운동이 침체에 빠진 것은 올바른 투쟁방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체세력이라는 만능해결사만 들이대면 민주화운동이 활기를 띠고 국민의 지지와 참여열기가 뜨거워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꿈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장기표씨는 최초의 민주화운동이 침체한 원인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다. 전민련이 창립된 이래 민주화운동은 하강국면에 있었다. 우리 운동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현실과 괴리된 정세판이 첫번째 문제였다. 이는 전민련 신문 3호에서 9호까지 모든 제목이 천편일률적으로 “노퇴진 운동으로 집결”을 호소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여

장기표씨의 말은 신식민지국가 독점자본주의 체제가 필연적으로 가지고 오는 혼란에 대한 무의식적(?) 물이해가 녹아 있다

기서 재미있는 현상을 본다. 장기표씨의 합법정당논의를 상당히 원칙적인 입장에서 비판한 박노해씨 등의 견해가 사실은 상반기 민족민주진영의 투쟁을 급격한 것으로 몰아가는 데 크게 기여한 운동논리였다는 점이다. 합법정당논의를 정확히 비판한다고 해서 상반기의 운동원칙 까지도 올바르게 제시한 것은 아닌 셈이다. 다 알다시피 노동해방문학그룹은 급진적이다. 노동해방문학은 사실상 즉각적인 임시혁명정부의 수립을 선동했었다. 전략이 곧 전술이고 전술이 곧 전략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가? 광주·5공청산 투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대중의 투쟁을 조직해내지는 못하면서 운동권만 나서 ‘구속 전두환! 퇴진 노태우!’를 외치며 있었다. 통일운동도 마찬가지이다. 감상적인 통일운동, 반독재의 성격을 분명히 하지 못한 통일운동이 문제였던 것이다. 노동운동 또한 전노협은 건설한다고 해놓고 조직적 기반을 강화할 방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교조운동도 전교조의 주인인 교사를 조합에 가입시키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국민들이 전민련을 대체세력으로 인정하

지 않은 것은 전민련이 정당이 아니어서가 아니다. 전민련을 대체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전민련의 지도가 옳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옳다 옳지 못하다고 할 것 까지도 없는지 모르겠다. 전민련은 사실상 기층민중운동에 대해서는 지도를 포기해왔다. 정치투쟁도 주도면밀한 검토 속에 벌이지 못했다. 이렇기 때문에 전민련을 대체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도내용이 없어서 국민으로부터 대체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사회운동단체여서 대체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유로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압당한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체세력>이 출현해야 하기 때문’에 합법정당을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장기표씨는 전민련이나 민족민주진영을 대체세력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역량이 대체세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과 대체세력이 될 수 밖에 없는 세력이라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합법정당을 결성하려는 사람들 자신이 바로 대체권력을 담당하려던 사람들이다. 또한 전민련의 주요간부였던 사람들이다. 이사람들이 전민련과는 형식만

그런데 합법정당을 추진하는 세력이나 혹은 장기표씨 개인은 선전전의 차원 혹은 그 연장선상에서 의원수를 늘린다는 개념 보다는 현재의 4당체제의 분쇄——이 말은 장기표씨가 말로는 민중투쟁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의회주의에 빠져있다는 것을 밝혀준다——와 선거를 통한 많은 것의 획득이란 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장기표씨가 '앞으로 합법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선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그래서 선거로 진출하는 활동가들이 많아질 것인데 저자제를 놓쳐버린 후에, 새로운 정당을 결성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야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탈당케해서 합류하면 되리라'고 보는 견해가 있겠으나 그것은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될 뿐,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이 말만 놓고 보면 장기표씨가 민족민주운동가인지 의회주의자인지를 의아하게 여기게 된다. 우리는 선거때 야당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또한 그들이 민족민주진영의 활동가로서 보다는 충실한 보수당의 한사람으로 활동했던 것도 기억한다. 실로 합법당의 활동원칙은 민족민주운동 전체의 활동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순히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중요시해서는 안된다. 민족민주진영에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실현시켜나가는 의

회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마치 합법정당이 모든 것을 다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회투쟁'이지 '합법정당을 결성하는 것'이 최대과제가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실제로 의회투쟁의 강화방안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로도 알 수 있듯이 당의 이름을 붙이느냐 마느냐는 두 번째이다. 전선의 이름으로 연합의 이름으로도 의회투쟁을 왕성하게 벌인 경험을 볼 수 있다.

이 판단은 주제적 역량과도 관계가 있다. 이 문제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자.

여기서는 조금 더 덧붙이자.

공자(孔子)는 '정치란 이름을 바로 쓰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확하다. 지금은 합법정당을 추진하는 쪽에서도 '진보적 대중정당'이란 말을 쓰지만 초기에, 아니 장기표씨가 『사회와 사상 11월호』에 글을 쓸 때 까지도 '나는 왜 합법정당 결성에 나섰는가?' 하고 제목을 붙일 정도로 '합법정당'이란 말을 썼다. 합법정당? 비합법정당이란 말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 '의회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고 '합법정당 활동이 필요하다'고 한 데서부터 합법정당을 추진하는 세력의 생각의 한 편린을 엿볼 수 있다. 현재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그 한편으로 의회투쟁을 벌이겠다는 것 보다는 의회활동에 전력을 기울이려는 생각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순히 의회진출을 중요시해서는 안된다
민족민주 진영에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실현시켜 나가는
의회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공자의 말을 염두에 두면 합법정당을 추진하는 세력은 '의회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 방법을 제시하는게 중요했다.' 합법정당이란 말 자체가 쓸데 없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자신들의 주관적 의도——객관적으로는 이미 합법정당활동에 매진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역할 분화로서 의회활동을 생각하는듯 이렇게 표현한다——조차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표현은 잘못된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다.

—시기상조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합법정당논의가 시작되면서 합법정당 결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명확하지 않았다. 박노해씨는 반대론에 대해 김근태씨제일의 논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전민련내의 시기상조론이라고 불리우는 김근태씨제의 노선은 장기표씨의 전탁수정주장보다도 더 유해하다.' 사실 그런 면이 있다. 박노해씨가 인용한 '시기상조론'을 대표한 「전민련과 합법정치전술」이란 문건은 그런 비판을 받아야 한다. '보수대연합 구도의 저

지방침으로써 민주대연합 전술을 구사하는데 합법정당은 장애가 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국민대중에게 정치적 야심가로 비치면서 재야운동의 도덕성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전민련은 상반기 활동과정에서 평민당,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고 견인을 방기하는 오류를 범했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박노해의 글에서 재인용)

문제다. 여전히 민족민주운동을 재야운동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재야운동과 민족민주운동은 확실히 다르다. 민족민주운동은 민중의 힘에 기초하여 권력을 잡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한다. '재야운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족민주진영은, 도덕성을 잃지 않는 것을 최대과제로 하는 재야운동과 자신을 구분해야 한다. 권력을 잡는 것을 '야심'이라고 해도 좋다. 그렇다면 민중은 권력을 잡기 위해 '야심'을 가져야 한다. 민중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야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민중의 세상을 건설할 수 없다. 민족민주진영이 정치권력의 장악 문제를 놓고 '도덕성'을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안될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근태씨나 장기표씨가 민족민주진영

다른 합법정당으로 대체세력을 형성하려는 것 뿐이다. 장기표씨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민족민주진영을 대체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합법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체세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암울한 정치상황을 결코 투쟁조직체의 형식을 바꾼다고 해서 마련되지는 않는다. 물론 형식의 변화가 부분적으로 유용한 면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올바른 정치적 지도만이 암울한 정치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며 일반 국민에게 대체세력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족민주진영은 그 정치적 지도를 제대로 해내지 못해 민주화운동을 어려움에 빠뜨렸다.

그런데 장기표씨를 비롯해서 합법정당창당에 노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전민련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능히 운동의 방향에 대해, 방식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합법정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제체도를 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를 바로 잡을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했었다. 오로지 전민련이 합법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합법정당을 만든다고 다되는게 아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들에 가면 안새라?'하는 속담이 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내용이다. 내용은 하나도 없이 형식

만 이리저리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을 만든다고 내용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이 침체한 원인을 우리 운동의 내용에서 찾지 않고 합법정당이라는 대체세력이 없어서였다고 바라보는 것은 원인을 사물 내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찾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잠깐 덧붙여 말한다면 합법정당을 추진하던 사람들은 민족민주진영이 국민들에게 독자적인 하나의 정치세력이 아니라 선거 때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간주되게 했던 사람들과 자신들은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왜 꼭 합법정당이어야 하는가?

장기표씨는 전민련을 사회운동단체라고 부르면서 대체세력은 정당이어야 한다고 했다. 한때 장기표씨는 전민련이 통일전선의 맹아라고 했다. 아니 전민련을 사회운동단체라고 부른 바로 앞에서조차 전당단위의 대체세력은 전민련과 같은 민중운동연합체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바로 앞뒤에서 서로 혼동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다.

왜 합법정당이 아니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고 또 대체세력이 될 수 없는가? 장기표씨가 내세운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합법정당을 결성하려는 사람들은 전민련만이 아니라 민족민주 진영의 향후 진로에 대한 생각을 밝혀야 한다

장기표씨가 지적한대로 전민련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타당하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타당하지는 않은 것'이다. 국민들이 전민련을 정권장악 기구로 생각하지 않게 된 데는 전민련의 잘못이 컸다. 전민련은 더 이상 재야단체로 불려서는 안되었다. 단순히 순수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과격한 투쟁이나 전개하는 조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었다. 현정권이 전민련은 좌경이다, 용공집단이라고도 악선전을 해대도 '전민련이 좌경이면 어쩌나, 용공이면 어쩌나, 국민을 잘 살게 해주고, 자유, 정의가 쏙트게 하는 정치를 하는게 좌경, 용공이라면 나도 좌경 용공하겠단' 국민이 더욱 많아지게 했어야 했다. 총선이나 대선때가 되면 특정야당을 지원하는 세력으로 간주되는게 아니라 당당한 민중세력으로 우뚝설 수 있어야 했다. 전민련은 민주화투쟁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권을 잡고 민중사회를 건설하는게 목표라고 했어야 했다.

이것이 정당이어야만 가능하고 전민련일 때는 불가능했을까? 장기표씨는 조직의 규율을 세우려면 정당이

어야 한다고 했다. 조직의 규율이 대체세력답게 서고 각급 민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조직의 형식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있지 않다. 대체세력으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세워야지만 가능하다. 그 권위와 영향력은 정치적 지도의 올바름으로부터만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장기표씨와 정당건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도노선이 전민련의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지난 전민련의 상반기 운동이 왜 침체로 빠졌는지에 대해 장기표씨—다른사람이 아니다. 전민련의 사무처, 실질적 책임자의 한사람—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를 알지 못한다. 단지 하나, 전민련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

장기표씨 자신의 논리에 비춰봐도 문제는 많다. 장기표씨는 합법정당은 전당단위의 대체세력은 아니고 현재 드러낼 수 있는 범위에서의 대체세력이라고 했다. 전당단위의 대체세력은 여전히 전민련과 같은 민중운동연합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민련과 같은 전당단위의 대체세력을 제 체도에 올려 보려고도 하지 않고 따로 떨어

의 대의를 쟁개치고 의회민주주의자로 나서려고 한다든가 평민당을 강화시키려고 한다든가 하는 표현은 지나치지 않을 수 없다. 행위의 객관적 결과가 그렇다는 말과 의도가 그렇다는 말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상조론'이 제출하는 근거가 부족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필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물론 필자가 사용하는 시기상조는 현재 우리 역량을 합법정당은 의에 쏟을 때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합법정당결성 추진을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에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수 밖에 없다.

—먼저 민족민주진영의 분명한 경로를 밝혀라

합법정당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민족민주진영의 현황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대중운동은 엄청나게 발전했다. 진보적인 노동조합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에 농민은 전국농민협회에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빈민들은 전국빈민연합에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 그러나 민족민주운동은 거북이걸음이다. 대중운동이 자기계급의 이익을 얻기 위한 운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넘어서서 변혁운동에 복무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킬 민족민주운동

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투쟁을 성과있게 벌이지 못했다. 이철규 사인 진상규명투쟁도 제대로 벌이지 못했다. 통일운동에도 국민들을 거의 동참시키지 못했다. 영등포선거투쟁도 마찬가지이다. 민족민주진영의 중심인 민족민주운동연합도 큰 어려움에 빠져있다. 전민련만이 아니라 민족민주운동의 각급조직이 어려움에 빠져있다. 전민련은 출범 4개월째만에 "우리는 4개월전 출범 당시에 모아졌던 기대를 충족시켰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까지 했다. 이런 형편에 합법정당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민청련 기관지 민주화의 길 22호 참조).

이런 형편에 장기표씨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식으로 '이제 대중의 정치의식과 이론수준이 상당히 높은 단계에 와있어 전문활동가들이 굳이 직접 이론차원의 대중운동을 지도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까지 말한다. 전노협의 결성시기에 대한 판단, 전교조 운동에 교사들이 적극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원인분석, 통일운동의 방향, 전노협의 조직건설방도와 강화방안등등 해야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것을 대중조직이 다 알아서 판단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변혁적 이론 없이는 변혁적 실천도 없다. 정치지도를 더욱 강화해도 시원하지 않을 판국에 대중의 정치의식과 이론수준이 지도자가

장기표씨의 합법정당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합법정당은 민족민주진영의 의회참여 분야이며 전민련의 의회파 견부대가 되어야 한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말해 장기표씨의 이론수준이 대중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과 통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대중은 대중운동을 잘 하고 기존의 활동가들은 정치(?) 운동을 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정치적 지도를 강화하고 활동가들은 정치적 지도를 잘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운동의 성패는 정치적 지도의 올바른데 의해 좌우되는 것이 반이상이다. 정치적 지도가 안되어 — 혹은 우리의 정치적 지도 능력이 모자라 — 운동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우리의 정치적 지도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지 지도하려는 자세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설사 개인은 포기해도 민족민주운동 전체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합법정당을 결성하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민련에서 중심으로 활동해오면서 전민련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전민련만이 아니라 민족민주진영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먼저해야 할 일이다. 합법정당만 만들면 다된다는 주장은 너무나 공허하다. 동시에 민족민주진영의 어려움

이 합법정당이 없어서 생기는 면도 있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주된 것이냐 하는 의문도 든다.

운동의 어려움은 통일운동이면 통일운동, 5공청산운동이면 5공청산운동 등이 잘못제시되거나 전략 없이 전술만 제출되어서 그렇지 형식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경우가 태반이다.

지금 합법정당을 결성하려는 사람들은 내용은 없이 형식만을 논하고 있어 민족민주운동에서 실제로 중요한 몫을 차지할 의회투쟁의 담당자가 되기 힘들다.

또한 당사자들이 합법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논의를 비밀스럽게만 하고 끈기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 모여 합법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을 보면 과연 중요한 일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세번째는 합법정당의 대표주자인 장기표씨의 글이다. 장기표씨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상태로 합법정당을 결성하는 것은 무리다. 대부분의 경우 한 조직에서 일을 잘못하면 다른 조직에서도 잘못한다. 운동전체로 보면 없어도 되는 조직은 별로 없다. 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 자기가 있는 곳, 그리고

원해서 있었던 곳에서 그곳의 운동을 활성화시켜내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운동전체에 대한 전망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운동도 성공시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운동체에서는 보다 책임있는 자리는 성과에 기초하여 맡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보면 단지 합법정당 추진세력만이 아니라 민족민주진영의 거의 전제가 운동의 진로에 대해 깊은 고민과 탐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험심을 발동시켜 자리를 한번 옮겨본다거나 다른 일을 해본다거나 하는 것은 요행에 사람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다. 일관된 논리와 사상으로 사람들을 묶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선동이나 대중의 분위기에 영향해서 일을 해서는 안된다.

어떤 집단이든 마찬가지이다. 장기적 전망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계획을 가져야 한다. 장기표씨의 합법정당론을 비판하면서 상대적 정당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해방그룹도 마찬가지이다. 장기표씨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우경화된 것이라면 노동해방그룹의 주장은 상당히 좌편향적인 것이다.

노동해방그룹이 합법정당추진론자들을 비판하면서, 잘못하면 시기상조론만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노동해방문학그룹도 합법정당추진론을 비판하면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약간 덧붙인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

한다고 해서 자신의 오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해방그룹의 좌편향

노동해방그룹의 정세인식은 합법정당추진세력의 운동현황 인식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다. 실제로 노동해방문학그룹은 당면 우리나라 운동이 마치 사회주의를 향해 매진해나아가 한다는 듯이 선전하고 있다. 그들이 즐겨쓰는 '노동해방'이란 말은 반드시 '민중해방'이란 말로 바뀌어야 한다. 노동해방문학그룹은 말로는 민중민주주의변혁을 이야기하면서 실천으로는 '사회주의의 즉각적 실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노동해방'과 '민중민주주의의 실현'은 엄연히 다르다. 박노해씨가 쓴 것을 그대로 옮겨 말하겠다. "용어"란 이렇게 써도 괜찮고 저렇게 써도 괜찮은 '단어고르기'가 아니다." 노동해방과 민중민주주의는 나란히 쓰여질 수 없는 말이다. 이는 학생들이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쉽게 붉은 깃발을 휘둘러 대고 붉은 머리띠를 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소심한게 아니다. 모든 곳에 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 말과 실천은 빈틈없이 일치시켜야 한다. 당면과제와 전략적 과제를 분간하지 못해서는 곤란하다.

박노해씨가 끊임없이 무장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 시기 우리운동의 과제가 무엇인가 하

일선 활동가들은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운동지도부들이 내린 결정에 무엇인가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돼버렸다

는 과제는 전략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으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무장투쟁과 임시혁명정부의 수립이라는 과제를 빼고는 모든 것이 개당에 불과하게 보여질 뿐이다.

—정당추진론자와 민족민주운동의 관계

정당추진론자들은 문제가 많은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들의 방법은 문제가 많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민족민주진영이 어쨌든 타협하여 분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 사전에 충분히 싸우지 못했던 것이다. 남은 사람도 문제는 많았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원칙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장기표씨류의 합법정당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합법정당은 민족민주진영의 외회참여분야임을 잘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전민련의 지도를 받도록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합법정당은 전민련의 의회파전부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닐 경우 민족민주진영 혹은 전민련은 진보적 대중정당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선거연단 활용이나 의회진출에 그들 정도의 마찬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민련등은 의회투쟁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의회투쟁의 가장 유리한 무대가 유세장이 아니라 의회연단이라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방향을 못잡고 있는 대중운동에 올바른 방향을 주어서 대중들이 전민련이라고 하면 자기 목숨보다 사랑할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중들에게 올바른 노선을 제시하지 못하는 조직은 당이든 전선이든 연합이든 결코 살아나지 못한다.

특히 통일운동, 전노협 건설운동등 대중운동에 자신의 견해를 뚜렷이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필리**

통일운동과 여성운동

고 송 방 (신학 86)

I. 들어가는 말

II. 몸 말

1. 조국통일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민족운명의 절박한 과제이다

2. 통일위업 완성을 위한 전제적 기본원칙

(1)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한 개괄적 이해

(2) 통일위업 완성을 위한 실천적 기본원칙

3. 분단으로 인한 식민지 여성의 고통과 여성운동의 과제로서 통일운동

(1) 분단으로 인한 식민지 여성의 고통

(2) 여성운동의 과제로서 통일운동

4. 88, 89 통일운동에 대한 약평 및 88, 89 통일운동에서 여성운동의 역할에 대한 평가

(1) 88, 89 통일운동에 대한 약평

(2) 88, 89 통일운동에서 여성운동의 역할에 대한 평가

5. 여성운동내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방법론 및 조국통일운동에서 여성운동의 과제

(1) 여성운동내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방법론

(2) 통일운동에서 여성운동의 당면 과제

III.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한국분단 45년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격동과 변화를 수반한 해였다. 국내적으로는 문익환 목사의 북한 방문을 시작으로 국회의원·작가등의 연이은 북한 방문, 특히 그 정점을 이룬 것은 전대협 대표 임수경양의 평양 청년학생축전 참가였으며 이것은 88·89년 통일운동의 성과적 결과물이었다 할 수 있다. 88년부터 전개된 청년학생들의 선도적이며 헌신적인 통일운동은 45년 동안 미국과 남한의 독재정권에 의해서 분단의 고착화와 민중탄압의 수단으로 되어왔다. 반북반공 이데올로기의 기반을 아래로부터 허물어뜨리고 통일운동의 전제적원칙으로의 확산은 또한 통일구국역량의 확대·장성을 가져왔다. 또한 국내외적으로는 그것의 평가를 둘러싼 관점의 상이함은 차치하더라도 89년 6월 천안문사태와 소련의 개혁(perestroika)과 개방(glasnost)을 두 축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변화의 움직임은 동구에서는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지고 특히 89년 11월 9일 제2차 세계주의 전쟁 이후 냉전체제의 상징물이었던 베를린장벽의 와해와 동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추구하였던 루마니아 정권의 붕괴는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노정된 일련의 문제점에 대한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평가와 대

응을 요구하고 있다.

여하튼 남한의 민족민주운동 진영은 내외의 급변하는 정세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응하면서 88·89년의 통일운동의 성과를 더욱 튼튼히 하는 기초위에서 분단조국 50년이 되는 1995년을 통일원년으로 만드는데 여하히 모든 역량을 통일집중 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70년대의 소부르조아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낭만적 통일관이나 80년대의 반국적 시각에 입각한 선남한변혁 후통일관을 주체적으로 극복하고 미국의 식민지 파쇼통치가 분단을 매개로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가를 주체적 입장에서 분석·조명하고 남한의 변혁운동과 그 궁극적 지향점으로서 조국통일 문제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 통일운동은 계급해방의 틀안에 흡수하려는 편향을 극복하고 민족자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민족해방이나 사회주의 건설은 민족단위에서 진행되며 조국통일은 다름 아닌 전국적 단위의 민족적 자결성을 실현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통일운동은 어느 한 계급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과 계층의 통일집중체로서의 민족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중첩되어 있는 남한의 현실에서 계층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을 민족자주화와 조국통일에 그 지향점을 집중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여성운동은 여성이라는 계층적 이해와 요구

에서 제기되는 자기독자적 내용을 갖지만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강령 속에서 파악해야만 자기독자적 운동을 심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올바른 운동의 방향 속에서 자기 운동을 편향없이 승리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것이라 하여 본론에서는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인식하고 계급과 계층의 통일집중체로서 민족을 파악하는 기초위에서 여성운동내에 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자체 변혁운동에 집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도에 대해 시론적으로나마 다루어 보려고 한다. 이는 식민지 조국의 여성으로서 4천만 남한민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막중하고 여성을 통일운동의 당당한 주체로서 꾸리는 문제는 전체 남한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에 있어 사활적 문제이며, 식민지 분단조국에서 여성해방의 관건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II. 몸 말

1. 조국통일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박한 과제이다

조국통일은 어떤 추상적 당위나 보편적인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중의 생활상의 이해와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이며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문제를 추상적·당위 차원으로 해소하여 통일운동을 낭만적으로 진행한다거나 보편적 원칙상의 문제로 파악하여 교조적·기계적으로 통일운동을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배자들의 삶의 존재조건은 분열이며 이들은 항상 민중들을 분열시키면서 지배해왔다. 1945년 일제 해방이후 이 땅을 강제점령한 미국은 남북한 민중의 일치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친미대관세력을 앞세워 우리 민족을 강제로 분열하였고 봉건적 잔재를 유지·온존시키면서, 남·녀간을 분열·대립시키면서 그들의 지배조건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시켜왔다. 그리하여 4천만 남한민중들은 외세에 의해 끊임없이 분열과 억압을 당하였으며, 자신들의 자주적 삶을 유린당하는 생사존망의 민족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민족의 민족적 통일과 단결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절박성이란 어떠한 소부르조아적 조급성의 문제가 아니라 단결은 삶이요, 분열은 곧 죽음이라는 현실적·역사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는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모습을 한 하나의 민족이 서로의 가슴에 총부리를 댄채 원수처럼 서로를 적대시해온 동안 이땅은 황폐할대로 황폐해서 이제 과연 누구의 나라인가를 모를 정도로 민족의 주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인간의 생명이 자주성에 있는 것처럼

여성운동은 여성이라는 계층적 이해와 요구에서 제기되는 자기독자적 내용을 갖지만 전체 민족민주 운동의 강령 속에서 파악해야만 자기독자적 운동을 심화 발전시킬 뿐 아니라 편향없이 전진시킬 수 있다

그 인간들이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공고하게 형성한 민족의 생명도 민족적 자주권, 즉 민족의 자주성에 있는 것이다. 민족이 자주성을 상실하면 그 민족 구성원의 어떠한 발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처럼 외세에 의한 분열과 억압은 우리민족에게 끊임없이 죽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하는 조국통일은 이미 1천년 이상이나 하나의 민족적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온 민족이 다시 하나의 민족공동체와, 하나의 국가를 이루려는 민족제통일을 의미한다. 즉, 인위적으로 헤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혈육을 다시 만나려는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요구인 것이다. 하나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갈라진지 46년, 우리민족은 남북이 갈라져서 살아옴으로 인해 우리의 삶과 생활이 얼마나 파괴되고 민족의 자주성이 무참히 유린당하는지를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 이는 곧 우리 민족이 분단(분열과 대립)되어서는 결코 참된 삶과 운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분열과 대립이라는 분단을 깰수고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 통일조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통일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민족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첫째, 우리민족에게 전쟁의 위협 대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81년의 미국방성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을 '중요한 이해관계지역(a significant interest area)'으로 평가하던 것을 84년에는 '사할적 이해관계지역(vital interest area)'으로 격상(?)시켰다. '사할적 이해관계지역'이란 '방위의 제1선'으로서 서유럽과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핵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호할 지역이라는 뜻이다.

남한이 이처럼 사할적 이해관계지역으로 격상된 것은 80년 들어서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광 레이건 정부가 내세운 세계전략의 일환인 이른바 '동시다발 보복전략'에 따른 것으로 "소련이 중동산유지역에 개입할 경우,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동맹군사력과 함께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 북한에 대해 공격할 핵은 바로 남한에 배치되어 있는(600-1천 정도의 핵탄두가 배치)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구 핵전쟁 발생가능 지역인 유럽과 중동

보다도 두가지 측면, 첫째, 두 초강대국(미국-소련)을 개입시키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둘째,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초강대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 높다고 한다. 군작전 지휘권마저 미국에 장악되어 있으며, 한반도를 일곱번이나 뒤집어엎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는 미국의 이익에 따라 우리 국민이 원하는 원하지 않은 간에 언제든지 핵전쟁을 치르게 될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긋지긋한 핵전쟁의 위협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은 오직 조국통일 밖에 없다. 우리를 둘러싼 내외의 조건상 통일이 아닌 어떠한 다른 조치도, 어떠한 국제관계의 변화도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조국통일은 남북한의 엄청난 군사비 지출과 인력자원의 낭비를 생산과 경제발전에 돌림으로써 민중생활의 비약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현분단상태에서 남북한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나다. 이를 남한의 경우로 보면, 5인 가족당 거의 200만원(GNP의 6-7%)에 가까운 돈을 매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통계에 따르면 1987년 현재 북한의 상비군 병력은 83만 8천명으로 세계 7위, 남한은 62만 9천명으로 10위인데, 두 병력을 모두 합치면 146만 7천명으로서 세계

4위를 차지하게 된다. 게다가 남한에서는 방위병을 포함한 100만 상비군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생산능력 손실까지 계산하면 공식통계에 의한 군사비 지출은 50억달러를 넘어 거의 15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한다.

인구비례 병력수치나 GNP중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 어느 지표로 살펴봐도 한반도는 과도하게 군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독점자본과 남한의 매관독점제벌의 이른바 군산복합체 정책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는 이들 반민중적 독점자본이 비경제적인 군사부문에서 잉여수요 창출로 고율의 이윤을 얻기 위한 독점자본의 착취성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와같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생산적 활동에 전용하고 민중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한다면 남북한 민중의 생활이 얼마나 더 향상될 수 있겠는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1948년 이래로 남북한 다 타부문에 비해 군사부문이 엄청나게 팽창해 왔음을 생각할 때, 이부문이 강화됨으로써 잃은 손실의 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국통일은 땅에 떨어진 우리민족의 자주성을 옹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과 간섭에 시달려 왔고, 지금도 미제의 노골적인 군사적 강점과 경제적 압력, 내정간섭 등에 의해 민족의 자주성이 무참히

조국통일은 핵전쟁의 위협과 과도한 군사비 지출, 인력낭비를 치유할 수 있게 한다

유린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휴전상태를 빌미로 미국으로부터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지닌 각종 신형무기와 핵무기 반입이 구조화 됨에 따라 나라의 자주국방은 요원한 현실이다. 우리의 근현대사 100여년 동안 외국군대가 한반도에 머물러 있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이 그동안 얼마나 침해받아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대에서 자주성 실현의 기본 단위는 민족이다. 그러므로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당하는 것은 그 민족을 이루는 각계급계층의 자주성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없는 것이다. 하여 민족의 구성원인 각계급계층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급계층의 통일집중체로서 민족의 자주성이 옹계 실현되어야 한다.

조국통일은 외국군대의 주둔으로 상징되는 자주성의 상실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네째, 조국통일은 이땅에 진정한 민주화를 가져다준다. 남한의 역대 친미독재정권 중 분단상태를 자신의 정권연장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곧 용공·이공으로 몰았고, 독재에 대한 항거는 반공반북 안보이

데올로기로 철저히 탄압하였다. 민중들의 저항이 드세질 무렵이면 '남침'의 위협을 강조하였고, 5공치하 금강산댐의 수공위협 이라든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세계 4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친미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분단상태를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이야말로 이 땅 민중들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생존권 회복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다섯째, 조국통일은 우리의 민족문화를 크게 발전시킬 것이다. 분단을 군사독재정권의 영구집권수단으로 이용해온 45여년 동안 내외의 민족분열주의자들이 조장해 온 겨레의 절반에 대한 증오감 대신, 통일은 민족애를 심어줄 것이며, 개인주의·허무주의·향락주의 대신 건전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상적으로도 미국 없이는 못산다는 숭미사대주의·민족허무주의에 의해서 심각하게 잠먹고 있는 민족자주의식을 회복하는 길은 통일 밖에 없다. 또한, 통일은 친일, 친미 매국세력을 중심으로 서술된 우리의 역사를 민중과 민족해방의 찬란한 역사로 뒤바꿔 놓을 것이다. 통일은 남북한이 각각 발전

시켜온 경제, 과학, 문화의 성과를 서로 공유케 함으로써 찬란했던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민족문화의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조국통일은 45년 가까이 이산의 아픔에 신음하고 있는 100만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줄 것이다. 혈육을 부여잡고 말을 잊지 못하는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길이 통일 말고 달리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통일은 끊겨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는 민족재생의 길이요, 분단은 민족파멸의 길이다. 분단은 독재와 매국의 온갖 횡포를 합리화 시키고, 친일, 친미 민족반역자들이 애국자인양 활개치고, 불의가 정의를 짓누르며, 매국이 애국을 단죄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속시켜 온 것이다. 분단은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며, 우리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민족적 재난이다. 따라서 분단을 끝장내는 통일이야말로 우리민족 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절대적 과업이라 할 수 있다.

2. 통일위업 달성을 위한 전제적 기본원칙

오늘날 민족통일의 완성은 전국적이고도 범민족적 과제와 염원으로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로 나서

고 있다. 이는 내외의 민족분열세력들의 분단고착화와 두개의 한국 조작책동이 단순한 '책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정'으로 치달고 있으며 최근 보수반동세력인 민정당과 사이비 민족주의 세력인 민주·공화당의 기만적이고도 반민중적인 합당을 통한 친미 보수대연합의 실질적 구축은 민주와 파쇼, 통일과 분열을 보수와 혁신, 좌·우대립으로 회색화시키면서 국민에 대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한 애국민주세력에 대한 탄압과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남한에서의 친미파쇼체제의 구축·강화와 영구분단을 내외적으로 확정지우고자 하는 음모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예적 삶과 분열을 강요하는 파쇼폭정도, 자신의 힘을 자각하고 정의로운 투쟁에 나선 우리 민중을 결코 굴복시킬 수 없으며, 자주·민주·통일로 향한 대세의 흐름을 역류시킬 수 없다. 역사의 주체, 사회변혁의 당당한 주체로 성장한 우리민중의 지난한 투쟁은 자주·민주·통일을 구국운동의 본궤도에 세워 놓았으며 특히 88년 청년학생들의 선도적이고 헌신적인 조국통일투쟁은 89년을 경과하면서 그 폭과 깊이를 더하여 통일운동의 강력한 주체형성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90년대의 통일투쟁은 그간 투쟁의 과정 속에서 잠재적으로 형성된 통일운동의 열기를 아래로부터 확실히 재집결시키고 계획성있게 벌여 그간의 엄청난 단절성을 극복하고 분단 50년이 도래하기 전에 민족통일의

1972년의 3대 원칙은 남북이 최초로 자주적 입장에서 합의한 것으로, 위장통일 술책을 분쇄하고 통일운동의 올바른 침로를 밝혀준다

새 지평을 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한층 더 높은 도약을 기해야 한다.

이미 우리에게 7천만 남북한 민중의 조국통일에 대한 일치한 의사와 염원을 모아 합의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이 있으며, 이를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원칙으로 확인하는 가운데, 이것을 통일운동의 실천 속에서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우리는 세워야 한다.

이러한 통일운동의 원칙은 반통일세력의 위장통일술책을 분쇄하고 통일운동의 올바른 침로를 견지하면서, 통일운동의 성장·발전의 참된 힘과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하여 그간 통일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통일운동의 올바른 원칙을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1)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한 개괄적 이해

조국통일이 전민족적, 전민중적(계급계층적) 과제이고 사상, 이념, 제도, 정견, 신상의 차이를 초월해 이루어 내야 할 절박한 과업이라 할 때 이를 올바른 원칙 속에서 수행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성과적 달성의 관건

적 문제이다. 우리에게 이미 7천만 전체 남북한 민중의 조국통일에 대한 일치한 염원과 의사를 담아 합의한 3대 원칙이 있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명정대한 것이고, 7천만 겨레의 통일에 대한 절절한 염원을 담은 것이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은 비록 깨지기는 했지만,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한 양측이 서로 합의하고 천명해 낼 수 있었던 소중한 원칙이다. 이 원칙은 박정권에 의해 유신독재로 이어지면서 그 의의를 계승할 수 없었지만 최초로 남북이 자주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으로서, 앞으로 어떤 정세가 조성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민족이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있어 확고히 붙어줘야 할 소중한 원칙이다. 이 원칙을 떠나서는 어떠한 통일방안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의 내용을 보면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① 자주적 원칙

조국통일에 있어 자주적 원칙이란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요구와 힘에 기반하여 해결함을 의미한다. 즉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민족의 자주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통일의 완성을 민족주체역량에 의거하여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자주적 원칙'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조국통일의 문제가 우리 민족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족문제의 당사자는 바로 7천만 우리민족이요, 자기네 나라의 문제는 어떠한 외부세력도 간섭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자체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조국통일의 문제는 우리민족의 민족자결권에 속하는 것으로 어떤 외부세력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우리민족 고유의 권리이다.

둘째로 자주적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주체가 바로 남북한 민중이요,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민중이기 때문이다. 조국통일은 어느 다른 민족이나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민중의 자주적인 힘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주적 원칙이 관철되려면 ㉠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내야 한다. 외세의 간

섭을 종식시킨다 함은 모든 외세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지배를 종식시키는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 통일의 기본 장애요소인 미국의 간섭을 배제함을 의미한다.

㉡ 외세만을 배격할 것이 아니라 외세를 이땅에 끌어들이는 사대주의 세력, 외세의존세력을 모두 척결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자주화투쟁과 민주화투쟁 그리고 조국통일투쟁의 고리가 연결되는 것이다. ㉠과 ㉡을 수행하는데 있어 하나의 장애요소가 되는 것이 남북한이 자주적 원칙에서 대화의 대등한 당사자로 나서고 있지 못한 일이다.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조인에 이승만정권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과 북한, 중국이 그 당사자가 되어버린 데서 기인한다. 미 군사령관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를 구실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속 합법화시키고 있다. 휴전협정에서도 물론, 조속한 시일 내의 평화협정 체결, 외국군의 철수를 명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미국의 의도를 분쇄하고 자주적 입장에서 남북한 당사자 간에 휴전협정이 폐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미군의 철수,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들의 들여온 핵무기를 같이 철거시키는 것이다.

㉢ 주한미군의 철수만으로는 완전

외세와 외세의존세력을 배격하는 과정은 자주화 투쟁, 민주화 투쟁과 조국통일 투쟁이 연결되는 고리이다

한 군사적 자주권이 회복되지 않는다. 미군 철수와 아울러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제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미국은 현재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으며 PACEX 훈련 등을 통하여 이를 범태평양지역동맹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삼국안보체제가 완성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도 계속해서 남한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유지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따라서 한미간의 군사조약 등을 위시한 불평등조약협정의 폐기는 한·미·일 3국 군사동맹같은 군사불평등체제에 남한이 가입하도록 하는 조약을 폐기함과 동시에 우리의 민족적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 미국의 "두개의 한국정책"을 폭로·분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방정책을 통한 4대강국의 교차승인,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적극 저지하여야 할 것이다.

② 평화통일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을 막론하고 온 민족을 전멸시킬지도 모르는 전쟁을 적극 반대하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한가지 인식해야 할 것

은 평화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평화는 단지 '평화 그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 실현의 한 주요한 방도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미-노태우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는 두개의 한국이 통일됨이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미-노태우정권이 통일을 원한다면 민족자주를 이룰 수 있는 제반조치(외세 간섭배제, 반북이데올로기 철폐 등)를 그토록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노태우정권의 허구적이고 분단고착화적인 평화공존구상을 폭로하고 진정으로 평화적 통일을 약속하는 평화를 위해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 우선 남과 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남북한 상호불가침선언 채택과 감군 및 군비감축이 그 일환이다. 남북불가침선언은 남한에서는 북한이 남침해 올 것이라는, 또한 북한 역시 미-노태우정권이 핵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서로 씻는 계기가 됨으로써 군사적 대결상태를 청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불가침선언이 의미있으려면 반드시 상호 군비감축·감

군·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등이 결합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남과 북이 10만이하로 상호 감축을 실시하고 서로 간에 불신감을 조장하는 예비병력제도(예비군, 노동적위대 등)를 철폐하고, 군사력 역시 삭감되어야 한다. 아울러 군사훈련중지, 무력시위중지, 상호비방중지 등이 남북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① 다음으로 평화통일이 되려면 남북한 상호간이 서로 자기의 제도를 상호간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8·15이후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를 유지해온 현실을 무시하고 서로의 체제를 상대방에게 강요할 경우 불가피하게 대결과 충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민족대단결의 원칙

민족대단결 원칙이란 남북이 서로 다른 사회체제, 이념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통일을 위해서는 사상,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논하기에 앞서 민족의 이익과 장래 운명을 우선으로 놓고 온 민족이 단일한 힘과 의지로 단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는 특정 계급, 계층이나 당파의 이익을 실현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민족적 이익과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이며 통일을 위해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나설때만이 이룩할 수 있는 과제이다. 민족대단결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같은 민족임을 인식하고 서로 단합하려는 의지, 즉 민족대단결 의식으로 무

장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친미 매관독재세력이라는 반통일세력과 싸워야 하는 식민지 분단조국에서는 여하히 전민족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때만이 이들 반통일세력을 타도해내고 통일조국을 안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대단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 사회의 민주화, 자주화를 이룩해야 한다. 이는 진정한 통일은 반통일적 매관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때에만 가능함을 의미한다. 역대 독재정권은 입으로는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통일을 염원하는 세력은 무조건 좌경 용공, 이적으로 조작 구속, 탄압하였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제반의 반민중적, 반통일적 악법이 존재하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족이 서로 적대감없이 단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는 통일을 원치 않는 반통일적 군부독재정권이 존재하고 이들 매국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미국이 계속적으로 민중의 통일요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화와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절대적 전제조건이다. 특히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과 국가보안법등 제반의 반민주악법을 철폐하는 것은 남북민중이 서로 두려움없이 자유로이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족자주정권이 수립되는 것만이 조국통일의 첩경인 것이

국가보안법등 반민중적, 반통일적 악법이 존재하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족이 적대감없이 단결하기란 불가능하다

다.

② 각계각층의 자주적 교류와 남북한 자유왕래를 실현해야 한다. 민족대단결을 위해서는 남북간에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신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오해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각계각층이 서로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북간의 자유왕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주적인 교류와 상호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서로 이해하며 불신감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 바로알기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노태우정권의 창구단일화책동을 분쇄해야 한다.

(2) 통일위업 완성을 위한 실천적 기본원칙

① 조국통일운동은 남과 북의 7천만 민족이 모두 주체로 나서야 한다.

우리민족은 애초부터 분단을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단에 동의하지도 않았다. 민족의 분단은 강대국 외세의 자기이익에 기초한 침략적 의도에 의해 자행되었다. 그러므로 통일은 타의와 강압에 의한 분단을 타파하여 민족이 하나로 되고자하는

순수한 민족본질적 요구이다. 통일운동은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가시게 하고,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자주적인 민족대단결운동이다. 이는 전민족적인 단결과 단합을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주성을 옹계 실현하려는 민족자주운동이다. 이러한 때 통일에의 모든 노력은 갈라진 민족의 어느 한쪽만이 주체가 되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분단된 남과 북의 일부 구성원만 나서서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통일의 주인이자, 통일운동의 책임있는 주체이다'. 어떤 형식과 방법을 통하든 남과 북의 계층, 사상과 종교, 제도와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한다.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어떠한 통일운동도 통일을 빙자한 반통일, 통일을 구실로 분단을 영속화하려는 반민족 분열책동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7천만 민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통일운동이야말로 참된 통일운동에 첫번째로 나서는 본질적 원칙이다.

② 통일운동은 민중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민중적 힘의 통일집중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첫번째 원칙과도 연관되지만, 남과 북 쌍방에서 전개되는 통일운동의 모든 노력은 남과 북 양쪽의 위정자나 대표 몇 사람의 힘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남한의 역대 친미 정권들의 통일을 빌미로 전개된 모든 '통일소동'은 실제로 통일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권안정과 집권의 영구화를 위한 수단으로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국통일이 민족적 요구와 민족의 결집된 힘에 의해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먼저 그것이 분열주의 세력의 위장된 통일술수를 저지할 수 있는 위력한 힘이기에 문만이 아니라, 민족 모두가 주체로 나서지 않고서는 진정한 조국통일은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운동의 참된 동력인 민족의 이해와 요구대로 통일운동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차원의 활발한 통일논의 전개와 통일운동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민족의 이해와 요구대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자주적인 민족정권의 수립 또한 전체민족의 힘의 결집을 통한 통일운동의 전진에 의해서만 이룩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한에서의 통일운동이 자주와 민주를 위한 변혁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어 전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이 있다.

③ 조국통일운동은 반미 자주화와 반독재 민주화투쟁과의 밀접한 결합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민족의 자주권은 그 민족의 생명에

해당한다. 외세의 강압적 점령에 의한 민족분단 역시 '자주적인 통일운동', 즉 분단으로 인한 분열과 억압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반외세 자주화운동의 선상에 놓여 있다. 아울러 통일운동은 외세와 결탁한 민족 내부의 반민족적 분열주의자들의 파쇼적 통치를 청산하고, 완전한 민족적 질서와 정권을 수립하고자 하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도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남한에서의 연속과 압제는 민족분단의 터전 위에서 더욱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변혁의 기초없이 통일 운동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반외세 자주화투쟁의 연장선상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은 또한 전쟁과 핵무기를 반대하여 민족생존의 보장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반전·반핵 평화운동과도 깊이 관계되어 있다. 민족의 씨를 말리는 핵무기를 온 강토에 배치해두고 평화를 원한다느니, 주한미군의 폭력 앞에 민족의 생명을 맡겨둔 채 실전을 방불케 하는 무력전쟁연습으로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면서도 통일과 평화를 위한다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이처럼 분단의 원흉이자 분단고착화의 주범인 내외의 민족분열주의자들이 아무리 통일을 치장하고 나선다 할지라도 그들은 본질적으로 통일을

반미 반독재의 역사적 전통위에서, 자주와 민주를 흔들림없는 기반 위에서만이 참된 통일운동은 자기생명을 발휘할 수 있다

원치 않으며, 그들이 어떠한 통일방안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통일방안이 못된다. 그러므로 반미 반독재의 역사적 전통위에서, 자주와 민주를 흔들림없는 기반 위에서만이 참된 통일운동은 자기 생명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근자의 예로써 노태우독재정권의 기만적인 7·7 선언은 87년 6월 민주대항쟁 이후 급속히 증대된 민족의 자주적인 삶에 대한 요구와 민주적 질서에 대한 증폭된 요구 및 88년 이후 분출된 민족들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요구에 놀란 미-노태우정권이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영구분단책동, 두개의 한국 조작과 노태우정권의 정권안정화 음모가 결합되어 민족의 분출된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일시적으로 무마하고 회색시키면서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위장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88, 89년 통일투쟁의 과정에서 보여준 미-노일당의 조국통일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애국민주세력과 4천만 민중에 대한 살인적인 탄압과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4천만 민족의 조국통일에 대한 요구가 더욱더 확산되고 강화되자 미-노 일당은 7·7선언을 휴지작처럼

내팽개치고 파쇼경찰을 동원하여 통일세력을 좌경공공으로 매도하며 애국민주세력에 대해 불법구금과 체포·투옥으로 일관하였고, 7·7선언에서조차 명시하였던 자주적 교류의 보장 대신 창구단일화논리를 내세우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민족적 차원의 자주적 교류를 극렬하게 막아나섰던 것이다.

이처럼 반미 반독재투쟁의 토대없이 어떠한 통일논의나 방안도 결국 민족분열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불과하며 독재정권의 자기안정을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반외세 반독재투쟁의 연장선 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주화·민주화투쟁만 잘하면 통일운동은 따로이 설정될 영역이 아니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통일운동은 반미 반독재의 구국투쟁의 궤도 위에서만이 올바른 통일의 노력으로 된다는 뜻이며, 오히려 통일만이 남북의 7천만 민족이 하나로 뭉쳐 반외세 민족자주와 사회의 제모순을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허파하는 참된 민주사회 실현의 견고한 담보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미 반독재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자주화와 민주화투쟁과 함께 조국통일운동을 더

육 힘있게 벌이는 것은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우리 조국의 민족사적 요청으로 되는 것이다.

④ 조국통일운동은 과학적인 전략·전술의 기초와 그것의 세련된 구사에 의해서 전개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운동이 다 그렇지만 통일운동 역시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벌여나가야만 편향없이 승리를 전취할 수 있다. 통일운동의 전략·전술 또한 일반적 사회운동에서의 전략·전술수법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먼저 국민대중이 통일운동의 주체인 만큼, 통일운동에 나선 국민대중의 의식정도와 조직화된 힘을 중심에 놓고 통일문제와 관련된 국내외의 정세에 맞게 필요한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대중의 통일을 향한 현재적 수준에 입각한 다양한 요구와 정서에 걸맞는 다각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는 것과 함께 통일운동의 본질적 목적과 의의에 맞게 국민대중을 의식화해 나가야 한다.

그간의 통일운동에서는 현실적인 계층별 의식화수준과 역량 타산에 토대한 정확한 전략·전술을 다양하게 창조적으로 구사하지 못함으로써 급변하는 정세에 따른 운동의 대중화작업을 신속성있게 이루어내지 못한 결점을 안고 있다. 중핵적인 점은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기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술운동에 있어서의 단순성, 단결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투쟁형태

와 방법을 개발하여 운동의 활력과 투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투쟁전선을 확장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⑤ 국민대중의 자주성의 증대에 맞게 통일운동 지도주체의 사상적 관점의 개조와 사업방법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통일운동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80년대 구국운동의 총괄적 결론이요 90년대 전체구국운동의 사활을 좌우하는, 운동주체에 있어서 굳건히 들어져야 할 문제이다.

80년대 우리 운동은 그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특히 87·88년의 대중적 투쟁을 경과하면서 이제까지 예측과 굴종에 살아왔던 민중들 한사람 한사람이 변혁운동의 현실적 주체로 나서면서 이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주인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는 87·88년 폭넓게 진행된 대중투쟁으로서, 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는 끊임없이 고양되고 우리 시대에 맞는 변혁적 요구에 기초한 구체적이고 생활력 있는 운동질서가 새로운 힘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사람중심의 자주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운동이 대중들에 의해 접수되고 광범위한 대중들이 스스로의 자각에 의한 능동적 자세로 변혁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대중들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운동 지도주체들이 낡은 사상관점을 고수하거나 새로운 사상을

사람중심의 자주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운동이 대중들에 의해 접수되고 광범위한 대중들이 스스로의 자각에 의한 능동적 자세로 변혁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이다

평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대중의 자주성의 증대에 맞게 자기변화를 수행하기보다는 간소한 정책적 변화에 안주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통일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통일운동 지도주체의 사상관점의 개조를 토대로 그간 통일운동의 성과를 둘러싼 소비적 3대투쟁배합에 대한 논쟁을 올바른 실천을 통하여 극복하고 대중사업방법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광범위한 대중을 통일운동의 주인,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

3. 조국분단으로 인한 식민지 여성의 고통과 여성운동의 과제로서 통일운동

(1) 조국분단으로 인한 식민지여성의 고통

46년간이나 지속되어온 조국분단은 우리민족에게 극단적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한 사상적 부자유와 사회적인 보수성을 강요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보수성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인간적 권리를 희생시키는 봉건적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유지됨으

로써, 분단은 여성들에게 3중, 4중의 억압과 고통을 주고있다. 특히 분단을 매개로 한 제국주의 미국의 남한강점은 여성들에게 식민지적 억압과 분단의 고통을 중층적으로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다.

첫째, 분단은 여성들에게 한핏줄의 혈육과 헤어져야 하는 이산의 아픔을 주고 있다.

몇년전 '이산가족찾기' 방송에서 나 이 많은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제 혈육을 찾고서 울부짖는 모습, 그리고 '안타까이 동생과 조카, 부모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땅의 이산가족 특히 여성들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6·25로 인해 가족이 이별하는 아픔,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느끼는 아픔은 가장 큰 것이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기혼여성들은 어린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 매춘의 거리로 나갔다. 또한 사상적 대립의 와중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거나 불온한 가족으로 낙인찍힘으로 인해 숨어살 수 밖에 없는 고통을 감내해온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민주화운동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사상적 고아로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여성들은 분단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차라리 분단현실을 애

써 외면하고 도피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폐관독제세력이 사용하는 전가의 보도, 즉 '안정을 위협하는 용공좌경세력', '불순분자의 책동'이라는 안보이데올로기가 효과적으로 먹혀드는 주대상이 여성이다. 이는 역으로 그만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여성들의 삶에 그늘을 드리웠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분단 그리고 외세에 의한 민족적 억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 매춘여성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외세에 의한 여성억압과 수탈의 역사는 오래지만, 가장 악랄했던 것이 일제하의 정신대이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20만여명 조선처녀들이 하루에 70~80명의 일본군을 상대방으로 하면서 겪었던 참상은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것이었다. 이는 제국주의에 의한 여성 성침탈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45년 일제가 물러가고 한반도 이남을 미군이 점령하면서 외세에 의한 여성의 성침탈은 더욱더 확산된다. 87년 기준으로 이 땅에는 4만 3천여명의 미군이 동두천, 오산, 논산 등 전국 곳곳의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기지주변엔 예외없이 기지촌이 형성, 매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살고 있다. 소위 양공주들이다. 우리나라에선 현재 미군대상의 매매춘을 '필요악'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 필요악인가? 미군이 남한의 안전을 지켜주는 고마운 분들이고 때문에 남한 여성들은 한창 젊은 나

이에 낚선 타국땅에서 고생(?)하는 미군병사들의 성욕을 채워주어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여성이 양공주가 되는 과정을 보면 90%이상이 가난 때문에 직업으로 매춘을 택하게 된다. 한 해에 19억달러에 해당하는 미군주둔비를 물고 있는 남한정권이, 그 돈을 빈부격차해소와 실업문제(특히 일하기를 원하는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해결에 쓴다면 매춘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실제 1985년 전두환정권이 동두천지역에 부여한 50억원의 대부분이 동두천 기지촌 주변의 퇴폐사업에 쓰였다는 것은 이 땅에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 우리가 치루는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실감케 한다.

기지촌 주변의 양공주들은 미군으로부터 당하는 성적·물리적 폭행과 성병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한다. 게다가 만약 미군과 양공주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을 경우 양공주는 미군에 대한 태도불량으로 포주로부터 심한 구타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굴욕적인 '한미행정협정' 때문에 미군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뿐이고, 그 처리 결과가 거의 공개되지 않아 처벌되었는지 어떤지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곧 석방되기도 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70~80%는 다시 이혼을 당해 버림받게 되거나 심한 학대에 못이겨 다시 미국의 환락가로 파

미군이 주둔하면서 AIDS를 비롯, 강간·폭행 등 온갖 퇴폐적 양키저질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입한 실정이 되어버렸다

져들게 된다. 양공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미군에 의한 강간, 살인 등은 미군주둔 이후 없어지지 않고 있다.

"미군병사 5명은 지난 16일 하오 10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 로타리부근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가정주부 원모(25), 윤모(22)씨를 자기들이 타고 있던 흰색 군용세단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강제로 끌어타운 후 미 8군 영내로 데려가 막사에서 차례로 욕을 보였다"(한국일보 79. 9. 20). 이외에 83년 뎀스퍼리트 훈련중 여성 강간사건, 85년 동두천에서의 술 취한 미군에 의한 부인의 살해, 87년 뎀스퍼리트 훈련중의 여교사 강간치사사건, 그리고 용산에서의 미군 대령 아들에 의한 임산부 폭행사건 등 미군주둔이후 일어난 점령군에 의한 각종사건은 식민지여성들의 억압과 고통을 사무치게 느끼게 한다.

AIDS 역시 마찬가지다. 현대판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AIDS는 아직 확실한 치료법과 예방백신이 발견되지 않다가 환자로 판명되면 거의 100% 사망하게 된다. AIDS는 감염된 자와의 성행위와 감염된 자의 혈액을 투여받았을 때 걸린다. 이제 AIDS는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이 아시

아권중에서도 기생관광이 남한만큼 많다고 알려진 태국의 경우에 그 환자 증가속도가 무서우리만치 빠르다고 한다. 남한도 그 보균자까지 합하면 상당한 숫자의 환자가 있으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최초의 AIDS환자는 81년 6월 미국에서 나왔고 현재 전세계 AIDS환자의 약 70%가 미국에 있다고 한다. 현재 미국은 문란한 성행위 풍토와 퇴폐적 성문화로 인해 AIDS의 온상이 되고 있다. 때문에 남한에서 AIDS의 문제를 생각할 때 주한미군이 일차적 감염통로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러하며, 남한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환자의 대부분이 미군대상 매춘여성이거나 미군주둔지 주변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미군이 주둔하면서 AIDS를 비롯, 강간, 폭행 등 온갖 퇴폐적 양키저질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입한 실정이 되어버렸다.

세계 최상급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나라에 왜 외세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야만 하는가? 이는 민족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분단상태에 있다는 것, 즉 한반도에서 영구분단과 2개한국으로 확정지으려는 미-노태우정권의 민족분열주의 행각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가장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것은 민중들이다. 또한 여성들인 것이다.

세계, 이땅에 비자주적 사대 미국 정권이 들어섬으로 인해 여성들이 당하는 고통 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의 상품화이다. 조국통일을 바라지 않는 남한의 매관독재정권은 국민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저질폐쇄 문화를 도입하고 있다.

'성의 쾌락'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생각하는 미국의 저질양키문화가 남한에 들어와, 국민들의 의식을 퇴보시키면서 건전한 인생관의 확립을 저해하며 국민들의 현실비판의식을 거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가 만연되면서부터 건전한 인격체로 여성을 보기도 남성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때문에 진정한 평등과 민주화보다는 차별과 분열을 추구하는 양키문화가 판을 치는 한 여성의 인격적 평등과 참 해방은 보장될 수 없다.

네째, 식민지 반자본단계의 남한에서 여성은 절대적 무권리와 생존권적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전근대성과 독점성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남한의 식민지예속경제에서는 그 외면적 확대·성장에도 불구하고, 미 독점자본의 식민지 극대이윤추구와 남한 매관독재의 반민중적인 무제한적 착취로 인해 민중들은 극도의 기아와 빈곤의 상태에 처해 있다. 특히 노동자·농민여성들은

생존권적 위기가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으며 대졸여성들의 취업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더구나 외세에 의한 반봉건적 유제의 온존으로 인해 남한 여성들은 같은 처지의 남성보다도 생존권적 위기 더욱 심각하고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극도의 무권리 상태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식민지여성들에게 강요되어지는 생존권의 위기와 극도의 무권리 상태의 진정한 극복은 민족자주정권의 수립과 조국통일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2) 여성운동의 과제로서 통일운동

여성운동이 민주화와 자주화를 자신의 과제로 설정한 것은 오래지 않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시작된 노동자, 농민여성들의 생존권투쟁은 그 양적, 질적 성장과 더불어 민주화와 자주화를 향한 투쟁으로 성장, 전화하고 있으며, 특히 87년 6월항쟁에서 여성대중의 적극적 참여와 88, 89년 자주통일투쟁에서 여성운동의 적극적 기여는 이후 여성운동 역량의 확대장성의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의 여성운동은 외래 여성해방 이론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인해 자기 운동의 구체적 전망과 실천적 과제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운동은 목적성을 상실한 채 전체 구국운동과의 단절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현실은 식민지 분단조국

여성운동내에서 통일운동의 과제를 보다 분명히 하고 이에 실천적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여성자신의 자주성 실현뿐 아니라 구국운동의 측면에서도 절실한 문제이다

의 생생한 현실에 맞는 주체적 여성운동론의 정립과 현실적 실천방도의 수립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한 논의는 본 글의 목적상 생략한다).

현대운동은 대중들의 구체적 삶에 기초해서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물적 힘으로 전화하는 가운데 그 성장의 추동력이 생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분단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은 다른 어느 계급, 계층보다도 절박하다. 하여 여성운동내에서 통일운동의 과제를 보다 분명히 하고 이에 실천적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여성 자신의 자주성의 실현뿐만 아니라 구국운동의 발전의 측면에서도 절실한 문제이다. 이 땅에서 여성대중이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첫째, 분단으로 인해 이 땅의 여성들은 어느 계급, 계층보다도 더욱 심한 억압과 착취를 강요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여성들은 통일에 대해 누구보다도 절실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다. 만약 4천만 민중의 절반인 여성대중이 통일운동의 당당한 주체로 조직된다면 반통일 세력에 대한 통일운동 역량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함으로써 통일위업 완성의 결정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둘째, 민족이 계급

계층의 통일집중체라고 할 때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당하고 민족이 분열되어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여성해방과 평등의 실현은 결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주화투쟁이 민족의 자주성 실현의 문제이며 조국통일이 전국적 차원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민족적 단결을 이루는 문제라면 여성운동이 조국통일을 자기 과제로 하는 것은 합법칙적 과정인 것이다. 여성들이 통일운동을 자신의 과제로써 수행하는 것은 통일문제를 가정에서, 사회로, 그리고 전민족적 차원으로 확산시키는 중대한 역할로 작용하며 이러한 여성들의 적극적·능동적 역할은 가정내에서 봉건적 가부장제적 질서를 타파하고 전사회적으로 자신들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현실적 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4. 88, 89 통일운동에 대한 약평 및 여성운동의 역할에 대한 평가

(1) 88, 89 통일운동에 대한 약평

88년 청년학생들의 선도적이며 혁신적인 투쟁에 의해 수행되었던 6.

10과 8. 15무쟁은 다시한번 학생운동의 선도성을 뚜렷이 확인시키면서 전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전개되었고, 이어 전개된 88년의 공동올림픽쟁취투쟁과 89년 평양축전참가투쟁은 통일을 막연히 미래의 소망으로만 안일하게 사고할 수 없다는 인식을 광범하게 확산시켰으며, 잠재되어 있던 통일의지를 막을 수 없는 민중의 실천적 요구와 힘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명백히 80년대 구국운동이 결과 지운 최고의 정점이며 80년대 운동을 통해 축적된 반미반독재투쟁이 질적 상승을 이루면서 반미 반독재, 통일 구국투쟁으로 본 궤도에 오르고 90년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기초이다.

88년 첫 기치를 내건 대중적 통일운동은 초기에 매우 빠른 속도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면에는 여러가지 취약함을 함께 드러낸다. 첫째, 통일을 저해하는 가장 큰 반통일세력인 미국의 실체를 부각시키고 통일투쟁이 곧 미국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목적지향성을 분명히 하는 데에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고, 둘째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뜨거운 관심과 반향에도 불구하고 주로 청년학생들만이 주체가 되어 투쟁을 벌였다는 협소함이 지적된다. 셋째로, 당면 통일투쟁이 조국통일을 촉진하고 반통일세력으로서의 독재정권의 취약한 본질을 공격하여 반독재와 반미투쟁전선의 영역을 넓히는 데 있다 할 때, 이들 제반투쟁

들과 유기적 결합을 이뤄내고, 명확한 투쟁내용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네째로는 대중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88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이러한 각각의 문제점이 시정되기 시작하면서 내실화되고 목적지향성이 분명한 통일운동으로 승화될 것을 예고하는 움직임들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의 통일운동에의 동참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남북농산물 교류를 비롯한 각계의 자주적 남북교류 움직임이 88년과 89년을 경과하면서 광범하게 확대됨으로써 통일운동 주체의 범위가 넓어지고 각 주체의 고유한 투쟁내용이 모색되어 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무되는 일은 전체국민의 대 북한의 식이 상당히 호전되어 북한을 대결상대로서가 아니라 하나로 결합해야 할 동족으로 인식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 89년에 들어와서는 88년과 같은 청년학생 중심의 통일투쟁을 극복하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의지들이 현격히 고양되었다. 종교계, 학계, 언론출판계와 문인, 지식인들이 헌신적으로 통일운동 대열에 합류하고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양의 방북으로 남한 분단 국가체제의 마지막 성역마저 허물어 드러버리게 되었다. 또한 통일운동의 과제도 낮은 수준의 각계각층의 자주적 교류에 기초하면서도 그것이 전국민적 통일방안 합의라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집중되고 있다.

88. 89년 여성운동의 통일운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경험은 이후 여성운동내에 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였다

90년대의 통일투쟁은 이러한 잠재적인 통일운동의 열기를 아래로부터 확실히 재결집시키고 계획성있게 벌여 그동의 엄청난 단결성, 고립분산성을 극복하고 90년대 안에는 반드시 조국통일의 원년을 쟁취하겠다는 결의와 각오로 한층 높여 도약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2) 88. 89년 통일운동에서 여성운동의 역할에 대한 평가

88. 89년 통일운동에서의 여성운동의 역할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한계짓는 두가지 조건을 전제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체 구국운동의 성장, 발전과의 연관의 측면과, 둘째, 통일운동에 대한 여성운동의 현재적 수준이다.

첫번째 측면은 통일운동에서 여성운동의 역할이 전체 애국민주세력의 통일운동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 수준의 대중적 성장에 규정받는다는 것으로서 87년 6월민중항쟁 이후 대중적으로 고양된 반미 반독재투쟁을 통한 통일운동의 사회정치적 토대 마련, 88. 89년으로 이어지는 선도적 통일운동은 이제껏 분단으로 인해 사상

적 고아, 분단의 가장 큰 희생자로서 초보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두번째 측면은 통일운동의 한 주체로서 여성운동이 갖춘 인식과 실천의 현재적 준비정도를 말한다. 이는 88. 89년의 통일운동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논의나 대중적 실천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나 분단의 원인이나 분단현실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 수준은 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고 실천의 조직화정도 지식인 여성 중심으로 지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88. 89년 통일운동에서의 여성운동의 역할은 낮은 차원의 실천과 여학생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88년 청년학생들이 6.10, 8.15 남북학생체육회담을 제기하면서 통일운동의 대중적 지평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청년학생 중심의 북한바로알기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여성운동 차원에서는 각학교 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주로 북한에 대한 체계적인 선전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88년 11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대표 2명이 스위스 글리온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O) 모임에서 북한의 교회여성 2명과 만나 남북한 종교인의

자주적 교류에 관해 상호 논의하였다.

그리고 반미운동과 관련하여서 88년 하반기에는 각대학 여학생회와 재야여성단체를 중심으로 AIDS추방을 위한 다양한 선전과 집회들이 수행되었다. 89년에 들어와서는 7월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재야와 일부 부문 계열운동이 결합하여 통일운동은 광범위하게 확산되게 된다. 여기서 여학생운동을 중심으로 88년보다 폭과 깊이를 더하는 북한바로알기운동이 진행되며 여학생운동의 의식수준과 역할이 증대되게 된다.

통일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한국사회 변혁운동과의 연관 속에서 그 지위와 역할이 옮겨 보강될수록 통일운동의 주요한 동력으로서의 여성운동의 역할은 그 요구수준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88, 89년 통일운동에서 여성운동의 역할은 전반적으로 대중투쟁의 상승발전 속에서 그 역할이 끊임없이 증대되고는 있지만 여성운동내에서의 통일운동에 대한 의식과 실천의 수준이 아직은 낮은 단계이며 참여의 폭도 협소하게 형성되고 있다. 즉 역대정권의 분단체제유지와 정권안정의 반복반공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희생양의 되어왔던 여성들의 통일운동에 대한 의식수준은 아직은 낮은 단계에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통일운동도 청년여학생, 지식인여

성, 종교여성 중심으로 성장되고 있다. 실제로 기층민중여성들의 참여수준은 극히 저조한 편이다. 또한 지식인여성 중심의 통일운동도 그 역할의 측면에서 보면 여성대중의 생활상의 이해와 요구로부터 출발한 운동이 아니다. 다만 상황대응식의 즉자적인 통일운동에 머물러있다. 전체구국운동에서 부문운동으로서 요구되어지는 투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88, 89년 여성운동의 통일운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경험은 이후 여성운동내에 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층여성대중에 대한 의식화·조직화가 이루어지고(이는 여성들이 속해있는 각계각층 속에서 처지와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청년여학생, 지식인여성, 종교인여성을 결집시키고 통일운동에서 여성운동의 인식과 실천수준을 증대시키고 실제적 역할을 높여야 한다. 여성대중들의 생활상의 이해와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통일운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면서, 이것을 통일의 당면한 과제에 지향·복속시켜야 한다.

대중운동 지도의 의식화, 조직화사업은 모든 운동을 대중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실제적으로 대중주체역량 강화가 현시기의 운동단계에서 요구되는 필수적 과제이다

5. 여성운동내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방법론 및 통일운동에서 여성운동의 당면과제

(1) 여성운동내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방법론적 시도

전체 구국운동의 현단계의 특징은 대중운동화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80년대 우리 운동은 승리와 패배의 과정을 경과하면서 사람 중심의 자주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운동이 대중들에 의해 접수되게 되었고, 광범위한 대중들이 스스로의 자각에 의한 적극적, 능동적 자세로 운동에 참여하는 단계인 것이다. 대중운동지도의 의식화, 조직화사업은 모든 지향점을 여하히 모든 운동을 대중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실제적으로 대중주체역량 강화가 현시기의 운동단계에서 요구되는 필수적 과제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전체 구국운동에서의 여성운동의 의식화, 조직화 수준은 낮은 단계에 있고, 특히 통일운동에서 여성운동의 주체적 역량은 대단히 미약한 수준에 있다.

하지만 현시기 운동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대중주체역량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았듯이 통일운동의 절반의 역량인 여성운동(여성)을 당면의 조국통일운동에 목적의식적으로 조직 동원하는 것은 여성운동의 강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만 아니라 전체 구국운동 역량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 담보인 것이다.

대중을 운동에 목적의식적으로 조직, 동원한다는 것은 지도주체가 대중을 대상화, 수단화함으로써 운동의 주체인 대중을 운동으로부터 이탈시키거나 소외시키는 기존의 낡은 지도관점을 극복하고 올바른 방법론에 입각한 대중운동의 활성화를 성과있게 보장함으로써만 효과적으로 가능하다.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적 시도의 목적은 현단계 통일운동에서 여성운동의 인식과 실천의 수준을 정확히 타산한 가운데, 여성운동에서 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지도방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90년대 통일원년 완성이라는 과제에 복무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단기적 계획 뿐만 아니라 장기적 계획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① 먼저 여성 차원에서 통일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민족사적·시대사적 요청인 통일에 대한 절박성을 확인시키는 것에 대하여

통일논의가 활성화된다 함은 통일의 주체인 애국민중이 높이 쌓아진 분단의 장벽을 부수고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의 방도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들은 정권의 반공반북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이 맹목적 반북의식으로 둔갑하고 그들의 통일외지는 멸공멸북의식으로 왜곡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통일외지를 표출할 공간을 상실당한 채, 왜곡된 의식만을 지니면서 잠재적 역량으로서만 존재해왔다. 그러므로 여성사이에 통일논의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통일에 대한 참여가 보장되며 여성 스스로 통일의 방법과 전망을 밝혀내는 것으로 여성이 통일운동의 주체가 되어 통일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현재의 통일논의는 여학생이나 지식인, 종교인여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80년대의 강고한 반미반독재투쟁은 기층민중역량의 비약적 성장을 가져왔고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농(전국농민총연합회)의 조직적 결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도 조국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성노동

자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논의가 초보적이거나 활성화되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미국의 수입개방압력 속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온 농민들의 의식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고, 여기에 그동안 지역적 고립분산성과 가부장제의 보수성으로 인해 자신의 자주성을 끊임없이 유린당해 왔던 농민여성들도 농민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초보적이거나 가지게 되었다.

통일투쟁의 동력으로서 여성의 조직화는 관건적 문제이다. 그리고 현재 여성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실천수준을 기초로 통일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를 구체화시켜 이를 전 여성차원의 요구로 끌어올리는 것이 현재적 과제이다.

② 여성을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에 대하여

여성이 통일운동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46년 동안 분단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해 여성들에게 강요해 온 잘못된 의식과 조건을 극복하고 실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로, 여성들을 강제해온 보수주의적 소극성을 타파해야 한다. 내외 민족분열주의자들은 분단고착화 과정에서 봉건적 가부장제적 질서를 전사회적으로 유지·온존시키고 이 속에서 여성들에게 보수주의적 소극성을 강요하였다. 특히 6. 25전쟁을 경험하면서 여성들의 전쟁에 대한 피

여성해방운동과 한국사회변혁의 일영역인 조국통일운동은 동시적으로 진행될 때만이 그 성과가 보장되는 것이다

해의식은 여성들을 맹목적 반북반공에 젖어들게 하였으며 이것이 보수적 소극성으로 표출되는 내면적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주의적 소극성을 극복하지 않는 한 여성들로 하여금 현실을 옮겨 보거나 실천을 하는 것을 막아 나서는 것이다.

둘째, 민중지배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남녀차별을 사회적으로 없애야 한다. 지배자들은 남녀간의 차이를 차별로 둔갑시켜 이를 여성수탈의 한 방편으로 이용한다. 계급사회의 발생과 더불어 생겨난 남녀간의 차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극치를 이룬다. 원래 자본주의는 극대이윤의 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봉건적 질서를 유지·온존시켜 남녀차별을 노골화하여 여성을 무제한적으로 착취한다. 특히 식민지 여성들은 제국주의의 수탈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민주적 권리의 행사, 고용기회의 균등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억압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조건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민감한 통일운동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극소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③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의 결합에 의한 수행에 대하여

조국통일이 제계급계층적 차원의 절박한 과제이고 진정한 여성해방은 조국통일의 완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당장 여성자신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온갖 차별과 착취를 없애며 자주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여성해방운동의 중요성을 절대 감소시킬 수 없다. 여성해방운동과 한국사회변혁의 일 영역인 조국통일운동은 동시적으로 진행될 때만이 그 성과가 보장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배제하고 하나만을 독단적으로 수행해서는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여성해방을 차단하는 억압구조 자체가 분단에 의해 유지·강화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가부장제적 권위질서를 극복하고 직장에서는 남녀 차별고용 및 임금지급 차별 및 여직원에게 가해지는 봉건적 억압구조를 청산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권위주의적 권력구조 철폐, 민주민권의 균등한 실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여성들의 의식이 깨이고 조직화될 때, 이것을 토대로 하여 전 민족적 과제인 조국통일에 대해 여성들은 자각적 능동성을 발휘하며, 통일운동의 당당한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후세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인식과 실천에서의 변화와 통일운동에의 적극적 참여는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이들 후세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④ 각 계급계층별 여성들의 통일운동을 대중화하면서도 이를 통일·집중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통일이 우리 민족의 삶의 문제이고, 민족의 자주적 삶을 이루기 위한 절박한 과제이기에 통일의 의지와 열의를 갖고 있는 전 대중의 단합된 힘을 필요로 한다. 민족분열주의자, 사대·대국세력의 반통일 영구분단책동을 분쇄하고 전 민중이 통일의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과제를 자신의 과제, 자기 계급계층의 과제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요구된다. 식민지 여성들도 자신의 계급적 처지와 자주성의 억압 정도에 따라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과 절박성에 대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달리한다. 그러므로 각 계급계층 여성들의 다종다기한 실정과 요구에 맞게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도 이를 하나의 집약된 힘으로 모아내는 것은 통일운동에 여성을 당당한 주체로 내세우기 위한 관건적 문제이다.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경과하면서 이땅의 노동자들도 역사의 주인, 변혁운동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노동자들의 의식수준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 폭과 깊이에 있

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최근에 반민중적 개방경제정책하에서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의 노골화와 외국의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직접진출 속에서 제국주의적 정치·경제적 수탈이 노골화되면서 이들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피코 여성노동자와 마산 수미다와 외국은행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노동자들 사이에서의 반미반독재 투쟁의 발전과 더불어 통일운동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더구나 미국의 금융·보험업 및 서서비스업 중의 직접적 진출속에서 이들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반미자주화 및 조국통일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의지는 더욱 급속한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87년 7~8월 대투쟁이후 일반노동자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의 급속한 발전 및 남성노동자들 남편으로 하는 여성들의 적극적 투쟁은 통일운동의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최근 전노협의 강령중 조국의 통일에 대한 노동자들의 명확한 입장표명에서 여성노동자들 사이에 통일은 의 활성화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분단조국의 제국주의 최후의 수탈의 대상인 농민의 경우도 87년을 경과하면서 미국의 거들된 수입개방압력과 농민대중의 의식변화는 농민의 경우도 반미자주화·조국통일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기 위한 주객관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이라는 지역적 고립성과 봉건 유교질서하에 제국주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각자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통일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여성차원의 단일한 역량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의자들의 3~4층의 수탈의 대상이었다. 여성농민들도 농민의 자주적 조직에서 투쟁을 하면서 의식의 급속한 변화와 실천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면서 통일운동의 주체로 서기 위한 주체적 조건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종교인 여성들의 통일운동의 참여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기독교협의회는 88년 2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회 선언'을 발표하면서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회년'으로 선포하였다(회년은 안식일이 7번 되풀이 되는 49년이 끝나고 50년이 되는 해이다). 1995년은 분단 50년째 되는 해로, 이 회년을 맞이 위하여 종교인들은 '회년을 위한 대행진'으로 통일운동과 교회갱신운동과 신앙공동체로서의 평화통일교육을 폭넓게 시행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여성 종교인들의 실천도 급속한 발전을 보일 전망이다. 그리고 그간 통일운동을 선도해 온 여학생, 지식인 여성의 통일운동도 노동자, 농민 등 기층여성들과 깊은 연대를 모색하면서 한차원 높은 통일운동을 전개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각계각층 여성들이 각자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통일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여성차원의 단일한 역량으로 집중시키는 것

이 요구된다.

(2) 통일운동에서 여성운동의 당면 과제

88, 89년 통일운동을 경험하면서 이제 여성들도 자신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모든 억압과 수탈이 근본적으로 외세와 사대·대국세력이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분단체제에서 비롯됨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초보적인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록 통일운동이 여성 자신들의 절박한 요구로써 일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또한 기층여성들에 흔흔히 외쳐져서 전개되지 못하고 억눌린 통일 의지를 일시적 분출로써 모아내는 독자적 투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운동에서의 여성대중의 인식과 실천 능력의 비약적 발전과 조국통일이 여성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여성대중이 통일운동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는 기층여성단위에서 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일관성 있는 투쟁을 통하여 한층 더 도약시켜야 한다. 또한 통일운동에서 여성운동의 독자적

내용을 확보하고 다양한 투쟁형태와 방법을 통해 통일운동을 여성대중 자신의 운동으로 전환시켜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여성노동자, 농민여성 등 기층여성대중을 기본역량으로 하여 여학생, 종교인 여성, 지식인 여성등이 결합하는 형태로 통일운동에서 여성대중역량이 기초, 축성되어야 한다. 즉 분단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당하여 통일을 가장 절박한 자신의 생존권적 문제로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기층 민중여성을 기본축으로 이념적 선진성과 투쟁의 선봉대로서의 여대생, 양심적 종교인 여성, 양심적 지식인 여성등이 결합하는 형태로 여성대중의 통일운동이 조직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대중도 통일투쟁의 대상역시 미국일 수 밖에 없다는 반미조국통일의 관점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88년 이후 반미투쟁의 새로운 국면으로의 도약은 통일운동의 정치사상적 기초와 대중적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즉 IBM, 모토로라, 한국피코 등 다국적 기업에서의 노동자들의 투쟁,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맞선 농민들의 투쟁등 변혁운동의 기본역량이 주가 되어 반미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문화, 종교, 여성 및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보조역량에까지 반미투쟁이 확산되는 반미투쟁의 대중화를 얻어 나가고 있다. 특히 한국피코, IBM 등 다국적 기업 사업장에서 보여 준 여성노동자들의 반미투쟁은 반미관점을

견지한 가운데 완강하게 전개되었고 여성노동자들의 반미의식의 성장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셋째, 여성대중들 사이에도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의 전망을 세워야 한다. 88, 89년 통일운동을 경험하면서 통일운동의 과제도 낮은 수준의 각계각층의 자주적 교류에 기초하면서 그것이 전 민중적 통일방안의 합의라고 하는 하나로 집약되어 가고 있다. 이에 여성대중도 조국통일의 장기적 전망 속에 통일방안의 합의를 자신의 과제로 내세워야 한다.

넷째, 모든 운동이 대중 자신의 것으로 되었을 때 진정한 힘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통일운동도 여성대중 자신의 생활공간에서부터 통일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구체화시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통일운동의 대중적 기반의 축성되고 여성대중에 의한 통일운동의 승리적 전진이 보장된다.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 농민 여성의 수입개방 반대투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초로 민중적 차원의 자주적 교류의 방도를 내와야 한다. 또한 북한 여성 바로알기 운동을 기층여성 차원으로 확산시키고 AIDS 반대투쟁, 국가보안법, 첩보투쟁, 양심수 석방투쟁을 전 여성적 문제로 제기하여 통일운동의 여건을 원할히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 문화계 여성들이 전개하는 반핵 평화운동이나 자주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연대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전 여성차원으로

식민지 분단 조국의 또하나의 절반인 여성대중이 통일운동의 직접적 주체로 나서는 것은 90년대 통일위업 완성의 중요한 담보이다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대중적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여성대중이 통일운동의 당당한 주체로 서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III. 맺음말

격동의 80년대를 마감하고 90년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80년대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90년대의 새로운 도약을 내실있게 준비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는 미-노일당에 의한 친미 보수대연합이 획책되고 파쇼적 공안정국이 계속되면서 민중에 대한 유례없는 탄압이 더욱 더 노골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의 당당한 주인, 변혁운동의 굳건한 주체인 민중의 자주적 의지와 힘은 고딕분산성을 벗어나 조직적 결집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토분단 이후 반세기가 가까와오고 미국 침략자들과 파쇼독재자들의 억압과 학대밑에서 참혹한 식민지 노예생활과 민족분열을 강요당해온 우리 민중의 굴욕과 분노는 더이상의 노예적 굴종과 분열주의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 우리민족의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미국과 노태우정권의 책동에 의해서 통일의 앞길에는 더 엄혹한 난국이 조성되고 침략과 대결의 과정속에서 민족파멸을 초래할 핵전쟁의 위협만이 감돌고 있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우리 민중으로 하여금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민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만년의 한 역사를 두고 한강토 위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중은 영구분단의 기로에 놓여 있는 오늘의 난국을 수수방관하면 더 큰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정의와 애국의 피가 끓는 사람이라면 민족의 통일에 대해 절대로 의면할 수 없을 것이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상과 정견의 차이, 신앙, 사회적 지위와 과거를 막론하고 통일의 기치 밑에 굳게 연대, 제휴해야 한다. 그래서 분단 50년이 되기 전에 저주로운 민족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여기서 식민지 분단조국의 또 하나의 절반인 여성대중이 통일운동의 직접적 주체로 나서는 것은 90년대 통

일위업 완성의 중요한 담보이다. 분단을 극복하지 않는 한 오늘날 여성대중이 처해있는 온갖 억압은 결코 가시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여성해방의 결정적 조건은 바로 조국의 통일에 있음을 지난 역사적 경험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70고령의 문익환 목사, 애절한 여대생 이수경양, 종교적 양심 문규현 신부 등이 민족의 통일을 한시라도 앞당기기 위하여 분단의 사슬을 끊고 북녘 땅을 갔다 왔다고 독재의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다. 조국의 진정한 통일을 염원하며 30~40년을 감옥에서 보낸 이들이 얼마이고, 통일의 성전에 한몸 바친 이들이 얼마인가. 살아있는 우리는 결코 이들의 죽음과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의 못다한 뜻을 우리들이 해야 한다. 그리하여 반드시 오고야말 통일조국의 참된 세상을 앞당겨야 한다.

80년 광주민중의 피의 절규를 가슴에 안고 거침없이 달려온 80년대가 마감되고 90년대가 시작되었다. 80년대를 통하여 우리 민중의 자주적 힘

은 증대되었고 이는 최후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암흑이 올면 새벽이 온다. 이 땅의 여성들이 통일의 성전에서 단결하고 투쟁한다면 이 캄캄한 대지에도 바야흐로 민족분단의 장벽을 허물며 땅국의 어둠을 삼켜버릴 통일의 여명이 밝아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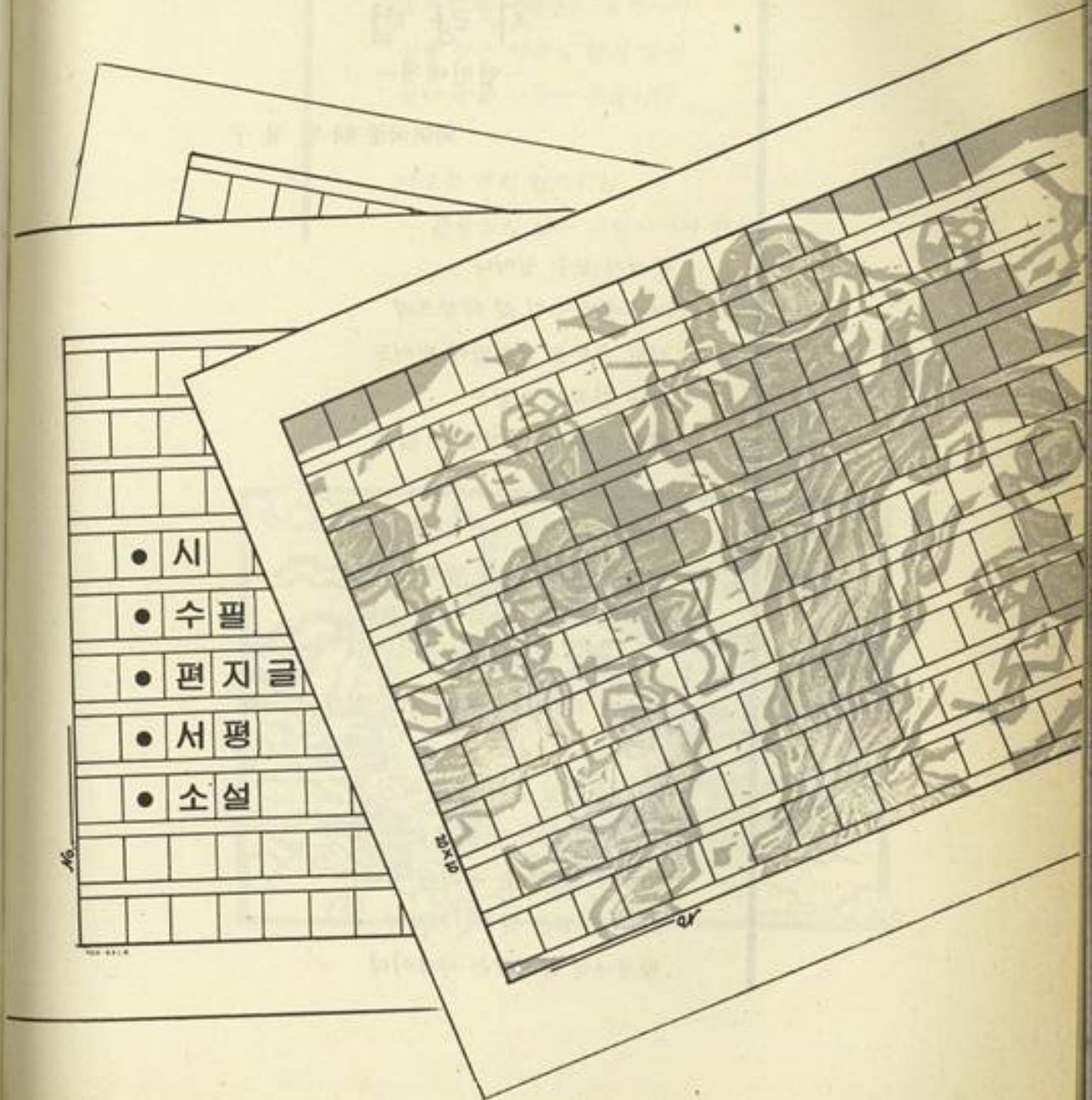
'2천만 여성들이여, 한라의 유채와 백두의 진달래가 하나되는 그날까지 통일의 주인으로 우뚝서라'.

필자의 절대적 능력부족과 여러가지 한계로 인해 이 글이 원래 목적한 바에 충실하지 못하였다. 여성대중의 생생한 현실에 입각해서 통일운동의 활성화의 구체적 방도를 모색하려고 하였으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창조성이 결핍된 느낌이다. 더욱 더 구체화, 풍부화시키는 것은 여성 자신이 통일운동의 주체로 서서 활발한 실천활동을 벌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조국의 진정한 통일과 여성의 완전한 해방을 기원하며, 필자 또한 이러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잉태글사랑

- 시
- 수필
- 편지글
- 서평
- 소설



사 랑 법

-연인에게-

국어국문 84 번 정 수

우리가 모두 일어나
저들에게 앓긴 삶 되찾으려
가진 기쁨을 남김없이 베풀어
끝내 간직하고 싶은
환한 웃음 한 조각일 수 없다

더불어 가는 힘겨운 길에
내일의 어깨동무를 핑계 삼아
너와 나의 곁방으로 잠시 들어
가쁜 숨결 풀어내리는
포근한 위안 한 자락일 수도 없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여기
결코 지쳐서는 안될 오늘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은
누릴 수 있는 단꿈이기보다
떨쳐나설 끊임없는 싸움이다

부끄러운 너와 나를 우리로
힘차게 묶어세우는 채찍이다
살을 찢는 아픔에 함께 맞서
성난 눈물 나누는 불꽃이다

서로를 깨워 일으키는
— 흔들리지 않는 것발이어야 한다.



목동에서

철학 89 김 선 일

담담한 아파트 창문을 열고
서늘으로 아슬히 보이는 산고개
그 얇막한 집부스러기들,
저 희끄무레한 불빛들이
한 때는 이곳에서
그래도 정겨운 삶을

새벽이면 공사장 막일로
후미진 시장골목으로
서둘러 나서야 했지만
기우 뚝 섰는 무허가 판자집일망정
등 따습게 비벼댈 아랫목이
반가운 웃음으로 마중나오곤 했었다는
옛날이야기처럼만 생각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요

하늘 가장 가까운 데로 쫓겨나앉은 사람들
그런 만큼 추위 나무쟁이들은
참 오래도 방장을 떨어대면서
더 높은 곳으로
되지 않는 곳으로
밀어올렸다 하더군요

이른 아침 갓 퍼올린 물로 빨래를 하다
허름해진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 것은
시덥잖은 겨울 쭈뼛 너끈히 이겨내는 사람과
어디보담도 일찍 찾아드는 아침햇살이
얼어붙은 이 손, 굳게 닫힌
우리네 마음을 활짝 열어제켜
온 누리 한껏 너울대는 세상
언젠가는 깃들리라
믿는 까닭이지요.



하늘 편지4

국어국문 89 김 병 길

가루에서 돌아와
 구겨진 담배갑에 詩를 적으며
 그는 울었다.
 길게 내뿜 담배 연기에
 이름 모를 거리에 뿌려졌을
 그의 살점이 날리고
 벌거벗은 가슴엔
 새파란 후배 앞에서 차마
 부르지 못할 이름들이
 노을로 번지고 있었다.
 식민지이어서 아름답다던 그에게
 좌경용공이란 낙인으로 등돌린 조국.
 배신은 사랑의 배신이기에
 그의 눈물꽃만큼이나 아름다운걸까?
 잠들어 뒤척이는 그의 얼굴에
 꿈꾸던 이름들이 물기어린 미소로 피고
 그가 적던 담배갑에선
 허물벗은 詩들이 알을 깨고 있었다.

수필

여자라는 이유로...

국어국문 86 김 상 미

여성에게 있어 직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등한 조건에 학교성적과 능력으로 따지자면 오히려 남성들보다 우수할지도 모르는 여성들이 왜 취업이라는 문 앞에서는 따돌림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비단 단순한 남녀차별에서 온 것만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나는 내가 몇 개월 되진 못하지만, 나름대로 겪었던 남녀 차별의 현실을, 그리고 우리 여성들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머릿속에 더 무섭게 자리잡고 있는 남녀 차별의식을 앞으로 얘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내 자신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 저질렀던 못난 실수들을 밝혀 나와 같은 실수를 되도록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쓴다.

요즘 우리 학교의 졸업반 여대생들의 경우 취업희망자는 적어도 90% 이상이라 생각된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다. 나의 생각은 자신이 원할 경우 결혼 후에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나에게 4학년이 되자 악마처럼 닥쳐온 취업의 좁은문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놀고 싶은 것들 참아가며 영당이에 땀띠가 나도록 책상에 붙어앉아 공부해 왔으니 앞으로의 내 장래는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다. 진정으로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 남자와 겨루어가며 멋지게 일을 해내는 당당한 나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와 전공조차도 그다지 인기학파가 아니라는 것으로 여자들은 아예 서류심사에서부터 탈락된다는 선배들의 말은 얼마나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결국, 남녀차별이 덜 심하고 보수가 괜찮으며 결혼 후에도 다닐 수 있으리라 여긴 외국인회사 쪽으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별스런 '백'도 '줄'도 없는 내가 친구의 먼 친척이었던 무역상사 사장을 알게 된 것은 여름방학과 동시에 내게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사실, 허영심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썩 내키는 곳은

아니었다. 하늘로 치솟은 높고 번쩍거리는 빌딩, 우아한 사무실이 아닌 이제 막 시작하는 갓난 회사의 창단멤버로 온갖 고생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은 나를 무척 망설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10년 후를 내다보자'라는 생각과 취직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남녀 차별 전혀 없이 승진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나의 능력을 믿는다는 사장의 말은 나로 하여금 다녀보자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다. 7월 초부터 다니기 시작한 그 회사에서의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다. 첫날과 둘째날은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놀라고 세째날과 네째날은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에 놀라고 다섯째와 여섯째날엔 언제 그만둘까 하는 내 생각에 놀랐다.

하루 8시간도 더 되는 근무시간 중 내가 하는 일의 70% 이상은 환경미화였다. 출근은 남보다 30분 일찍 해야 했다. 환기를 시키고 에어컨을 틀고 바닥 청소, 책상 닦기, 재떨이 비우기, 쓰레기통 비우기, 컵 닦기, 물 끓이고 커피타기 등이 일이 끝나면 팩스정리, 타자치기였다.

어쩌다 한 번씩 하는 번역 그리고 2~3일야 한 번쯤 오는 외국인의 전화를 빼놓고는 내가 하는 일은 내 능력과는 전혀 무방한 일이었다.

불평을 하는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나를 제외하곤 다 남자였다) 처음 들어오면 그런 잡일부터 한다면, 언젠가는 함께 뛰어다니며 일하자라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나도 신출내기라 너무 건방진 것은 아닐까 하여 좀 더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나에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보조역할, 치닥거리 역할 그리고 심하게는 파출부나 다름없는 역할 등을 맡기면서, 전혀 감사하거나 미안한 마음없이 당연히 여성인 내가 해야 하는 일로 여기는 듯한 분위기는 나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다.

다행히 내겐 생각할 시간은 많았다. 출근하고 간단한 회의를 마치고 나면 10시 쯤 모두들 거래처로, 무역센터로 출동하고 나는 걸려오는 전화를 받거나 정리하는 일만 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도 회의에 참가하여 같은 동료로서 나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없었다. 물론 거래처라고는 한 군데도 가보지 못했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었으므로 솔직히 나에겐 제시할 의견조차 없었다.

사표를 쓰기 전날, 그만 두겠다는 나의 결심을 굳히게 해 준 일이 있었다. 부장이 출장을 다녀오고 과장은 서울의 모거래처와 중요한 계약을 맺은 날, 오후 6시부터 회의가 시작되었다. 전혀 내가 짊어질 분위기가 되지 못했고, 한 달이나 지났지만, 그 계약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한 시간이나 지나도록 나는 뭐라는 보리자루처럼 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결국 한 시간 반이 지나자 나는 도저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견딜 수가 없었다.

"전 퇴근해도 되지 않아요?" 소외당한 기분나쁨과 온갖 불만이 섞인 내 말에

"퇴근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뭘 하고 있었어? 앞으로 시간이 되면 알아서 가라구. 그렇게 명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하고 통명스럽게 내뱉는 것이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계단이 보이질 않았다. 눈엔 온통 눈물이 고여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다. 화장실에 들어가 실컷 울고 집에 가 사표를 썼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봉급은 얼마 되지않고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매일 영어사전을 붙들고 원고지와 씨름하는 출판사의 번역 일이지만, 매일 한 가지씩 배우는 것이 있는 것 같아 보람있다. 물론 출판사에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흔하므로 남자사원을 우대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차별을 대하면서 처음엔 눈물도 흘려보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사원에 대한 회사의 반응은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는 식이다.

남녀차별을 우리는 단순히 유교적인데 그 원인을 두고 캐케묵은 생각으로 단정지을 일이 아니다. 왜 아직까지도 여성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원인은 여성들 자신에게도 없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부분 취업을 원하는 여대생들 경우에도 결혼하면 그만 두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리고 결혼 후에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경우에 자기의 일에 대한 충실도가 남성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이한 직업관을 갖는 여성들이 많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업에 목숨 건 많은 여성들조차 피해·보는 것이다. 물론 여성으로서 가정을 꾸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기가 평생 직업을 가질 생각이든, 결혼전까지만 가질 생각이든 간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만은 남자와 다름없이, 아니 더 뛰어나게 노력해 주기를 우리 여성 모두에게 바라고 싶다.

그리고 취업을 하려는 여성들은 부디 서둘러 말기를 바란다. 우선 내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우선 열심히 하는 것이 옳다. 보수가 많기를 바란다면 영어회화, 타자, 속기 등을 두루 갖추고 미모에도 신경을 써서 고급 비서직을 가도록 하고, 보수보다는 보람을 얻기를 바란다면 원하는 그 일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여성이 되라는 것이다. 대학시절에 공부를 잘 해서 학점을 따두는 것도 한 가지이다(공부를 너무 잘 해도 뭇아 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있다).

아무런 준비없이 대학졸업장 하나만을 달랑 들고 입에 맞는 떡이 굴러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바보짓이다. 부디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란다. 올 한해 취업하려는 여성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편지글

결혼을 하는 박형에게

영어영문 86 고 정 아

바깥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날씨야 어떻든지 간에
우리네 시간을 관통해 온 냉기야 변함이 있을까요마는
그래도 칠없는 꽃들이나마 병글병글 시절을 웃어 줄때가 조금 더 인간미
느껴지지 않겠어요? 아뭇튼 상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별 수 없이 겨울 나라에서 신부를 맞아 들이게 된 형의 결혼을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늦게, 아주 늦게 대학의 문을 들어선 것,
그리고 그러한 세월의 낙차를 빚을 수 밖에 없었던
평탄치 않았던 형의 청년 시절
게다가 나이 많은 대학생으로서 형이 보여 준 세계에 대한 심상치 않은 정열은
사고와 연륜이 함께 풀던 제게 충분히 의외롭게 각인되었습니다.
헌데 그런 형이,
열살이나 어린 후배들과 박치기 싸움을 하고 매일 같이 지치지 않는 독설로
선배, 후배, 동기 할 것 없이 치도곤을 해대고 사흘이 멀다고
술에 취한 동료들을 자취방으로 실어 나르던 시들지 않는 청춘의 형이
갑히 가정을 꾸리겠다는 평범한 소망을 품은 불순함에 대해서는
패썸죄가 적용될 부분이 많지만
일단은 저도 가장 평범한 형의 지인이 되어서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윤기 잃어 푸석거리는 세상에서 형을 전심전력으로 받아 줄, 그리하여
쉬지 않고 형을 경쟁시켜 낼 귀한 한 사람을 얻었다는 것이
이 조건 없는 축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조건이 붙어 마지 않는 까다로운 축하들입니다.
행복이 되기에는 오늘 우리의 날씨가 너무 춥지요.
아무지개 불을 지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조건들로 형이 동감, 통감을 넘어

“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세계에
대한 정열과 신념으로 우선 만나야 한다는 것
”

불평등 시대의 정의로운 청년과 아울러 세상의 무지와 무책임함을 이기는
한 여성의 진실한 동지가 되어 줄 때 저는 형에게 내렸던 패썸죄를
서둘러 각하하겠습니다.
그 때
그 높고 높은 곳에 형이 쉽지 않게 마련한 신방을 언니보다 먼저 침입했던
무례의 밤에
결국 형에게
“왜 결혼을 하세요?”
라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노파심은
결코 이제까지 여자들이 살아 온 세상을 되풀이 시켜서는 안된다는
우리 여자 후배들의 순진하고 단단한 다짐이고
또 그것을 형이 도와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이기도 했던 걸 형은 모르지 않으셨겠죠.
그 조건이자 기대의 처음은 이렇습니다. 형 스스로 주부가 되세요.
그리고 언니도 함께 호주가 되게 하세요.
문패를 달 필요가 있으면 두 개를 나란히 달고
부엌 살림에는 절반쯤 형의 손때를 입혀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늘 할머니와 어머니의 ‘시집 이데올로기’공세에 시달렸습니다.
두분 다 곱게 자라서 지체 있는 안방 마님이 되지 못한 힘겨운 인생이었고
그 힘겨움의 절반쯤은
남편이라는 이름의 무책임한 권위가
직간접으로 저지른 악덕에 의함이었던단
순종하고 사는 당신들은 당연히 여집과 아울러 당신들의 딸들, 손녀들에게까지
그러한 삶을
물심양면으로 호소해 오셨습니다.
아마 언니의 스무 남짓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자가 남자에 의해 선택되기 위해

또 남자를 지탱해 주기 위해 사는 게 절단코 아니라는 것을
 그리하여 이 사회의 폭압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나 자본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한결 더 여성들을 짓누르는 세계관의 거짓됨을 형이 폭로해 주세요.
 세상 일에 땀이 있어 큰 나무를 예고하는 것이라면
 형과 형의 신부되는 언니로 해서
 그 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저는 일찍부터 거기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일신 우월주의'에 입각한 남녀 평등주의가
 남자들의 근거 없는 권위주의만큼이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걸
 깨달은 것은
 형이나 형의 동료들,
 나의 뜻 함께 된 벗들과의 바람 잦던 생활을 통해서였습니다.
 남녀평등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평등의 근거는
 인간의 공동체성에 있다는 것.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세계에 대한 정열과 신념으로 우선 만나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헛소문과 가짜 논리들이 무성한 이 시대에 우리를
 바람부는 돌판으로 즐기치게 내몰던
 우리의 '새끼사랑'이었습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왕왕, 때로는 자주
 애정문제에 관해서는 별 수 없이 자신의 골방에 처박혀 버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속수무책인듯한 이 일에 지쳐
 가끔은 무결혼주의자가 되어버리는
 저 자신과 친구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의 들끓는 오르내림을 뚫고
 형이 이번에 과감히 결혼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왜 결혼하느냐"는
 어눌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이제 그 조건의 두번째를 말하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건 남자가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라는 해묵은 기만의 논리로부터
 형과 언니는 동시에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빠져 나와야 해요.
 그 세계란 기회 평등주의라는 이름으로 평등을 호도하고

법과 제제 내에서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말살하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도 오랫동안 고난받아 온 이들의 '눈부신' 노동 위에
 온당한 댓가가 돌아가는 세상인 것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요.
 "물론 같이 해야 할 일들을 깨닫고 있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
 기쁜 일이고."

형의 대답은 간단하고 그래서 명료했지만 그만큼 이후로의 생활로
 풍부히 방증해야 할 여지들을 남겨 두었습니다.
 언니가 형의 우산 밑에서 '사랑받는 아내, 성공하는 남편'을 기도하려
 형의 세계와 손잡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름다운 부부의 탄생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온근히 느껴지는 기쁨을
 제게도 예감하게 합니다.

어때요.

조건이란 게 형의 철학과 다름이 없어 싱거우신가요?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가장 흔히 자기
 논리의 단절을 보이는 곳이 가정이라잖아요. 형도 우리 사회에서의 남성의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 오셨습니다. 가진 자들의 양보라는 게 역사적으로 어디
 있어 왔습니까?

그럴 생각하면 사실 언니를 먼저 찾아가서
 우리를 믿고 마음대로 형을 들었다 놔다 하라고 귀뜸했어야 되는 건데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와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사이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변태 성욕도 아니고 병적인 집착에 의한 자기 연민도 아니고
 뜨겁게 동지애로 만나는 이상

형의 결혼 생활이 언니의 무한한 투쟁과
 그에 기민하게 보조맞출 수 있는 형의 역량으로
 간단없이 전진해 나갈 것을 의심할 수가 없군요.
 참, 지리산 신혼여행단 계획이 바뀐 일정 때문에 무산되었다조.
 곧 입산 금지가 될 텐데 어서 우리 눈치 없는 공정 여행 감시단을 이끌고
 굽이 굽이 역사의 피냄새가 배어 있는
 그 성산(聖山)으로 구혼 여행이라도 떠나셔야조. 원래

서평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읽고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키 지음
유재연 옮김
도서출판 「남풍」 펴냄

『문우』 편집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유명한 소설을 되풀이해서 읽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까? 이 소설의 영향으로 더 순결하게, 더 선량하게, 더 용감하게, 더 대담하게 되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까? 주인공들의 도덕적인 순결성에 감동되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까? 이 소설을 읽고 자기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자기가 지향하는 바나 습성에 엄격한 비판을 가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할 것없이 이 소설에서 정신의 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섭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에 인쇄기가 설치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소설만큼 위대한 성공을 거둔 작가는 없다.

-플레하노프-

I. 머릿말

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러시아의 대표적 나로드니끼인 체르니셰프스키가 농민중심의 민중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러시아공화국 건설을 기도한 뒤 체포된 1862년에 미결수의 몸으로 쓴 것이다.

옥중에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암시적인 수법과 역설적 묘사로 이루어진 이 책을 당시의 러시아청년들은 '생활상의 교과서'로 받아들였다 한다.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시 러시아의 변혁운동을 주도했던 나로드니끼에 대한 성향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로드니즘은 피터대제의 개혁사업에 대한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의 전개과정의 연속선상에서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을 듯하다.

슬라브주의는 범러시아주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러시아의 유기적 통일성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유기적 통일성은 피터대제의 개혁과의 어쩔 수 없는 단절감을 느끼게 한다. 즉, 슬라브주의자에게 있어서 피터대제의 사업은 러시아 국민생활의 본래의 국민적 기초에 대한 배신과 그 유기적 발전에 대한 강제적 단절로 보인 것이다. 슬라브주의의 유기적·전체적 통일성은 정교회에 바탕을 둔 러시아의 혼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현실세계와의 피리를 부르고 그것을 악으로 규정짓는다. 이러한 현세계에 대한 부정은 인민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마땅히 그에 대한 빛을 갚아야 한다는 도덕적 자각을 러시아 인텔리겐차에게 불러일으킨다.

이와 반대로 서구주의는 피터대제의 개혁사업은 절대로 불가피한 것이며, 또한 러시아의 역사에서의 본래적이며 독특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한다. 즉, 서구주의는 슬라브주의가 자본주의를 부정하여 이전의 러시아로의 향수를 느끼는 것과는 반대로 자본주의를 빠른 시일내로 극복하여 이상적인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혁명적 인텔리겐차는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의 대립속에서 자아의식적 각성과 더불어 현세계에 대한 부정을 수행한다. 헤르젠과 벨린스키 등의 인텔리겐차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를 복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로드(민중·인민)이었고 또한 그들이 이루는 농촌공동체였다. 그들은 기꺼이 나로드니끼가 되었다. 당시 나로드니끼에게 있어서 러시아를 복구할 수 있는 나로드는 헤르젠이 생각했던 농민대중이었으며 그들은 또한 벨린스키처럼 새로운 일반자를 위한 매개였다. 따라서 나로드니끼는 브나로드(인민속으로)를 외치며 농촌으로 뛰어들어 갔다.

그러나 그들은 1870·80년대를 거치면서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화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이 진행은 그들이 신뢰한 농촌공동체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 자본주의 가능성문제는 러시아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정확한 문제제기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면 부정해버린 것이었다. 또한 농촌대중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혁명적 역할을 수행하며 오히려 그들을 짜르정부에게로 넘겨주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나로드니끼는 자체내의 분열을 가져왔고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후로는 플레하노프를 비롯한 몇 건(前)나로드니끼가 맑스주의의 러시아로의 보급을 실시하며, 나로드니끼와의 논쟁을 통해 러시아 맑스주의를 강화시킨다.

II. 몸 말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나로드니즘에 대한 이해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통해 체르니셰프스키가 전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체르니셰프스키는 이 글을 통해 혁명가의 모습을 일상적 삶속에 투영하려는 듯하다. 그것은 김남주시인도 지적하였듯이 특별한 인간인 라호메토프에서 잘 드러난다. 라호메토프에 대한 이야기에 할당된 지면은 보잘 것없는 양이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암시적인 분위기를 느끼게끔 한다.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치며 혁명으로의 길에 필요를 느끼는 일이라면 뭐든지 실행하는 엄격주의자 라호메토프.

체르니셰프스키는 라호메토프를 통해서 러시아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 농촌으로 뛰어드는 나로드니끼가 지녀야 할 심성을 표현해내고 있다. 그러나 선구자적·전위적 병사로서의 라호메토프를 그려냈을 뿐 그가 사랑하는 민중의 혁명성·자발성의 중요성은 축소시켜 버리는 실수를 범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베라 파블로브나를 등장시켜야 할 것 같다. 체르니셰프스키는 베라 파블로브나를 통해서—그녀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혹은 그녀의 꿈을 통해서—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녀가 운영하는 바느질가게에 대한 이야기이다.

탁월한 경제학자이기도 한 체르니셰프스키는 공동체생활에서 오는 경제상의 이윤을 오목조목 잘 설명하고 있으며, 그것은 베라 파블로브나의 바느질가게에서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 과정은 순탄한 수밖에 없다. 특히 일정제도에 올라선 이후엔 확장일로로 길을 걸을 뿐 별다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시작하느냐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의 나로드니끼로서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다.

소설을 통해서 볼 때 그 바느질가게의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뤄지게 된 시발은 자각한 베라 파블로브나에게 전적으로 맡겨진다. 즉 나로드니끼로서 베라 파블로브나가 위치지워지고 나로드의 자리에는 바느질여공들이 존재하게 된다. 바느질가게의 효율성은 탁월한 한 여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뿐 여공의 존재는 착한 심성을 지닌 수동적 조력자 이상의 의미는 찾기 힘들다. 또한 그곳에서 설명되어지는 객관적 상황 역시 자본주의화의 길에 접어들고있는 당시의 러시아 상황을 제대로 표현해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러시아 사회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물이해와 선전선동에 있어서의 기술적 오류는 나로드니끼의 커다란 약점이었고 이 소설에서도 역시 면면히 호르고 있다.

한편 체르니셰프스키는 베라 파블로브나와 기타 다른 등장인물 특히 그녀의 전남편 로프코프와 관계를 통해 여성해방사상을 피력한다. 주리의 차조적 한탄

과 더불어 베라 파블로브나는 여성으로서의 부당함을 느끼며 삶의 주인으로서의 모습을 찾고자 노력하고, 그것은 로프코프와의 결혼으로 현실화된다. 그러나 소설이라는 장르상의 문제였는지 모르겠으나 그의 이러한 여성해방사상은 개별적 문제로 국한되어 버린다. 즉 여성해방을 위한 사회구조적·제도적 혹은 계급적 차원의 접근은 전혀 시도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자각한 한 명의 인텔리겐차로부터 그와 접촉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의 교화라는 의미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시도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그의 한계는 소설 전반에 걸쳐 깔려 있다. 평범한 사람 그러나 분명히 이전과 비교했을 때에는 특별한—이라는 말을 쓰며 그는 자신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겸손함을 보이지만 또한 반면에 그러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될 경우 사회는 변한다고 말하며 그러한 사람들은 현재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로프코프같은 자각한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즉 나로드에 대한 도덕적·도외적 자각 및 그를 바탕으로 한 순결성을 지닌 혁명적 인텔리겐차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의 쏠점을 돌려서 체르니셰프스키의 미학을 잠시 언급해보자.

역자서문에 정리된 체르니셰프스키의 유물론적 미학이론의 중심적인 즐거움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다.

“예술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현실인식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때문에 예술은 현실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와 재현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이외의 형식적 경우와 똑같은 발전법칙에 따르는 것이며 예술작품의 분석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계급의 이해를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 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술에 대한 현학적 기교를 인정하지 않는 체르니셰프스키는 실제로 그의 첫 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의 앞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내가 비록 스스로를 예술적 재능이 손톱만큼도 없고 내 소설은 전혀 채택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해도 그 사실이…… 내 소설이 그들(독자들이 위대한 예술가라고 여기는 작가) 작품만큼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쓴 이야기가 정말로 재능 있는 사람들의 작품에 비했을 때 그 성과면에 있어 훨씬 보잘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여러분이 애독하는 저명한 작가의 평판높은 작품과 똑같은 위치에 놓더라도, 혹은 그런 작품보다 더 높이 두더라도 실수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 소설속에는 오히려 그런 저명한 작가의 소설이 담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풍부한 예술성이 담겨 있는 것이다.”

르니셰프스키는 그의 유물론적 미학이론에 충실하게 그의 첫 소설을 만들었

다.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이것도 그의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소설을 판통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의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독자와의 대화자체도 그는 거짓없이 드러낸 상태속에서 실시한다. 그리고 애매한 현학적 기교를 미리 감지하고 있다는 독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며 자신의 소설을 전개한다.

이러한 그의 소설속에서 그는 예술이 지향해야 할 바인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재현을 수행해내고 있다.

III. 맺음말

머릿말과 몸말에서 이 책 『무엇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체르니셰프스키의 유물론적 미학이론과 그의 사상적 중심인 나르드니즘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며 아울러 그것이 그의 소설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의 한계는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물론 역자서문에 “이 소설은 대단히 복잡하고 많은 사상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년시절에 읽었을 때 올바른 평가는 물론 이해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때가 열네살때였는데 표면적인 이해밖에는 못했으니 말이다. 형이 죽은 뒤 나는 이 소설이 형의 애독서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고 한자 한자 온 정신을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아니 몇 주일에 걸쳐서 수차례 반복해서 읽고서야 이 소설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었다. 이 소설은 온 생애를 두고 인간행동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책이다.”

라는 레닌의 말처럼 이 책에 대한 배경 설명 및 저자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그 이해에 있어서 매우 힘든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 소설을 통해 체르니셰프스키가 전하고자하는 가장 주된 주제는 앞에서 한계가 드러난 베라 파블로브나를 둘러싼 여성해방사상—아니, 오히려 여성으로서의 베라 파블로브나보다는 개별자로서의 베라 파블로브나의 모습이 더욱 강하게 비춰질 정도로 그것은 지극히 개별적이다. 따라서 개성해방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과 노동조직의 문제, 그리고 라호메토프를 중심으로하는 러시아 인텔리겐차 특유의 도덕적·도의적 순결성이라고 나름대로의 정리를 내리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1994

유 년 일 기

국어국문 88 김 별 아



엄마가 피우는 담배 연기는 언제나 풍풍 예쁜 도너스 모양을 만들며 떠오른다. 벽에 붙은 잠자리 사진과 약간은 때론 날개를 가진 나비 사진 위로 엄마의 도너스는 겹쳐진다. 엄마의 입술은 버찌나무에서 잘익은 버찌를 따먹은 것처럼 붉다. 엄마의 담배연기도 분홍색 솜사탕처럼 입술 색깔을 알아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말끄러미 엄마의 담배피우는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엄마는 코맹맹이 소리로 나를 꾸짖는다.

“계집애야. 뭐하니? 숙제는 다했어?”

TV의 어린이 연속극에서 극성인 엄마가 흔히 그러듯 우리 엄마가 나를 야단치는 것은, 그 엄마들처럼 나의 성적이 떨어질까봐 걱정하여, 공부 못하면 나중에 가난하게 살게 될까봐 그러는 것은 아니다.

엄마는 아저씨들과 함께 비틀거리며 늦은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술 냄새를 풍기며 어딘가에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울며 돌아와 시궁창 앞에 쪼그리고 앉아 웅 웅거릴 때, 내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꼴을 보면 언제나 숙제는 다 했냐고 나를 야단쳤다. 나는 몇번씩이나 그런 일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엄마의 진의를 간파하고 엄마가 꾸짖기 전에 미리 내방에 틀어박히기 마련이다. 내 방이라고 해야 분홍색 두꺼운 커튼으로 조그맣게 칸막이를 만들어 준 엄마방의 귀퉁이지만, 엄마와 나의 놀이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통과할 수 없는, 높고 두터운 벽으로 약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나에게 진절머리를 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엄마를 포기하지 못한다. 내가 아직도 엄마를 종종 귀찮게 하는 이유는, 우리 엄마가 정말 예쁘기 때문이다. 계집애들이 흔히 공주 인형을 좋아하듯 나는 엄마를 좋아한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동그랗게 통통한 얼굴이 예뻐서 엄마처럼 빨간 입술과 긴 파마머리, 목덜미가 시원하게 드러나는 빨간 원피스를 입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자기를 예뻐한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하는지 내가 간섭하는 일은 딱 질색을 했다.

엄마는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았다. 아니, 미워했다.

세상에 난 지 십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 혼한 생일잔치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엄마에게 언젠가 나를 어떻게 낳았냐고 물어봤더니, 변소에 앉아있다가 그냥 낳아버렸다고 했다. 그날만큼은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이 조금 젖어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평소의 나는 구박대기였고 천덕꾸러기일 뿐이었다.

“이 쌍년아. 혹 같은 년. 너때문에 내 신세가 얼마나 엉망이 된 줄 알아?”

엄마가 술에서 취해 돌아오는 날에 (물론 내가 기억하는 한 거의 매일이지만) 대부분 주정의 대상은 나였고 나라는 혹은 불여준 ‘어느 놈인지 모를 씨’였다. 엄마의 주탕에 따라, 화난 정도에 따라 내가 때맞는 정도도 달라졌다. 좀 심할



때는 코피를 흘리거나 쓰러질때까지 때렸다. 방비와 연탄집게가 내 몸을 명들었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 스스로와 약속을 했다. 나 같은 어린아이의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일지는 의심스럽지만 나는 버텼다. 엄마가 나에게 지칠때까지.

나는 열살먹은 계집아이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의 걸모양만 보고 일곱여덟살로 오해하기도 한다. 어렸을 때부터 그저 죽지않을 만큼만 먹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외국으로 팔려가거나 길거리에 버려지지 않은것만으로도 충분히 엄마에게 감사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의 일은 그저 지나간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 때의 슬픔, 기쁨, 노여움, 괴로움과 외로움들은 그 때의 용명이에 그대로 고여 썩어간다. 그 처럼 어렸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산다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고, 자신의 세상 안에서 가장 큰 자신으로 살아갔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은 무시한다. 만약 내가 그들을 얼마나 꿰뚫어 보고 있으며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지 안다면 그들이 놀라 필적 필까봐, 그들이 흘려버린 시간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나는 시치미를 떼고 있다. 장자라는 중국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버섯은 한달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는 쓰르라미는 봄 가을의 변화를 모른다.’

엄마를 기다리다가 늦은 심야 텔레비전에서 들은 얘기다. 나는 이 어려운 말의 뜻을 알기위해 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른다. 내가 살아온 10년도 결국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 쓰르라미와 버섯이 비록 세상의 전부를 알지 못한 채

죽었지만 그 자체로 쓰르라미의 삶, 버섯의 삶인 것과 같다. 나는 나의 세상에서 완벽한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험한 세상은 누구에게나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배신하게끔 가르친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옷속에서 귀하게 보호받으며 살게 된다면 아무리 어른이 되어 수염이 나고 흰머리가 생겨도 세상을 알지 못하며, 모든 더럽고 치사한 아귀다툼을 일상적으로 겪으며 구박과 눈치 속에서 내뒹굴리며 살게 된다면 나같은 어린 아이도 이렇게 무서운 애 어른이 되는 것이다.

세상은 나이와 상관없이 제가 준 시간의 깊이만큼 자신의 그 흉한 치부를 보여준다.

내가 결국 엄마를 버리게 된 것은 내 삶 속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항상 주장하지만 엄마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를 버린 것이다. 나의 인내심은 날로 단련되고 굳세어졌으며 나의 생활은 항상 유연했다. 하지만 '지미'의 일은 나로 하여금 엄마를 버릴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엄마가 더 이상 예쁘게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우리 두 식구는 이사를 했다. '용산'이라는 동네였다. 어린이 인형극에 나오는 용이 살았던 산일까, 혹은 용의 무덤이 산이 되어 지금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상상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어두운 시장 모퉁이에 방을 얻었다. 전에 살던 곳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곳이었기에 나는 조금 실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곳은 무언가 다른 공기가 흐르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저녁부터 한참을 화장대 앞에서 치장을 한 엄마가 라면을 끓여주고 나간 후 나는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었고 한밤중에야 오줌이 마려워 일어났다. 분홍색 커튼을 젖히려는 순간 나는 평소에 내가 은근히 자부하던 애답지 않은 침착성마저 잊은 채 소리를 지를 뻔 했다. 초콜렛 빛깔의 잘 구워진 흑인이 엄마의 몸을 짓누르며 젖을 빨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 그가 엄마를 죽이려 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의 검은 등판은 땀으로 번질거렸고 연방 코랄소처럼 썩썩거렸다. 두툼한 그 입술로 엄마의 꽃봉오리같은 분홍 젖가슴을 빨고 있는 그 꼴은 마치 괴물이 제물로 바쳐진 인간 처녀를 갖고 노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아랫배가 팽팽해지며 금방이라도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았다. 엄마의 코맹맹이 소리가,

“지미, 그만, 그만.”

이라고 고스톱스럽게 들려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질금거렸다. 그 바람에 오줌이 같이 새어나와 바지를 조금씩 적시고 있었다. 나는 엄마의 품에 안겨 본 기억이 없다. 엄마의 젖을 먹기는 커녕 나들이 한 번 같이한 적도 없다. 그런데 내가 이국의 공주처럼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엄마를 그 흑인은 혀로 핥고 침을 발라대고 있는 것이다. 엄마도 그놈도 더러웠다.

불결했다.

나는 무작정 집을 나왔다. 우선은 시장을 뱅뱅 돌며 내 길을 찾았다. 길은 만 들어지기에 우리는 가야만 한다고 누군가는 말했다지. 하지만 나는 이세상이 얼마나 교묘하게 만들어진 미로인 줄 알고 있었다. 그 미로를 빠져 나가는 죽기보다 어렵다. 내게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로를 부수며 길을 새로 닦을 만한 요술 망치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손수레에 실린 국화빵이나 군밤을 힐끔거리고 있을 때 나는 문득 시장 골목 귀퉁이에서 나를 쏘아보는 눈빛을 느꼈다. 그것은 빠르게, 그러나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내 곁으로 다가왔다. 소름이 자르르 돌았다. 그것은 검은 개였다. 하지만 학교 앞 떡볶이집 누렁이나 내 친구 윤자네 세퍼트와도 다른 묘한 눈빛을 한 바짝 마른 개였다. 그것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빨을 드러내고, 침을 흘리며. 나는 무서웠다. 이 검은 개는, 보통의 개들처럼 곁으로는 으르렁거리려도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파아란 빛까지 뿌리며 나를 쏘아보는 것이었다.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사람들과 마구 부딪히며 도망을 쳤다. 나의 속도만큼 개도 속도를 냈다. 개의 표적은 나 같았다. 아니, 분명히 나였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나를 향해, 오직 나만을 향해 온

다는 사실이 나를 낯설게 했고 두려워지게 했다. 개의 목덜미에 날리는 검은 털을 생각하며 나는 앞만 보고 뛰었다.

‘나를 뒤쫓고 있어, 나를.’

나는 도망쳤다. 겁데기만 공주였던 엄마를 버리고, 끝내 검은 개에 쫓겨 그 낯선 동네를 떠났다.

아이들은 깨어나지 않았다. 아니, 영영 깨어나지 않을 것처럼 돌아떨어져 있었다.

“이 열차의 종점은 성수입니다. 종점에서 모두 하차해 주십시오.”

녹음된 여자의 목소리가 잠에서 막 깨어난 것 같았다.

나는 혼자 조바심치고 있었다.

내가 역무원 아저씨의 눈을 피해 차표도 없이 지하철에 숨어든 후, 몇번을 갈아타고 해매인 후 만난 아이들이었다. 내 또래부터 그 밑으로 들해서 사내아이 셋은 마치 취한 듯 지하철 구석자리를 차지하고 자고 있었다. 사람들을 그들의 때에 절은 목덜미와 코를 문질러 반들거리는 옷소매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고 때로는 동정의 눈길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전철의 덜컹거림이나 오가는 사람들이 떨어뜨리는 소음과는 철저히 차단당하듯, 잠에만 열중해 있었다. 아이들의 발에서 벗겨진 때문은 플라스틱 슬리퍼만이 지하철 바닥에 배를 깔고 주위의 눈치를 할금할금 살피고 있었다.

“얘들아, 내려라. 종점이다.”

문이 열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간섭 안하겠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저마다 종종걸음으로 빠져나갈 때, 내 앞에서 내리던 대학생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이들을 흔들며 깨웠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용기를 내지 못한 나까지 그들을 두고 나가버리면 아이들 셋은 그길고 캄캄한 굴 안으로 꼼짝없이 끌려 들어가야만 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열차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사람들이 빛의 세계로 총총히 사라진 후에 철저히 외면당한 열차는 바랜 형광불빛만 안고 사라진다. 아이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가장 큰 아이가 다른 아이들의 목덜미를 잡아 끌었다. 아이들은 슬취한 비불 걸음으로 정거장에 내렸다. 눈썹이 먹지먹지 눈에 무겁게 앉아 있었다. 잠에서 막 깨어난 후의 짜증스러움으로 가장 작은 아이는 입가를 실룩거리며 눈을 부벼대었다.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끌어내었지만, 환한 빛의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 어둠이 아예 배어 있는 아이들임을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이 비불거리며 찾아간 곳은 어느 어둡고 침침한 골목의 창고같이 생긴 집이었다. 나는 왜 그들을 따라

갔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나에게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리고 내가 굳이 그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에게서 풍겨나오는 어둠의 폐쇄하고 약간 지린듯한 냄새가 나에게는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넌 누구니?”

중간 아이가 뒤를 돌아보다, 대여섯 걸음 떨어져 그들을 졸졸 따라가던 내 눈과 눈이 마주쳤다.

“왜 우리 뒤를 따라오는 거야?”

가장 큰 아이는 그 무리 중 연장자임을 나타내기라도 하듯 다른 두 아이를 뒤로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무슨 일이야?” 큰 아이의 목소리는 다분히 호전적이었다.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편히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사팔뜨기였다. 나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이의 눈은 내 어깨 너머 끈적거리며 흐르는 검은 시궁창이나 아무렇게나 널린 하늘을 보고 있었다.

“갈데가 없다는 거야?”

아이들은 쉽게 내 뜻을 알아차렸다. 눈치가 민감한 촉수처럼 살아있는 예였다. 나는 무겁게 고개를 두어번 주억거렸다.

“어떻게 하지? 예를 데리고 가면 오야봉이 뭐라고 할까?”

중간 아이가 참견을 했다. 가장 작은 아이는 아직도 잠기운이 덜 가신 눈으로 내 빨간 줄줄이 바지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가장 큰 아이는 한참을 고민했다. ‘오야봉’이라고 지칭된 사람을 두려워하는 빛이 역력했다.

“데리고 가자, 또치형. 오야봉이 우리를 도와주듯이 애도 일하면서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중간 아이는 약간 보채듯 나와 가장 큰 아이를 번갈아보며 이야기했다.

“안돼. 어제밤 작업 수입이 형편 없었으니 오야봉이 화나있을 거야.”

큰 아이는 말을 잘랐다. 중간 아이는 그 말에 금세 풀이 죽었다. 세 아이는 나를 등지고 다시 터덜터덜 걸어갔다.

“왜 자꾸 따라오니? 가!”

큰 아이는 한참을 가다 말고 나에게 뱉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또 편히 아이의 눈만 바라보았다. 아이의 날뛴 도끼눈이 조금씩 수그러들었다. 나는 안다. 그 아이가 내게 보이는 동정은 바로 자신의 기억 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이들에게 깊이 패인 기억의 상처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만남을 예고 했음을.

“그래. 오야봉이 봐줄꺼야. 오히려 때를 덜 맞을 수도 있다.”

큰 아이는 기억의 상처에 항복했다. 목소리에 뱀이 풀려 있었다. 중간 아이가

환호성을 질렀다. 덩달아 작은 아이도 팔딱팔딱 뛰었다.

“나는 봉이고 애는 땡이라고 불러. 진짜 이름은 몰라. 그 따위는 동사무소에나 있겠지. 큰형은 또치야.”

중간 아이는 나에게 자신들을 소개했다. 큰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어갔다.

“네 이름은 뭐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학교에서는 나를 ‘김미순’이라 부르기는 했지만 나는 그것에 한번도 대답한 적이 없으니 책임을 질 것도 없다. 영희, 미자, 소영이, 춘자…… 하다못해 마리, 애니까지 수십번 이름이 바뀌는 엄마의 성만 따다 붙은 내이름은 한번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내 겹테기, 내 징그러운 허물을 부르고 있었을 뿐, 이름은 그 누구에게도 불리워져 본 적이 없다.

“병어리인가봐, 형. 그치?”

땡이가 봉이를 쿡쿡 찔렀다.

“그래도 말은 알아들으니 됐어. 병어리 흉내도 내는데 오히려 잘됐지 뭐.”

아이들은 꼬치꼬치 캐물음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쉽게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 나는 우리 아이들끼리의 단순함에 마음이 좋아졌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알 수 있었다. 엄마와 함께 이사한 집으로 갈때 지하도를 지나면서 보았던 한 무더기의 신문팔이 겸팔이 아이들. 버스 속에서도 지하보도 귀퉁이에도 그들은 썩다 버린 껌처럼 따라다녔다.

“할머니가 위독하세요. 도와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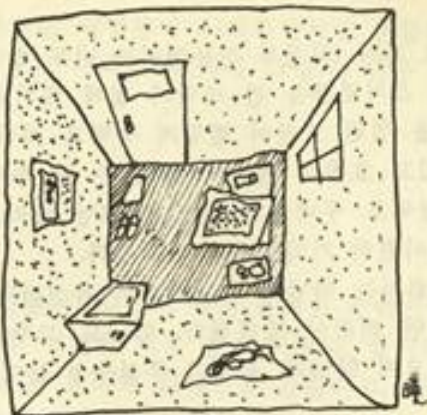
아이들은 중얼중얼 입속에서 대사를 외웠고 사람들은 안방에 앉아 텔레비전 안의 연속극을 보듯 무심했다. 무릎에 놓인 신문은 다시 집어갈때까지 손도 대지 않았다. 그래도 한 버스에서 몇장 팔리는 신문을 위해 아이들은 한 번도 중착역으로 간 적 없는 버스를 끊임없이 타고 또 탔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끊임 없이 앞에서 뒤로 스치는 풍경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지나갈 뿐 한번도 변화하여 코 앞에서 들이닥치지 않는 것.

“네 이름은 뭐야?”

오야봉은 독사같은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물었다. 또치는 창고집에 도착하자마자 날아와 꽃힌 오야봉의 큰 손에 따귀를 맞아 붉어진 볼을 부비며 내옆에서 있었고 땡이와 봉이는 얼어붙은 듯 뒤편에서 떨고 있었다.

“애…… 애는 병어리인가봐요.”

또치가 말을 더듬거렸다. 손자육이 또렷이 남아있는 볼이 이제는 푸르죽죽해



지고 있었다. 그래, 나는 이름도 없고 말도 못해. 나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했고,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저…… 오야봉. 애도……”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잖아? 그 따위로 밖에 가서도 떠드는 거야? 새끼들.”

독사같은 아버지의 눈이 봉이에게 가서 쏘았다. 봉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너희들 오늘 점심은 없어. 벌어오지 못했으니 굶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 넌……”

나는 올리버 트위스트를 생각하고 있었다. 거기 아이들이 못된 대장에게 잡혀 강제노역을 하는 그 동화를 읽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별로 겁나지 않았다. 엄마가 자신을 ‘갈데까지 다 간 년’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동네 사람들과 팔을 걷어붙이고 아귀다툼을 하며 부끄러움이란 건 아예 없는 것처럼 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살아왔다. 나는 결국 자기 스스로에게 욕을 하며 살게 되면 이 세상도 무섭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독사 아버지의 눈이 내 아래위를 훑어 보았다.

“너희가 데려왔으니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당장 내일부터 같이 일을 나가. 니네가 먹으면 너도 먹고 굶으면 같이 굶는 거야. 일단 들어오면 도망치거나 피를 부릴 생각은 하지마. 다른데 나가봐야 너희를 환영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 결국 통념새나는 고아원이나, 먼지나 풀풀 날리고 배만 더 고픈 공장 잔심부름 깃 뿐이야. 너희는 행운이야. 고마운 줄 알아야 해.”

독사 아버지가 걸터 앉아있던 나무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제서야 지탱하고 있는 목발이 눈에 들어왔다.

“무릎 아래로는 로보트같은 철다리야. 목발을 가지고 또치형을 후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많이 봐준거야.”

봉이가 소근거렸다.

“오늘 저녁에는 신촌으로 가자. 의정부 신문팔이는 너무 벌이가 없어.”

아버지가 나가자 또치는 스티로폼을 잔 바닥에 칠해 캐비닛에서 꺼낸 나일론 이불을 폈다. 큼직하게 입을 벌린 모란이 뿔뿔히 누렇게 바닥에 펼쳐졌다. 가장 자리에 까맣게 때가 젖어있고 호청이 떨어져 속에 든 흰 솜이 너덜 거렸다. 땀 이슬은 나무가 쓰러지듯 이불위로 무너졌다. 땀발은 그냥 슬리퍼에 채인 채 시멘트 바닥에 두고. 어디선가 아련히 기차소리가 들려왔다.

나무를 많이 실은 검은 화차는 아닐까? 발바닥이 욕신거리며 확확 달아왔다. 이제야 하루종일을 쏘다녔던 피곤이 밀려왔다. 입술도 고추가루 물이 박힌 듯 아려왔다. 하지만 잠은 잘 오지 않았다. 봉이가 주섬주섬 늘어선 몸을 챙겨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잠을 자줘야 해. 6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계속 뛰어나야 되니까.”

봉이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등을 돌린 채, 누워있는 또치쪽으로 연방 눈치를 보며 속닥거렸다.

“오야봉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싸움도 기차게 잘했대. 이 바닥에서 날렸대니까. 그런데 어떤 배신자들이 다리를 찌르고 도망갔대. 오야봉이 그랬어. 사내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거라고……”

봉이는 마치 자신이 오야봉인양 으쓱거리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이들도 사내애들이니까, 또 그 알량한 영웅 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느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싶어하고 또 그것에 무한히 기대고 싶어함. 엄마는 종종 그때와 사내들의 결말이란 건 믿을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어두운 바닥일수록 주먹이나 칼을 잘 쓰는 사내가 대장이 되고 대우를 받곤한다. 감옥에 몇번 다녀오고 적당한 상처가 훈장처럼 얼굴에 박혀있고 가끔씩 여자들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 있어야 ‘멋진 사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웃기는 새끼들. 거만을 떨며 돈있는 자망을 하는 놈이나, 낚시칼을 빼들고 눈 깔을 부릅뜨는 놈이나 어차피 배위에 올라타고 용을 쓰는 꼴이야 똑같으면서…… 정말 웃긴다니까. 웃겨. 웃기는 새끼들이라고.”

엄마의 몸에서는 독한 슬픔새가 났다. 담배연기를 마구 뿜어대며 엄마는 자꾸 웃긴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조금씩 흔들려갔다.

—엄마, 도너스를 만들어봐. 달콤하고 맛있는 도너스 연기를.

내 바램도 무시하고 엄마는 횡설수설만 계속하더니 나중에는 영영—곡을 하듯 울어버렸다. 엄마는 왜 우습다면서 울었을까? 엄마는 바보다. 나를 지금쯤 찾고 있을까? 아니, 잘 사라져 버렸다고 좋아할 것이다. 분명하다. 나도 갑자기 우스

워졌다. 천정에 매달린 백열등이 시계부탈처럼 흔들리며 눈앞에 아른거렸다. 비적비적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아 그렇게, 너무 우스우면 눈물이 나는 것일까?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우물은 너무 캄캄했다. 사방의 벽은 불쾌한 끈적거림, 어디선가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은 너무 좁고 어둡다. 빛이라곤 손닿지 않는 머리 꼭대기에서 적당히 습통을 조이지 않을만큼 감질나고, 나는 질척거리는 물속에 서있었다. 이곳을 나가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 없다. 절망과 암담함이 순간 뱀속을 파고드는 듯 소름을 돋게했다.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애, 애. 일어나.”

나는 가위에 눌려 있었다. 눈을 떠 보니 또치의 사팔뜨기가 근심스러운 빛으로 나를 향해 있었다. 가위에 눌리기만 하면 꾸는 그 똑같은 꿈, 엄마는 어린 나를 죽으라고 우물에 밀어넣었다.

“에그. 저런 목숨은 모질기가 서리맞은 대나무같다니까.”

상처 하나 없이 꺼내진 나를 향해 동네 아줌마들은 혀를 찼다.

“무서운 꿈을 꾸었나 보구나. 괜찮아. 무서운 꿈은 키키는 꿈이라니까.”

오늘 새벽에 보았던 또치와는 사뭇 달랐다. 제법 또렷도렷 말을 하며 나를 달랐다.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일나가면 밥을 먹을 수 있어.”

어쩌면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늙을 수 있을까? 난장이처럼 자라지는 않고 얼굴만 늙어버리는 모양이, 텔레비전에서 본것처럼 갑자기 마귀의 저주를 받아 시간을 넘어서버린 것 같았다. 또치는 우유파에다 무엇인가를 덜고 있었다. 끈끈하게 흘러내리는 투명한 액체였다.

“애들 깨워서 일 나가자. 난 여기 오기 전에 자동차 시트 카바를 갖고 부품 수리를 하는 가게에서 일했었어. 계집 끼고 빨간 스포츠카를 끌고오는 학생놈들도 많이 상대했지. 뱀은 끌렸지만 참을 만했는데, 손님 돈을 속삭이는 바람에…… 소년원에 갈뻔 하다가 실컷 맞고 쫓겨났어. 오야봉을 만났으니 먹고 살기야 하지. 이 짓이 오히려 편해. 마음껏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봉이가 몸을 뒤척거리며 꿈—하고 신음 소리를 냈다. 얼굴을 잔뜩 찡그린 것이 아픈 것 같았다.

“저놈, 발이 큰일이야 무릎이 올랐는데 계속 땀발로 다니니.”

봉이의 발은 정말 코끼리 발처럼 곱툰딱지로 떠개가 올라 있었다. 다른쪽 발보다 조금 부어있었다. 이제야 봉이가 절뚝거렸던 것이 기억났다.

“저놈은 구두딱이 찍혀있는데 남의 나와바리를 침범했다고 지네 딱식땅 같이 물때맞고 쫓겨났대. 땀이도 같이 왔지. 우린 다 고아원 출신이야. 댄 애들도 마찬가지고. 히히. 만화같지? 세상이 정말 지랄이야.”

또치의 말에는 전혀 슬픈 빛도 서러운 빛도 없었다. 지랄인 세상은 지랄같이 사는 거라고 말하는 또치가 마치 먼지덩어리같이 보였다. 봄이면 뽕얇게 돌아오르는 메마른 누런 먼지처럼, 손을 대면 소리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것 같았다.

봉이와 땀이를 깨워 일으킨 또치는 미리 오야봉에게 받아두었던 커피땅콩과 초콜렛 상자를 들고 일을 나갈 준비를 했다. 골목을 벗어나기 직전, 목재판 잔뜩 쌓아놓은채 부도라도 났는지 철근 콘크리트만 피물같이 서있는 가건물에서 우리는 멈춰섰다. 또치는 허름한 카키색 가방에서 우유팩을 네개 꺼냈고 아이들은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너도 앉아. 이일, 어차피 댄정신으로 못하는 것 알지? 기분도 좋고, 배도 덜고프고 맞아도 아프지 않아.”

또치는 우유팩을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제가끔 소중하게 그것을 안고 자리를 잡았다. 나는 나무 쌓은 것에 기대어 앉았다. 날이 벌써 어둑어둑 지고 있었다. 멀리 흐르는 검은 시궁창 너머로 노을이 엄마의 입술만큼이나 붉게 타고 있었다. 또치는 내 옆에 앉아 우유팩에 코를 박았다.

“천천히 들여마셔봐. 기분이 좋아질거야. 돈없다고 뻘는 사람들의 구두발에 채이면서도 끝까지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거야. 신촌 바닥을 밟아 부르르도록 걸어야 목표량을 채울 수 있을테니, 그래도 이걸 마시면 힘든 것도 쉽게 잊혀진다고.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행동하는 것 만큼 편한게 어디있겠어? 쫓겨온 세상. 썩 잊어버리는게 최고라고. 씨발.”

우유팩을 열고 나도 천천히 숨을 들여마셨다. 지독한 냄새였다. 코를 쏘는 묘한 석유냄새, 고무냄새, 아교풀냄새…… 그 모든 것이 섞인 듯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기침을 하며 코를 때려는데 또치의 손이 강하게 내 뺨머리를 내리 눌렀다.

“그냥 말아. 이렇게 본드라도 마시지 않으면 네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도 견디기 힘든 이 험한 세상을. 실수나 하고 찢찢 찢대지 않으려면 시키는대로 해. 일 못하면 너만 굶는 거야 이 병신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우유팩 속의 본드는 조금씩 내 감각에 날아와 꽃혔다. 코끝부터 얼얼해지기 시작하며 눈이 따끔거렸다. 눈에 티가 들어가면 그냥 눈물로 씻어버려야 하는데, 나는 그걸 알면서도 자꾸 손등으로 눈을 비볐다. 왜 이렇

게 정신이 몽롱해질까?

“손으로 벽을 밀면 벽이 밀리고, 100미터를 1초에 뛸 수 있다고. 이걸 요술의 물이야. 나를 짓밟고 천대하는 놈들도 손가락 끝으로 나오는 레이저 광선에 죽어 넘어지지. 뭐든지 마음대로야. 나는 육백만불의 사나이고, 마징가고 태권브이이고, 넌 윈도우먼이고 소머즈고 요술공주 명키가 되는 거야. 재미있지? 히히.”

우유팩에 깊이 박았던 코를 드니 또치는 여전히 코를 박은 채 널부러져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저어 멀리서 노을이 흔들렸다. 엄마의 입술이 빠르게 흔들렸다. 털복숭이 흑인의 가슴에, 김치 신내나는 아저씨의 입술에 아무렇게나 날아가는 공중의 그 붉은 입술. 나는 일어서려다 말고 몸을 지탱하지 못한 채 풀썩 쓰러졌다. 저쪽 나무더미 사이에서 침을 흘리며 킁킁거리고 누운 봉이가 보였다. 땀이는 나비처럼 일어나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주 가볍게, 공기의 무게마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아저씨, 하나 팔아주세요. 누나 88피울 돈으로 초콜렛 하나 사드리라구요. 에이, 그러지 말고 하나 팔아주세요. 레지 누나, 눈물기지 마세요, 속눈썹 붙인 것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냥 파리가 한번 얼굴에 붙었다 날아가는 것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 할머니가 살아 누워 계시고 어린 동생이 집에서 오빠를 기다



리며 굶고 있습니다. 나라의 동량이 되기위해 고학하는 불쌍한 학생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아줌마, 아저씨, 경향신문이면 뭐 어때요. 좀 팔아주세요. 어차피 신문들은 적당히 거짓말을 해대고 있으니까, 도시락이나 화장실에서 쓰시죠, 안그래요?"

또치가 웅얼거리고 있었다.

"기본이 좋지? 어때? 세상이, 우리에게 언제나 등돌리고 있던 세상이, 내 마음대로 모양을 바꾸는 것이 즐겁지 않아?"

어지러움은 때로 나를 즐겁게 하고 때로 나를 슬프게 한다. 그네를 높이 뛰어 올랐을 때 흔들리는 세상이 어지러움으로 머리를 때릴 때, 나는 그 순간 그네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으로 즐거워지고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이며 살고 싶어진다. 하지만 엄마에게 너무 심하게 두들겨맞을 때 내동을 풀어내리는(더 격한 표현을 써야겠지만 잘 생각나지 않는다) 방비의 촉감이 나를 아절하게 할때, 견디기 힘든 아픔에 꿈틀거리는 살갗을 바르르 떨면서도 애써 탄생각을 하며 잊으려하는 내가 슬프기 짝이 없다. 어지러움은 언젠가 나를 놓아주겠지. 두레박을 타고 우물에서 끌려나왔을때 눈을 찔러왔던 무더기 무더기의 모란, 그 화려한 생명의 나라로.

나는 만화영화를 많이 보았지만 그 대부분은 믿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모조리 바보취급한다. 마린보이도 요술공주 밍키도 가제트도 뽀빠이도 착한 놈이 나쁜놈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은 '정의'의 힘으로 나쁜놈을 물리친다는 뻔한 줄거리이다. 세상이 진짜 그렇게 돌아간다면, 적어도 내가 순진하게 믿거나 바란다면, 별 무리없이 만화영화를 그저 만화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애다운 순진함'을 잃어버린데 대해서는 슬프지만, 도저히 그것을 보며 즐거워할 수 없다. 멍청한 가제트가 아주 우연한 계기로 말미암아 적을 무찌르는 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는 박수를 치지만 그 통제함은 종종 불쾌감이 되어버리곤 한다. 특히 내가 싫어하는 것은 '프란다스의 개'이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 네로는 정말 나를 짜증스럽게 하고 화나게 한다. 내가 특별히 못되고 성질머리가 더러운 애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육한다면 할 수 없다. 하지만 네로는 너무 착하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을 겪어도 항상 착한 마음으로 참아낸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며 네로를 응원하고 응원하다 끝내 욕을 하고야 만다. 네로가 한번만이라도 그 악한 인간들에게 덤벼 정면으로 그 벽을 부수어주기를 바라지만 그 아이는 결국 그 벽 앞에 무릎을 꿇는다. 네로가 마지막에 프란다스의 개와 함께 얼어죽을 때 나는 울었다. 결코 슬퍼서 운 것은 아니다. 치사하고 더럽고 억울했다. 그렇게 죽는 건 정말 개죽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만화영화를 믿지 않는다. 선이 악에

게 굴종으로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결코 믿지 않는다.

또치의 눈이 완전히 풀려있었다. 오늘 아침 처음 지하철에서 보았던 그눈이었다. 사팔뜨기 눈이 찢어진 가죽 사이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번뜩이는 것이 참으로 우스웠다. 마치 썩은 계란 속에서 노른자가 풀려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야, 병어리. 너 이리 와 봐."

또치는 나무더미 틈새에서 숨겨둔 조그만 비닐봉치를 꺼냈다.

"이거 먹어. 약파야. 벌을 받아 굶을 때를 대비해서 놔둔거야."

나는 그 기름과자를 입에 대었다. 달큰한 과자조각이 텅빈 뱃속에 들어가자 속이 쓰려왔다. 하지만 또치가 갑자기 과자가 아까와져 뱃속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허겁지겁 그것을 먹었다. 또치는 취한듯한 그 눈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약과를 거의 다 먹었을때 쯤이었다. 앞에서 말했던대로 잘 놀라지 않고 침착하고 적당히 무감각하다는 것을 특기로 삼고있는 나이지만,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일에 생겼다. 또치는 열하나, 열둘 정도의 아이인것 같았다. 그런데, 그 자식도 사내라고 나의 빨간 줄줄이 바지에 슬그머니 손을 넣은 것이었다. 나는 충격에 대한 반응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늦은 편이다. 계집애들이 벌레 한마리, 쥐 한마리에 짹짹거리는 꼴을 보면 가서 할뛰어 주고 싶다. 내가 그런 식으로 내가 받은 충격에 반응했다면 나는 벌써 심장마비로 죽어있어야 했다. 줄줄이 바지는 딱딱한 나일론으로 조이고 있었기에 또치의 손놀림은 금을 수밖에 없었다. 손을 가렝이 사이로 넣기 위해 얼굴이 시뻘겋게 되면서 경경거리는 꼴은 참 우스웠다. 하지만, 말하자면 또치는 내가 계집애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최초의 남자임에 틀림없었다. 엄마가 오로지 그것만 하고 다니면서도 먹고살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여자를 사고 싶어하는 수많은 남자 덕분이라는 것도 이해되었다. 그러나, 나는 멍청이가 아니다. 가렝이사이로 다가오는 또치의 손이 가까와졌을때, 나는 벌떡 일어났다. 머리가 핑돌았지만 길을 따라 달릴 수는 있었다. 난폭한 주인의 구두발에 채인 동개같은 피성을 지르며 바락바락대는 또치의 목소리가 머리 뒤편에서 아련히 들려왔다. 숨이 차올랐다. 목젓이 떨리고 금방이라도 끝까지 숨이 넘어 갈것 같았다.

—예쁜 엄마, 노을, 털복숭이 흑인, 젓꼭지, 본드, 검팔이, 빨간 줄줄이 바지, 취한 눈, 그리고 그 손, 더듬거리며 다가오는 그 손, 그 손……

한참을 달리다 나는 구역질을 시작했다. 머리 속에서 영글어지는 모든 생각들이 상해버린 것 같았다. 그 매스매스한 기분에 입속에 손가락을 깊숙이 찔러넣었다. 계속 노란 위액만 나왔다. 더 이상은 기운이 없어 지하철 계단아래 쪼그려 주저앉을 때까지, 나는 구역질로 나를 괴롭혔다.



슬픔처럼 어둠이, 침묵처럼 어둠이 살금살금 하늘에 퍼지고 있었다.

눈꺼풀이 무겁다. 잠이 들면 안되는데, 추위에 웅크린 몸에 줄음이 찾아왔다. 지쳐 쓰러져있는 몸을 부스스 일으켜 세우니 내 머리맡에는 몇개의 백원짜리 동전이 놓여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온다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처럼. 그래도 아직은 나같은 아이나 또치, 봉이, 땡이 같은 애들에게 동정심을 베풀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꽤 살아있나보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까지는 살아 있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동전을 주워 일어났다. 바깥 하늘은 캄캄했다. 분식집에서 도너스를 다섯개 먹었다. 먹어야 한다는 것에 나는 시달렸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니까. 죽는다는건 끔찍하다. 우물보다 깊은 어둠, 그리고 나는 분명히 혼자 죽어 쥐악을 먹은 쥐처럼 아무도 못보는 곳에서 썩어갈테니까. 나는 꾸역꾸역 도너스를 입속에 밀어넣었다.

거리의 사람들은 어디론가 밀려가고 있었다. 나도 그 대열에 끼어 밀려갔다. 쇼윈도우에 진열된 빨간 겨울부츠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참말 예쁜 구두였다. 저 구두를 신고 흰 눈위를 걸으면 도박도박 빨간 발자국이 새겨질 것 같았다. 그때였다. 문득 나는 상점의 불빛에 비치는 검은 개의 얼굴을 보고야 말았다.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하며 겁이 덜컥 났다. 개는 지금까지 나를 계속 쫓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 다니며 내가 한 모든 행동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쪽 눈이 찢부라져 있었고 찢부라진 눈꼬리에는 멍이리진 눈곱과 피가 엉겨 있었다. 용산의 시장 골목에서 보았던 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 분명 그 개였다. 불품없다. 등을 덮은 덥수룩한 털이 군데군데 엉키고 딱딱해진 게 눈에 띄었다. 이렇게 밝고 번화한 거리에서 사람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에 검은 개의 고집스러운 세상이 어둠게 도드라지고 있었다. 개의 축축하게 젖은 발언저리에 묻어다니는 오줌냄새, 사람들이 피하는 그 집요한 냄새는 바로 나의 냄새였다. 개가 소리없이 내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어느 아이보다 용감하

고, 뻔뻔스럽고, 무감동하고, 그래서 이 세상도 좀더 많이 안다고 자부했었지만 눈앞이 캄캄해져왔다. 나는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엄마를 버린 것처럼 또 치네도 버렸지만, 이제 나는 비로소 쫓기는 것이다. 아니, 버린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것에도 쫓기고 있었는지 모른다. 뒤돌아서 달리면서 나는 울었다. 무서웠다. 세상은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거인처럼 멍청하지도 않고, 실수도 하지않는 무서운 것이다. 나는 다만 어린아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듯이, 세상도 어린아이에게는 비켜가야 하는것 아닌가? 아아 제발, 어린아이이기에 겪는 두려움이고 착각이길

나는 뛰고 또 뛰었다. 거리의 불빛들은 저희들끼리 킬킬거리며 도망치는 나를, 점점 작아지기만 하는 나를 비웃고 있었다. **원원**

잉태 편집부원 모음

「잉태」는 바로 여러분이 만듭니다.

우리,

잉태의 설레임부터 감동적인 해산의 과정까지를

함께 하지 않으시렵니까?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막 태어난 아기처럼 눈동자를 반짝이면서

바로 지금,

오십시오.



오실 분: 89·90학번 남·여학생 모두

오실 곳: 학생회관 3층 홍여학생회 잉태편집실

출산 후기

지금.

눈물겹도록 그립고 절실하게 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많은 시간을 힘들어 하고 또 힘든 채 했던 나에게 마냥 따뜻하게 만은 다가서지 못했던 선배, 동료들. 이제는 그들이 나에게 정말로 따뜻했었던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다.

감사한다.

그들과, 나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던 모든 분들께...

-美-

전화를 기다리며 적는다.

고생 많았다. 우리 후배들...

기획실의 여러 선배님들, 모모 언니, 홍여학생회 많은 동료들... 감사할 사람이 너무 많은.

드디어 나옵니다.

자랑스러운 잉태 3호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임히길 바랍니다.

-땅-

죽을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면 살 수 없는 것은 살인가. 그러한 궤변적인 물음은 나를 지치게 했으며 삶과 죽음에 대한 실존적인 문제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있었던 것은 삶과 죽음이 적당히 우중충하게 복합돼있는 현실이었다. 지금, 현실속에서 나는 비로소 삶을 발견하고 목적의식적인 삶을 살려 노력한다. 그리하여 죽음에서 해방되어 현실로 되돌아왔다.

난산의 고통을 함께 감내하길 주지 하지 않았던 잉태인들에게, 그리고 해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연세인들에게 이 용골찬 조그만 핏덩이를 보낸다.

희

잉태

1990년 봄

1990년 2월 발행

펴낸이: 김 성 희
 위은이: 잉태편집위원회
 찍은곳: 백 두 기 회

편집위원

김성희 (국문 86)
 박성연 (영문 86)
 박미향 (도서 88)
 박정희 (영문 88)

대우가족



소박하면서도 건강한 삶은 아름답습니다.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마냥 외로운 건 아닙니다.
 인적이 드문 외진 산골이라고 마음까지
 척박하진 않습니다.
 거기,
 외딴섬과 깊은 산골에도 보람으로 주고 받는
 미소가 있어 이땅의 삶이 한결 풍요롭습니다.
 따뜻한 만남이 있고,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이웃들이 있어 이땅의 삶이 한결 건강합니다.
 만나고 나누고 함께 하는 우리의 삶—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가족은 1979년부터
 비금도, 노화도, 진도, 무주등지에서
 의료사업과 장학사업을 펼치며
 낙도·오지를 돕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